

제주 전통용기의 복원과 전승 및 문화유산화 과정 연구

염미경 · 장혜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발 간 사

제주인의 삶에서 중요한 도구였던 물 길는 ‘허벅’이나 곡식 등을 담아두던 ‘항아리’와 같은 제주 옹기는 제주의 자연, 기후, 풍토, 바람, 흙, 불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진 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옹기는 제작과정이 분업화되어 흙을 다루는 영역, 기물을 성형하는 영역, 불을 다루는 영역, 굴을 축조하거나 옹기제작 전반을 관장하는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옹기제작은 개인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공동체 조직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옹기생산과 유통이 지역 내에 국한되어있던 제주는 제주 전역의 환금작물 재배와 수요 감소, 그리고 옹기 제작 용 흙과 땔감 조달 등의 문제로 퇴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제주옹기의 전승과 보존 관련 자료의 생산과 축적뿐만 아니라 제주옹기의 전승과 보존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 설정과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통옹기의 전통기술 및 조형성과 예술성, 전통옹기 가마(굴)의 구조와 축조방법, 전통옹기에 대한 인문학적 전승과 제주도 옹기장의 생활사 그리고 전통옹기의 축제화·문화유산화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제주옹기가 ‘문화적으로’ 재생되어 ‘제주옹기문화’로서 자리매김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전승·보존 노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학술적·정책적·교육적 지원방안들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노력해주신 연구진에게 고마운 뜻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제주옹기문화가 보전되어 세계적인 자산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강 기 춘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근대화과정에서 소멸되다시피 한 전통옹기의 복원과 전승, 특히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되는 과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제주옹기의 전승체계의 현주소를 담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제주전통옹기 복원과 전승활동 및 문화유산화 과정을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보유자를 비롯해 1대 기능인들, 제주전통옹기 전승과 복원노력을 해온 인물과 단체, 그리고 제주도 행정당국의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담아낸다. 또한 제주옹기의 문화유산화 과정에서 옹기축제를 빼놓고 논의할 수 없다고 할 때 제주옹기굴제를 다룬다. 이 연구를 통해 제주전통옹기의 전승과 보존 관련 자료 생산과 축적은 물론 지원정책 방향 설정과 학술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2. 연구 내용

첫째, 제주전통옹기의 제작 전통이 사회경제체제와 맞물리면서 퇴조했다가 문화적으로 소생해 제주옹기문화로 자리매김해간 과정, 즉 제주옹기의 축제화와 문화유산화를 살펴본다. 둘째, 제주옹기는 제주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생활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전통옹기 제작과 유통의 거점이자 전통옹기 전승과 보존의 거점인 대정읍과 한경면 지역 등 과거 제주전통옹기 생산지의 전통옹기 전승과 보존활동을 살펴본다. 셋째, 제주전통옹기의 문화유산화 과정을 다루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열린 옹기축제 ‘제주옹기굴제’를 살펴본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정책을 살펴보고 타 지역 전통옹기 전승체계 사례를 경기도 오부자옹기와 울산 외고산옹기마을의 전승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제주전통옹기 전승체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모색해본다.

II.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검토

제주옹기에 대한 각론적 연구는 1980년대 들어와 이루어졌는데, 제주옹기의 역사와 생산기법, 문양과 조형성, 그리고 가마의 구조와 지역적 특성에 가치를 부여해 제주옹기를 재발견하고 이를 알리거나 예술, 미학, 조형, 유적지의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들이 있다. 그동안의 제주옹기 관련 연구들은 크게 제주옹기의 전통기술 및 조형성과 예술성 중심의 복원 관련 연구, 전통옹기 가마의 구조와 축조방법 중심의 복원과 재현 관련 연구, 전통옹기에 대한 인문학적 전승과 제주도 옹기장의 생활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제주옹기가 지역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2. 연구 대상과 방법

1) 연구 대상과 범위

이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은 2015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제주의 문화유산으로서 제주옹기의 복원과 전승 및 문화유산화 과정을 다룬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 연구는 분석자료 수집을 위해 문헌연구방법과 심층면접조사 및 구술자료 수집방법을 병행해 사용한다. 심층면접조사는 과거 제주옹기 생산지(대정읍 구억리)에서 제주옹기 전승 노력을 해오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했고, 제주전통옹기의 전승보전활동 단체 관계자들과의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으며 무형문화재 제주도 옹기장 보유자와 1대 기능인들 및 제주옹기를 생활 속에서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활동을 해온 도예가 등의 생애사자료를 수집했다. 이외에 대정읍과 한경면 지역 현지조

사를 통해 전통가마터와 현존가마 등 제주옹기 유적지와 2015년 제5회 제주옹기굴제 과정을 기록했으며,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도 반영하였다.

Ⅲ. 제주전통옹기의 복원과 전승활동

1. 제주전통옹기 관련 주요 문화유적

제주전통옹기관련 문화유적으로는 가마(굴)가 4기 있는데 노랑굴 3기와 검은굴 1기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가마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연경사면에 축조되었다. 구억리 노랑굴(제주도지정 문화재기념물 제58-1호)과 검은굴(제주도지정 문화재기념물 제58-2호), 신평리 노랑굴(제주도지정 문화재기념물 제58-3호), 신도리 노랑굴(제주도지정 문화재기념물 제58-4)이다.

2. 제주전통옹기의 복원과 소생 그리고 문화유산화 과정

제주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제주전통옹기는 1990년대 후반 들어 제주옹기의 가치가 재조명 되면서 복원노력이 시작되었고, 점차 제주옹기의 우수성과 독특함, 창조적 계승과 이의 관광자원화와 관련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게 된다.

제주옹기의 제작과정이 공동작업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의 복원과 전승 노력도 공동체작업, 즉 협업과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 말 1대 기능인들과 전수자들이 참여한 제주도예원과 제주전통도예학회가 중심이 되어 전통옹기 제작과 가마를 복원, 재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고, 학술연구자들이 주축이 된 제주옹기문화연구회는 전통옹기와 가마 연구를 토대로 전통옹기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면서 현대화를 시도해왔다.

초기 전통옹기 복원노력으로 2001년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제주도 허벅장 1인 전승체계가 만들어지긴 했으나 전승지원금과 행사경비 등을 둘러싸고 문제가 드러나면서 제주전통도예학회는 2007년 말 해체된다. 제주도예촌에 있던 일부 전수자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 공동작업장인

검은돌이 마련되고 전수자들과 1대 기능인들이 참여한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가 2008년 6월 설립되어 전통옹기의 맥을 잇고 제주전통옹기의 무형문화재 재지정 노력을 해나게 된다.

그동안 민간 주도로 추진돼왔던 전통옹기의 복원노력 결과, 2010년 11월 민관협력 방식으로 대정읍 구억리에 제주옹기박물관이 건립되면서 제주옹기를 지역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된다.

2011년 제주전통옹기는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으로 재지정되어 전승체계를 갖추게 된다.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보유자로 도공장 고원수, 불대장 강신원, 질대장 이운옥, 굴대장 고신길 씨가 지정되었고, 2001년 제주도 허벅장 보유자였다가 해체된 신창현 씨는 제주도 옹기장 도공장으로 재지정 되었다.

제주옹기 1대 기능인 고신길 씨가 2011년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주도 옹기장(굴대장)에 지정된 해 작고하면서 고신길 씨의 집과 집터를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의 대정읍 무릉리 작업장 시대가 열린다.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한 제주옹기굴제이다. 제2회 제주옹기굴제부터 2015년 제5회 제주옹기굴제까지 대정읍 무릉리에서 치러졌고 2015년 제주옹기굴제는 제주도 행정당국과의 협력 하에 치른 첫 번째 제주옹기굴제이며, 명실상부한 지역 민관협력체제 하에 전통옹기의 축제화·문화유산화가 시도된 원년이다.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는 2011년부터 매년 말 제주옹기굴제를 열고 있다. 제주옹기굴제 개최는 제주전통옹기의 원형 재현과 보존에 있음을 확인시키고 알리는 데 있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옹기굴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향토핵심 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에 ‘제주전통옹기 명품화 사업’이 선정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과거 대표적인 옹기생산지였던 대정읍 구억리에서는 마을청년회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옹기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의 폐교된 옛 구억분교에 2009년 ‘제주옹기배움터’를 개관해 전통옹기 만들기 체험을 조직하는가 하면 마을주민들로부터 수합한 제주전통옹기를 전시했다.

제주옹기배움터의 운영은 ‘제주옹기박물관’ 건립을 목표로 한 중간 단계의 의미를 지녔으며, 제주옹기박물관 건립을 위해 마을주민들이 허벅·통개·시루 등 100여종의 옹기, 400여 점의 전통옹기를 모았고 전통옹기 관련 유물까지 포함해 600여점을 수집하여 2011년 11월 제주옹기박물관이 개관하였다.

제주옹기박물관 건립 후 전통옹기 전수교육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2012년 12월 ‘전통옹기전수관’이 건립되었으나 구억리 마을사업으로 전락하면서, 그리고 이에 관여해오던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작업장이 구억리에서 무릉리로 옮겨가면서 구억리에서의 전승활동은 중단되었다.

이후 구억리에서의 전통옹기 전승활동은 2015년 들어 ‘구억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정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전통옹기전수관은 다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IV. 제주전통옹기의 전승·보존정책

1.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정책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1월 10일에 제정된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문화재는 형태에 따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분류되며 문화재 지정주체에 따라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로 구분된다.

국가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는 종목을 먼저 정하고, 반드시 해당종목의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지정하며, 현장에서 전승교육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자는 명예보유자로 인정한다. 이렇게 인정된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원형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전승을 위한 전수교육과 공개시연의 의무를 지닌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체계는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승과정에 대한 검증은 매년 공개되는 전승시연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주도지정 문화재는 이 규정에 의거해 제주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제주도지정 문화재 분과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

문화재로 구분되어 있고 각 분과 관련 문화재 선정은 도지사 소속 문화재 위원회의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제주도지정 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해제가 이루어진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문화재 관련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각분과별 위원회 밑에 전문위원을 두어 선정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정해진 서식에 따른 보유자 인정서를 발급한다. 무형문화재는 보유자나 보유단체-전수교육조교-전수장학생 체계로 전수활동이 이루어진다. 제주에서 가장 많은 보유자가 지정된 무형문화재는 제14호 제주도 옹기장이다. 제주옹기는 그 제작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2011년부터 분야별 지정을 하고 있다. 현재 도공장은 부창래, 신창현 2인이며, 질대장은 이윤옥 1인, 굴대장은 김정근 1인으로 4인이 지정되었고 불대장은 미지정 상태다. 전수교육조교에는 백씨, 강씨, 고씨, 허씨 등 4인이 지정되었으며, 전수장학생은 6인이 지정되어 있다. 제주도 옹기장 전수교육조교까지는 분야별 지정을 하고 있으며, 전수장학생은 전통옹기 전승 분야를 정하지 않고 전통옹기 제작 전반에 대해 전수받는다. 이는 전승이 쉬운 분야로만 편중될 수 있기 때문이며, 전수장학생에 대한 전수 방향은 옹기제작 전반을 전수하는 것으로 전승체계를 바꿔나감으로써 보유자 수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2015년 현재 제주도 옹기장 전승지원금이 보유자에게는 80만원, 전수교육조교에게는 30만원, 전수장학생에는 20만원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 이외에 매년 열리는 탐라문화제 무형문화재 시연 행사 보조금으로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는 하지만 제주전통옹기 전승을 위해서는 부족한 편이다.

2. 국내 전통옹기 전승·보존 사례 연구

1) 오부자옹기 사례

오부자옹기는 무형문화재 옹기장 지정이 가계전승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예이다. 옹기장 김일만 씨는 2000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7

호 옹기장에 이어 2012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김씨 가족은 5대조 조부 때부터 전통옹기 일을 해왔으며, 경기도 여주에서 8대째 전통옹기를 빚어오고 있다. 흙을 고르는 일에서부터 반죽하고 두드리고 패고 깎고 비비고 물레질하고 구워내는 옹기제작 전반적인 과정을 손작업으로 하고 있다.

오부자옹기의 전승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현재 제96호 중요무형문화재 옹기장 보유자는 김일만 씨이며, 전수교육조교는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2012년 보유자 지정으로 인하여 5년 이상의 전승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수자로는 김일만 씨의 아들 4인이고 전수장학생은 손자 3인이다. 2015년 현재 전승지원금은 기능보유자는 매달 167만원, 전수장학생은 26만원을 지원 받지만 이수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전승상황은 1년 1회 3일간 공개시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 외고산옹기 사례

울산광역시 외고산옹기는 무형문화재 옹기장 지정을 보유단체, 즉 외고산옹기협회로 지정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009년 2월 5일 울산광역시는 외고산옹기협회의 8인의 장인에게 ‘옹기장’이라는 칭호로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했다. 30-50년 이상의 옹기제작 경력을 지닌 서종태, 최상일, 조희만, 장성우, 허진규, 신일성, 배영화, 진삼용 씨 등 8인은 외고산옹기협회 회원이다. 이들은 모두 전통기법의 옹기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가마의 활용빈도, 옹기제작 기술의 완성도, 현실적인 기술 전승을 인정받아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었다. 이들이 단체로 지정될 수 있었던 요인 중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점은 이 지역이 전국 최대의 민속옹기마을이라는 점이었다.

외고산옹기협회 전승체계와 현황을 살펴보면, 외고산옹기협회 회원들은 2011년 준공된 옹기회관에 입주해 전시 및 판매를 했으나 2015년 현재는 각자의 요업장에서 옹기제작 및 전승활동을 하며, 아직 전수교육조교는 없고 한 작업장에 1인 정도 전수장학생이 있어 전수장학생은 전체 7-8인

정도이다.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관련 보조금은 1년에 5,300만원 지원받는다. 이 보조금은 연 1회의 공개 행사와 전시 및 타 지역 시연과 홍보 행사를 위해 사용한다. 매년 개최되는 ‘울산옹기축제’에는 무형문화재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외고산옹기협회 회원으로 시연과 전시를 하는 것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3. ‘제주도 옹기장’ 전승체계

1) 제주도 허벅장의 지정과 해제

2001년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허벅장이 지정되면서 전통옹기 전승체계가 마련되게 되고 그 규정에 의해 전승지원금이 지급되었다. 당시 제주도 허벅장 보유자는 60만원, 전수교육조교는 20만원, 전수장학생은 15만원이 매월 지급되고 매년 열리는 제주 탐라문화제에서 행사 시연비도 지급되었다. 이러한 전통옹기 전승체계는 2008년 제주도 무형문화재 지원금 비리문제로 인해 운영되지 못하고 제주도 허벅장에 대한 전승지원금도 중단되었으며 무형문화재 지정도 해제되었다.

2) 제주도 옹기장의 지정과 전승체계 변화

2011년 지정된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은 전통옹기 제작과정을 분야별로 보유자를 지정함으로써 제주옹기 제작의 분업방식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여 제주도 옹기장 질대장 이운옥, 도공장 신창현·고원수, 불대장 강신원, 굴대장 고신길 씨로 보유자가 지정되게 된다.

IV. 결론 및 제언

2015년 현재 제주전통옹기 전승활동은 마을 단위에서는 제주옹기마을 만들기로 정부의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선정된 대정읍 구억리와 1대와 2대 제주도 옹기장 보유자와 기능인들이 관여하고 있는 제주전통옹기

전승보존회와 그 작업장이 있는 대정읍 무릉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작업장이 있는 무릉리는 노랑굴과 검은굴이 전통방식으로 축조되었고, 2012년부터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를 중심으로 제주옹기축제인 제주옹기굴제 개최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시점에서 볼 때 향후 제주도 옹기장 전승체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의 공동분업 전승체계에서 옹기제작 전 분야를 아우르는 총괄적 기능인 육성으로 제주옹기의 전승 방향이 설정되어 있음을 이 연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체 중심의 전승체계가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제주도 옹기장 전승체계의 특징이라고 할 때 경기도 오부자옹기 경우처럼 가계전승방법으로 가는 것보다 울산 외고산옹기 경우처럼 보유단체 지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제주 전통옹기의 전승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언하는 것으로 이 연구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무형문화재 지정도 중요하지만 전승과정이 더욱 중요하고 전승체계를 바로 세워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지지 않게 유지 보전해나가야 한다. 제주옹기 제작기술이 경제, 문화, 사회와 한 덩어리로 융합된 산물인 것처럼 제주옹기의 복원과 전승도 민관협력 하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하며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전승체계의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형문화 전수교육을 위해 설립된 전수교육관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민들과의 교류의 장을 만드는 방법, 전수관에서 전승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기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즉 전수교육관을 복합문화센터로 활용하는 사업, 그리고 전수교육원이 평생학습관, 향토문화관, 지역박물관, 홍보전시관, 문화상품관, 체험연계사업, 학습장 등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거듭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현존 제주옹기 가마터 등 제주옹기 관련 유적지 보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옹기장 보유자와 1대 기능인이 동행해 남아있는 대정읍지역 가마터와 제주도 문화재로 지

정된 가마들을 영상으로 기록하였는데, 이들 유적지에 대한 보존·관리가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대 기능인들이 아직 생존해 있는 동안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보존·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제주에서 전통옹기 복원노력을 해온 민간단체들 간 일정한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제주옹기의 전승과 보존도 중요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또 다른 길로서 전통의 발명, 즉 제주옹기의 창조적 계승과 예술적 승화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 가능하고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연구의 조사과정에서 제주옹기는 전통옹기의 복원과 보존노력을 해온 한 축으로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를, 전통옹기의 현대화와 예술적 승화노력을 해온 또 다른 축으로 제주옹기문화연구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전통옹기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간의 일정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재로서 제주도 옹기장 보유자와 기능인들의 생애와 전승활동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본 연구결과물 이외에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제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보유자와 1대 기능인들에 대한 영상·구술자료 ‘제주 전통옹기 기능보유자와 1대 기능인들의 삶’이라는 생애사자료를 별도 자료로 생산해냈고, 2015년 제5회 제주옹기굴제 과정과 제주도 옹기장 보유자와 기능인들의 활동과정을 영상에 담았다. 1대 제주전통옹기 기능인들이 작고하거나 고령인 현 시점에서 이들의 생애사를 기록하는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과 내용	5
3. 연구의 기대효과	9
II.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 방법	11
1. 선행연구 검토	11
2. 연구 대상과 방법	15
3. 연구과정	21
III. 제주전통옹기의 복원과 전승활동	23
1. 제주전통옹기 관련 문화유적	23
2. 제주전통옹기의 복원과 소생	31
3. 제주전통옹기의 문화유산화 과정	37
4. 제주전통옹기의 전승활동	53
IV. 제주전통옹기의 전승보존정책	58
1.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정책	58
2. 국내 전통옹기 전승보존 사례 연구	73
3. ‘제주도 옹기장’ 전승체계	80
V. 결론 및 제언	87
참고문헌	92
ABSTRACT	97
<부록> 제주옹기 기능보유자와 1대 기능인들의 생애사 기록양식	99

〈표 차례〉

〈표 II-1〉 제주옹기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들	13
〈표 II-2〉 심층면접에 의한 생애사자료 수집 대상자	20
〈표 IV-1〉 제주도 무형문화재 지정현황(2015년 10월 현재)	68
〈표 IV-2〉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2015년 8월 현재)	71
〈표 IV-3〉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허벅장 전승체계	80
〈표 IV-4〉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분야별 지정현황 ...	82
〈표 IV-5〉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전승체계	83

〈그림 및 사진 차례〉

[그림 II -1] 연구수행 절차	22
[사진 III -1] 구억리 노랑굴(갯집)	25
[사진 III -2] 구억리 노랑굴(전면)	25
[사진 III -3] 구억리 검은굴(1)	27
[사진 III -4] 구억리 검은굴(2)	27
[사진 III -5] 신평리 노랑굴(옆면)	28
[사진 III -6] 신평리 노랑굴(후면)	29
[사진 III -7] 신도리 노랑굴(전면)	30
[사진 III -8] 신도리 노랑굴(옆면)	30
[사진 III -9] 1970년대까지 불 땃던 가마(제주시 한경면 조수2리 소재)	33
[사진 III -10] 2013년 제3회 제주옹기축제 팸플릿(1)	46
[사진 III -11] 2013년 제3회 제주옹기축제 팸플릿(2)	46
[사진 III -12] 2013년 제3회 제주옹기축제 행사일정	47
[사진 III -13] 2013년 제3회 제주옹기축제 ‘삼인삼색’전	47
[사진 III -14] 2014년 제4회 제주옹기축제 팸플릿(1)	48
[사진 III -15] 2014년 제4회 제주옹기축제 팸플릿(2)	49
[사진 III -16] 2015년 제5회 제주옹기축제 팸플릿	50
[사진 III -17] 2015년 제5회 제주옹기축제 행사일정	51
[사진 III -18] 2015년 제5회 제주옹기축제 전시관 내부	51
[사진 III -19] 2015년 제5회 제주옹기축제 기원제(굴할망제)	52
[사진 III -20] 제주구억마을 전통옹기전수관	56
[사진 III -21] 제주구억마을 전통옹기전수관에서의 전통옹기전수교육	57
[사진 IV -1] 경기민속자료 제11호 전통옹기가마	75
[사진 IV -2] 오부자옹기 작업장 옹기	76
[사진 IV -3] 외고산옹기마을	78
[사진 IV -4] 2015년 울산옹기축제	79

I.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주거형태가 변화되면서 옹기는 우리 생활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최근에 와서 웰빙문화가 확산되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옹기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¹⁾.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주의 전통옹기(이하 제주옹기)도 다시 각광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통옹기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옹기는 지역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 이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에 따라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제주옹기는 남부지방 옹기의 특징을 지니는데, 전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의 옹기는 기후가 따뜻하여 부패되는 확률을 최대한으로 막고 강한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옹기 입구를 좁게 만들어 많은 수분증발을 방지하고 어깨를 넓게 제작해 옹기의 표면으로 복사열을 보다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작했다(류재만, 2010: 52).

제주옹기는 예전부터 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고, 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던 제주문화의 숨겨진 정수라고 평가된다(오창윤, 2013: 300). 제주인의 필요에 의해 독특한 제작방식으로 만들어져 제주인과 함께 이 땅의 척박한 삶을 견뎌온 제주옹기는 제주의 자연, 기후, 풍토, 바람, 흙, 불의 역사가 그대로 한 몸체에 구현된 기물이다. 철분이 많은 화산회토로 만들어져 유난히 붉은 색을 띠고 유약을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소성(燒成)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문양 등 인위적이지 않다. 대체로 제주옹기는 유약(갯물)을 사용하지 않아 통기성이 뛰어나고 제주옹기는 다른 지역 옹기와 비교해 독특한 모습이 많은데 이는 점토, 제작과정, 가마, 소성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주옹기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옹기의 유래와 종류에 대해서는 류재만(2010: 47-50)을 참조바람.

첫째, 제작 방식의 독특성이다. 우선 제작과정이 분업화로 인하여 흙을 다루는 영역, 기물을 성형하는 영역, 불을 다루는 영역, 굴²⁾을 축조하거나 옹기제작 전반을 관장하는 굴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나누어 옹기제작은 개인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굴(가마)계를 만들어 만들어진다는 점이다³⁾.

둘째, 옹기의 종류의 다양함과 기형의 독특함을 들 수 있다. 허벅, 능생이, 대배기, 허벅등덜기, 소능생이, 허벅방춘이, 망대기, 합단지, 죽절팽, 바래기, 조막단지, 고소리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기형도 독특하다. 대표적인 예로 허벅은 제주의 식수사정이 좋지 않아 멀리까지 물을 길러가야 한 제주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제주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물은 많이 담을 수 있되 물을 길어오는 동안 물 흐름을 방지해야하기에 배는 부르고 부리는 좁아지는 기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제주옹기는 지역의 삶의 환경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제주옹기는 제주전통가마인 굴(돌가마)에서 굽는다. 붉은 그릇이 구워져 나오는 굴은 노랑굴, 검은 그릇이 구워져 나오는 굴은 검은굴이라 하였다. 굴 축조에서 사용되는 돌은 제주의 것이며 제주의 돌과 흙과 배합이나 구조에 오차가 없어야 제대로 된 굴이다. 제주옹기는 노랑굴과 검은굴에서만 자기 본연의 빛깔과 문양을 드러내는 특이성이 있다.

넷째, 제주옹기는 토림판을 이용해 제작한다. 토림 작업이라고 하는 이 작업은 전라도 지역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제주의 흙과 제주의 전통 제작기법에 의해서만 제주전통옹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주 흙이 갖는 성질로 육지부와 다른 점이기도 하다. 육지의 흙은 그 성질이 물러 토림판으로 대항(큰항아리)을 만들 경우 한 번에 완성할 수 없다. 이는 흙의 성질이 무르기 때문에 중간과정에서 주저앉아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숟불로 말려가며 제작하거나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건조시켜나가면서 만든다. 제주의 찰흙은 그 성질이 탄탄하기에 토림판을 만들어 옹기를 제작한다. 토림판 작업은 제주 흙의 성질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옹기 성형법이라 할 수 있다.

2) 제주에서는 가마를 ‘굴’이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문용어로 가마라고 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굴’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3) 제주옹기 제작과정에 대해서는 오창윤(2013: 304-305)을 참조바람.

다섯째, 전통적인 제작방식과 전승과정이 온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이 변화되어왔는데 제주의 옹기제작 방식은 지역공동체 제작이기 때문에 질대장, 도공장, 불대장, 굴대장의 영역으로 나뉘어 협업방식으로 현재에 이르렀다. 본래 제주옹기는 척박한 대정읍지역에서 농한기에 자신이 사용할 옹기를 직접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발생되었고 수요가 많아지면서 다량 생산해야 했기에 전문 기능인들이 나오게 되어 지역의 재래공업으로 발전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⁴⁾.

지역의 생산물은 지역의 자연, 환경, 생활, 문화, 역사의 소산이다. 제주 옹기 또한 제주의 특성을 잘 구현한 제주의 역사와 문화의 반영인 셈이다. 제주옹기는 제주 풍토에서 자생하고 제주인의 생활 속에서 성장하고 융합해 제주의 일부가 된 것이다. 제주옹기는 섬으로서 제주의 시간과 노동, 화산흙, 불꽃의 문양, 섬의 바람, 제주자연의 색채를 담고 있고 제주문화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제주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생활용품이라는 점에서 민중의 실록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제주의 전통문화로서 제주옹기의 변화상을 중심으로 한 제주의 사회기술체계(socio-technical system)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제주옹기업의 성격 변화를 기술, 사회, 경제, 문화와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제주는 지질학적 특성상 강우량은 많지만 수량의 대부분이 용암층으로 스며들어 지하로 흐르다가 해안지대에 이르러 용천하기 때문에 제주에서 식수의 공급과 확보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수의 운반과 보관을 위한 용품으로 옹기가 발달하게 되지만 근대화 흐름 속에서 제주에서 전통옹기 생산은 퇴조하게 된다.

한국에서 옹기 제작은 전국적으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쇠퇴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옹기제조업이 아예 단절된 것은 아니며, 지역에 따라, 장인이 그 명맥을 유지해나가기도 했다. 특히, 1970년대 경북지역의 경우 옹기 흙을 가는 기계가 도입되어 옹기제작에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 옹기제조업은 근대형 산업으로 전환한 데 이어, 다시 현대사회의 속성에 맞게 변화하기도 했다(배영동, 2014: 33). 그러나

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염미경(2012)을 참조바람.

5) 사회기술체계란 기술적인 것은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과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기술, 사회, 경제를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Pfaffenberger, 1992: 496).

옹기생산과 유통이 지역 내에 국한되어있던 제주에는 제주 전역에서의 환금 작물 재배와 수요 감소, 그리고 옹기 흙과 땀감 조달 등의 문제로 퇴조의 길로 가게 된다.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제주에서의 옹기 제작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의 전통적인 것과 고유한 것이 경쟁력 있는 것으로 부각되면서 다시 전승·보존 움직임이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해 시작된 제주옹기의 전승·보존 움직임은 1990년대 후반 국내외 적 관심을 받게 되면서 소생 노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 제주옹기의 전승과 보존 움직임은 제주옹기의 조형성과 예술성, 특히 전통기술, 전통 가마(굴)의 구조와 축조방법 등이 중심을 이루었고, 주로 도예, 미학, 조형, 유적지의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제주옹기의 문화적 가치와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1대 기능인들과 옹기장수 등에 대한 관심도 커졌고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옹기에 대한 사회·문화사적 기초자료 수집이나 학술연구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제주옹기 제작과 전통가마(굴) 축조기술의 전승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제주옹기의 인문학적, 사회·문화사적 기초자료 수집과 연구도 함께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옹기가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받게 되면서 제주옹기의 전승체계가 갖추어지게 되고 최근에는 2대 기능인으로 세대교체가 되고 있다. 201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 제5회 ‘제주옹기굴제’는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와 1대·2대 무형문화재들이 주축이 되고, 제주도 행정당국이 지원해 치른 첫 제주옹기축제로서 의미가 있다.

이에, 그동안의 제주옹기의 복원·전승과정과 이것이 지역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 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 ‘제주도 옹기장’으로 지정된 1대 기능인들이 작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애와 생활을 지역사 차원에서 담아냄으로써 1대에서 2대 기능인으로의 세대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로서의 기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옹기가 제주인의 생활 속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제주인의 생활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

라 쇠퇴하다가 다시 지역문화로 소생하는 과정을 기술, 사회, 경제, 문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제주옹기의 복원·전승과정과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되는 과정을 ‘제주도 옹기장’을 비롯한 1대와 2대 기능인들, 그리고 이에 몸담아온 인물과 단체,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행정당국 등을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 보며, 제주옹기의 복원과 전승에 힘써온 1대와 2대 기능인들의 삶 이야기를 생활사로 담아내는 기초자료 수집작업⁶⁾도 병행한다. 또한 제주옹기의 문화유산화 과정에서 옹기축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할 때 제주옹기굴제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이 연구는 제주옹기의 전승과 보존 관련 자료의 생산과 축적뿐만 아니라 제주옹기의 전승과 보존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 설정과 관련 학술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2. 연구 목적과 내용

이 연구는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소멸되다시피 한 전통옹기의 복원과 전승, 특히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되는 과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제주옹기의 전승체계의 현주소를 담아냄으로써 제주인의 생활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전통옹기의 명맥을 유지하고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전승해나가는 것을 지원하며 관련 학술 연구를 촉발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제주전통옹기의 제작 전통이 사회경제체제와 맞물리면서 퇴조했다가 문화적으로 소생해 제주옹기문화로 자리매김해간 과정, 즉 제주옹기의 축제화와 문화유산화를 살펴본다. 즉 제주옹기업은 지역의 수요에 부응해 발생했고, 의식주에 관한 소비재가 주 생산품이었으며, 원료 및 자본과 노동 측면에서 향토성과 지역성이 강하다. 따라서 전통옹기 제

6) 이 연구는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으로 지정된 1대 기능인들과 2대 기능인, 전수교육조교로 지정된 1대 기능인들, 그 외 생존해 있는 1대 기능인들, 그리고 제주옹기를 생활 속 옹기로 위치시키고 예술로 승화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대표적인 인물의 삶 이야기를 영상/구술채록으로 담아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소장관리한다.

작 전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쇠퇴를 겪었는지, 다시 문화유산 또는 문화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 과정을 담아보고자 한다.

둘째, 제주옹기는 제주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생활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전통옹기 제작과 유통의 거점이자 전통옹기 전승과 보존의 거점인 대정읍과 한경면 지역 등 과거 제주 전통옹기 생산지의 전통옹기 전승과 보존활동을 살펴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주옹기는 지역의 수요에 부응해 발생했고, 의식주에 관한 소비재가 주 생산품이며, 따라서 원료와 자본과 노동 측면에서 향토성과 지역성이 강하다. 이처럼 제주옹기는 제주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주옹기는 지역민의 생활사를 보여준다. 이에, 이 연구는 제주옹기의 제작과 유통의 거점이자 전통옹기 전승·보존의 거점인 서귀포시 대정읍지역, 특히 구억리, 신평리, 무릉리와 제주시 한경면지역 조수2리 등 과거 제주옹기 제작 거점 마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셋째, 이 연구는 제주옹기가 ‘문화적으로’ 재생되어 ‘제주옹기문화’로서 자리매김 해나가는 과정, 즉 제주옹기의 축제화, 문화유산화 과정에 대해 주목하며, 제주전통옹기의 문화유산화 과정을 다루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열린 옹기축제 ‘제주옹기굴제’를 살펴본다. 염미경(2011, 2012)에 의하면, 2000년대 중반까지의 제주옹기의 복원과 전승 작업이 주로 제주 전통가마의 복원을 통해 전통옹기를 재현하고 그 가치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면,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전통옹기가 지역의 문화적 자산으로 부각되면서 이의 문화·관광상품화에 초점이 두어진다. 염미경의 연구(2012)가 지역문화사·생활사적 관점에서 제주옹기에 접근한 시발적 연구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미경의 연구들(2011, 2012)은 2000년대 중반에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2011년 제주옹기의 전승체계가 1인 ‘제주도 허벅장’에서 4인 ‘제주도 옹기장’ 체제로의 변화 초기와 제1회 제주옹기굴제까지만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후의 전승·보존활동과 문화유산화 과정을 보여주지 못한다. 실제로 2010년 11월 서귀포시 대정읍지역 구억분교 터에 민간단체인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가 주축이 되어 제주옹기박물관이 처음 들어서면서, 이어서 2011년 제주도 행정당국이 제주도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옹기 기술 보유자를 세분화를 수용하고 무형문화재 지정방식을 바

꾸면서 ‘허벅장’ 1인 무형문화재 체제에서 ‘제주도 옹기장’(굴대장, 도공장 2인, 불대장, 질대장) 체제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2011년은 제주옹기 전승·보존활동이 협업체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원년이 된다. 이렇게 하여 제주옹기의 전승·보존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지만 이에 대한 자료수집 노력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의 제주옹기의 복원과 전승과정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제주옹기의 전승·보존체제가 1대 기능인에서 2대 기능인으로 교체되고 있고, 기록자료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제주옹기에 대한 기록화작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서둘러 제주사람들의 생활 속 깊이 자리 잡았던 제주문화의 원형으로서 제주옹기 전반에 대한 기록자료를 수집, 정리해나감으로써 제주옹기의 전승·보존 노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학술적, 정책적, 그리고 교육적 지원방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 연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정책을 살펴보고 타 지역 전통옹기 전승체계 사례를 경기도 오부자옹기와 울산 외고산옹기마을의 전승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제주전통옹기 전승체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모색해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제주옹기의 전통을 전승·보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지역 문화재로 지정받는 것이다. 제주옹기는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8월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허벅장’이라는 명칭으로 1대 기능인 신창현씨 1인을 통한 전승·보전체계를 갖춘다. 이후 제주옹기의 제작과정이 협업체제인 점이 인정되어 2011년 9월부터는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으로 명칭 변경되게 되어 굴대장, 도공장, 질대장, 불대장 체제를 갖춘 후 4인(1대 부창래, 신창현, 이윤옥, 2대 김정근 씨)이 지정되어 현재에 이른다.

제주옹기는 지역에서 자가 수요를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다가 수요가 많아지면서 재래공업으로 성장했고, 수요 감소와 새로운 산업에 밀려 쇠퇴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기록 자료가 많지 않다. 타 지역에서 이러한 재래공업의 기능 전승은 대체로 가게 전승이라는 특징을 지니는 데 반해, 제주옹기업은 마을의 굴계를 중심으로 한 협업으로 이루어지다보니 1대 기능인들이 연로해 작고하는 상황에서 전승·보존 또한 쉽지 않다. 무엇

보다도 먼저 전통옹기의 전승·보존을 위해서는 제주옹기 제작에 참여한 1대 기능인들의 당시 생활과 일, 그리고 최근의 전승·보존활동에 대한 자료 수집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기본 문제의식 하에서 출발하였으며, 향후 학술적·정책적·교육적 연구의 활성화를 촉발시키기 위한 토대연구로서 의미를 지닌다.

1대 제주옹기 기능인들이 고령으로 작고하는 상황에서 염미경(2012)은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수집사업의 하나로 2000년대 중·후반 시점에서 1대 제주옹기 기능인들의 삶 이야기를 영상/구술채록으로 담아낸 바 있다⁷⁾. 그러나 1대 기능인들이 작고하면서 그 뒤를 이어 1대 부창래, 2대 김정근 씨가 제주도 옹기장으로 선정되어 제주옹기 전승체계에서 세대교체를 예고하고 있다. 즉 제주옹기의 전승체계는 2001년부터 시작된 ‘제주도 허벅장’ 1인 체제에서 협업이 인정되어 2011년부터 ‘제주도 옹기장’ 4인 체제로 변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1대 기능인들 다수가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기능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로 지정되었다. 구술자의 구술에는 구술자의 위치와 구술의 맥락, 즉 사회·정치·경제·문화적 상황 등이 반영된다. 제주옹기의 전승·보존에서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대 중·후반과 정부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된 2010년 이후 상황은 다르다. 따라서 생존 1대와 2대 제주도 옹기장과 무형문화재는 아니지만 전수교육조교로서 제주옹기 전승활동을 해오고 있는 1대 기능인들, 그리고 제주옹기 전승·보존 활동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주옹기업에 몸담았던 1대 기능인들의 삶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제주지역사 자료원을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전개된 제주옹기의 제작, 복원 및 전승 및 문화유산화 과정을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통옹기의 전통기술 및 조형성과 예술성 중심의 전승·보존과정, 전통옹기 가마(굴)의 구조와 축조방법 중심의 전승·보존과정, 전통옹기에 대한 인문학적 전승과 제주도 옹기장의 생활사를 통한 전승·보존과정, 그리고 전통옹기의 축제화·

7) 이 내용의 일부는 염미경(2012)에 수록되었는데, 2011년 제주도 무형문화재 14호로 지정되어 전수활동을 하다가 작고한 고신길, 고원수, 강신원 제주도 옹기장과 신창현, 이윤옥 제주도 옹기장과 전수교육조교 고달순, 백도현, 이진강(작고), 그 외 1대 기능인 박근호, 김성균, 그리고 옹기장수 고경순(작고), 홍영현 씨가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염미경(2012)을 참조바람.

문화유산화를 통한 전승·보존과정이 그것이다. 이 연구는 전통옹기의 축제화와 문화유산화를 통한 전승과 보존과정을 중심으로 하되 제주옹기의 생활사 관련 기초자료 수집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제주옹기의 전승과 보존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다루면서 이 과정에 참여해온 인물과 관련 단체들에 대한 자료도 정리해나간다. 제주도 옹기장 기능보유자 4인(부창래, 신창현, 이윤옥, 김정근)과 전수교육조교 등 제주옹기의 전승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관계자들에 대한 영상·구술자료와 심층면접자료를 수집하는데, 특히 1대 기능인들에 대한 영상·구술자료 수집이 중심이다. 이와 함께 제주옹기의 문화유산화 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2011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열리는 ‘제주옹기축제’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데, 이를 위해 타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인 오부자옹기와 외고산옹기마을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이 연구는 지역문화유산으로서 제주옹기의 전승과정을 체계적으로 풀어내어 제주옹기가 지역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의 기대효과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제주의 전통옹기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 연구 작업은 제주학 기초자료는 물론 제주의 지역사와 생활사 자료의 수집과 축적에 기여하는 셈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제주의 환경적 조건과 생활에 밀착해 제주인과 함께 해온 제주옹기가 제주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되는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줌으로써 제주옹기에 대한 인문학적·사회문화사적 연구의 활성화와 이론화, 그리고 제주옹기에 전승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지역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제주옹기에 대한 기록 자료를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둔 이 연구를 통해 제주옹기

가 제주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옹기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가치와 특징을 담아냄으로써 지역민의 애향심 고취와 지역정체성 형성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제주옹기 기능인들에 대한 영상·구술자료 수집을 포함한다. 즉 제주옹기의 전승과 보존과정에 참여해오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제주옹기에 대한 생활문화사적 접근을 시도하는데, 이를 통해 지역민의 생활사 자료의 축적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1대 기능인들이 고령으로 작고하는 현 시점에서 이들의 기억과 경험을 기록하고 자료화하는 것은 제주학 자료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급한 작업이다.

이 연구를 통해 제주옹기문화의 발전과 체계화, 학술적 연구와 지원정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해 제주옹기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제주인의 생활과 문화를 계승하고 제주 전통문화의 전승과 보존 노력을 해오고 있는 인물들의 삶에 대한 이해는 물론 제주문화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옹기의 제작기술은 경제, 문화, 사회가 한 덩어리로 융합된 산물이다. 이 연구를 통해 제주옹기의 전승과 보존도 이러한 융합의 산물임을, 즉 제주옹기의 전승과 보존에 참여해온 1·2대 기능보유자와 기능인들, 전승과 보존을 위한 가교를 설계하고 이끌어온 인물들,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민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될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수집된 1대와 2대 제주옹기 기능보유자와 1대 기능인들과 도예가의 삶에 대한 영상·구술자료는 지역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자료, 초·중등 지역교과서와 사회과의 지역정체성 교육자료, 그리고 제주옹기에 대한 생생한 자료로서 박물관 전시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검토

제주옹기와 제주옹기업에 관한 문헌자료로는 우낙기의 연구(1965)와 이즈미 세이치(泉靖一, 1966)의 연구가 있는데, 우낙기의 연구(1965)는 제주옹기의 대표 격인 식수 운반용 물항아리인 허벅의 주산지로 제주도 대정읍 구억리 일대가 소개되어 있으며, 이즈미 세이치(泉靖一, 1966)는 제주지역 답사보고서에서 제주옹기를 소개하였고, 한국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1971)도 옹기제작도와 제주옹기 제작과정을 다루고 있다.

제주옹기에 대한 학론적 연구는 1980년대 들어와 이루어지는데, 제주옹기의 역사와 생산기법, 문양과 조형성, 그리고 가마의 구조와 지역적 특성에 가치를 부여해 제주옹기를 재발견하고 이를 알리거나 예술, 미학, 조형, 유적지의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는 옹기의 역사, 생산기법, 문양, 옹기공방의 현황, 가마의 구조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주옹기의 발생과정과 생산기법(양재심, 1987; 이동희, 1984; 이종창, 1996; 안정숙, 1989), 유통 및 지역별 특성(김경자, 1998), 문양(김영문, 1979) 등에 대한 연구들은 제주옹기의 형태를 살펴보고 현재적 시점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는 옹기의 형태를 종류별로 비교해 옹기의 조형성과 그 가치를 밝히고 있다.

김은석(1990)과 이경효(1998)는 제주도 가마의 명칭, 구조, 축조방법, 현존 가마의 현황과 위치를 현지답사와 실측에 기반해 정리하였으며, 김미영(1983)은 허벅의 발생배경과 형태 및 장식을 분석해 전통기술을 전승하고 이를 관광 상품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외에, 제주옹기의 생산방식 복원에 주력해 그것의 보존과 계승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대표적인 연구로 강창언(1997, 2002, 2004, 2006a, 2006b)과 강창언·이경효(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다(염미경, 2012: 22-24).

오창윤(2010a, 2010b)은 제주 돌가마 구조와 축조방법, 옹기제작기술을 1대 기능보유자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담아내고 관광자원으로서 제주옹기의 가치를 알리고자 하였으며, 제주옹기문화연구회(2011)도 제주 돌가마 축조와 특징 및 돌가마의 소성, 허벅의 장식 등에서의 특징, 그리고 제주의 도자(陶器)문화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묶어냈다.

다음으로 제주옹기생산지 사회에 주목해 제주옹기의 지역성을 구명하고자 한 연구와 제주옹기 가마(굴)의 구조와 연원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가 있다. 먼저 제주의 환경에서 어떤 주체들에 의해 옹기가 생산되어 유통되었는지에 관심을 둔 주목할 만한 연구로 오영심의 연구(2002)가 있다. 제주옹기의 사회적 배경이나 생활환경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 오영심의 연구(2002)는 과거 옹기생산지였던 대정읍 구억리를 연구대상으로 해 제주옹기의 생산 환경과 생산 및 유통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제주옹기 생산의 지역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주옹기 가마(굴)의 구조와 연원을 인문학적 측면에서 살핀 연구(김정선, 2010)가 있다.

제주옹기 제작의 지역성에 주목하면서 제주옹기의 전승·보존을 둘러싼 행위주체들의 활동과 이해갈등 양상에 주목해 제주옹기의 복원에 참여했던 민간단체와 제주옹기 제작에 몸담았던 1대 기능인들 및 행정당국 간 네트워크 형성을 다룬 연구로 염미경의 연구(2011)가 있다. 나아가 염미경(2012)은 초기 제주옹기의 복원과정에 참여한 민간단체들의 복원활동과 그 양상, 그리고 과거 제주옹기업에 몸담았던 1대 기능인들의 삶을 담아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염미경의 연구(2011, 2012)는 2011년 제1회 제주옹기굴제까지를 다루고 있으므로 연구대상과 범위에서 최근의 상황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데 한계가 있다.

주요 선행 연구들의 연구목적과 방법,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제주옹기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들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제주도 허벅에 관한 연구(김미영, 1983,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 제주 허벅의 형태와 장식에 주목해 전통기술의 전승 필요성 제안	문헌연구방법	산업미술/산업공예 요업(窯業) 디자인 분야의 연구로, 제주 허벅의 발생요인과 허벅의 형태 및 장식 등 조형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
	2 〈과제명: 제주도 옹기에 관한 연구: 조형성을 중심으로(양재심, 1987,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제주옹기의 조형성에 주목해 옹기형태 분석함으로써 옹기의 조형성과 그 가치를 밝히고자 함.	문헌연구방법	산업미술/요업공예 도자기 분야 연구로, 제주옹기의 형태를 종류별로 비교해 옹기의 조형성과 그 가치-예술적 특성보다 민예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에 대해 정리한 연구
	3 〈과제명: 제주도 옹기가마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고찰(김은석, 1991, 제주교육대학논문집, 제주도청 지원)〉 ■ 제주 가마의 분포상황 및 특징과 구조를 밝히기 위한 기초조사	1. 문헌연구방법 2. 현지조사(답사)	제주도 한림과 대정지역 일대의 가마의 분포상황 및 특징과 구조에 대한 기초조사로서 제주 옹기가마의 형태와 구조를 개관
	4 〈과제명: 제주도 전래가마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을 위한(이경효, 1998,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 제주가마 축조의 특성과 구조 및 그 기술, 현존가마의 현황과 위치 등을 파악함으로써 관광자원화 방안의 필요성 제기	1. 문헌연구방법: 제주 가마의 발생배경 등 2. 현지조사(답사): 대정과 한경지역 중심의 현존가마 현황과 위치 파악과 실측 조사	산업공예학과 도자기 분야 연구로, 제주 돌가마의 발생배경과 가마 축조의 특성과 구조, 가마축조 기술 등을 다룬 연구이며, 현존 가마의 현황과 특성, 위치 등을 조사하고 실측 시도하고 있음.
	5 〈과제명: 제주 전통도예(강창언·이경효, 2000, 가시아히 출판사)〉 ■ 제주옹기의 기술적 재현을 시도하고 기술 전승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제기	1. 문헌연구방법 2. 1대 옹기장인들과의 심층인터뷰조사방법	전통도예라는 관점에서 제주 옹기의 기술적 재현 등을 연구한 것으로 현존 가마의 현황, 위치를 현지답사, 실측으로 정리
	6 〈과제명: 제주도 전통사회의 옹기생산과 유통에 관한 연구: 대정읍 구역리를 중심으로(오영심, 2002,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 제주옹기의 지역성에 초점을 맞춰 한 옹기마을을 중심으로 옹기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밝히고자 함.	1. 문헌연구방법 2. 옹기장인 및 옹기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할 경험 있는 옹기마을(구역리) 주민들과 심층인터뷰방법	제주의 환경에서 어떤 주체들에 의해 옹기가 생산되어 유통되었는지를 대표적인 옹기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정읍 구역리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옹기의 지역성을 밝히고자 한 연구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7 <p><과제명: 제주의 옹기(강창언, 2006, 제주도돌문화공원)> ■ 제주옹기의 조형적 재현과 그것의 예술적 가치를 알리고 복원과 전승 필요성을 제기</p>	문헌연구방법	제주옹기의 생산기법, 문양과 조형성, 가마의 지역성에 가치를 두고 제주옹기의 조형적 재현을 시도한 연구, 전통옹기의 조형적 복원과 전승 필요성 제기-도록집
	8 <p><과제명: 제주도 옹기가마의 구조와 연원(김정선, 2010, 탐라문화, 37호, pp.353-393)> ■ 인문학적 관점에서 제주 옹기가마의 구조와 연원 밝힘.</p>	1. 문헌연구방법 2. 현지조사(답사)	제주 옹기가마의 구조와 연원을 다룬 인문학적 연구
	9 <p><과제명: 제주옹기에 관한 연구: 제주 돌가마 축조와 옹기관광 제품생산을 중심으로(오창윤, 2010,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 단행본화 (제주문화 제주옹기, 2010, 솔과학 출판사) ■ 제주 돌가마 구조와 축조방법, 옹기제작기술을 1대 옹기장인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담아내고 관광제품으로서 제주옹기의 가치를 알리고자 하였음.</p>	1. 문헌연구방법 2. 현지조사(답사) 및 심층인터뷰방법)	옹기 장인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제주 돌가마의 구조와 축조방법을 대해 상세히 제시하고 있고 제주옹기의 관광제품으로서의 가치를 논의하고 있는 학술적 연구
	10 <p><과제명: 제주옹기의 문화유산 만들기과정과 이해갈등(염미경, 2011, 지역사회학, 12(1), pp.265-293)> ■ 제주옹기의 복원과 전승 작업에 참여해온 1대 옹기장인들을 비롯한 주요 집단들 간의 이해갈등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제주옹기 문화적 재현과정의 정치를 분석하고자 함.</p>	1. 문헌연구방법 2. 대정지역 현지조사와 제주옹기의 복원 작업에 참여해오고 있는 1대 옹기장인들과 주요 집단들 및 행정당국 관계자들과의 심층면접	제주옹기의 복원과 전승 작업에 참여해온 주요 집단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주옹기의 복원과정을 주도했고 이 과정을 둘러싼 이해갈등을 다룬 사회과학적 연구
	11 <p><과제명: 제주옹기와 사람들: 소멸과 재현의 지역사(염미경, 2012), 도서출판 선인> ■ 제주옹기의 복원과 전승과정을 ‘제주옹기의 생애사’의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책으로, 제주의 재래공업으로서 제주옹기가 소멸하고 ‘제주옹기문화’로 재생하는 과정을 제주옹기의 복원과 전승을 위해 노력해온 1대 기능인들의 삶 이야기를 중심으로 담아내고자 함.</p>	1. 문헌연구방법 2. 대정지역에 대한 현지조사와 심층인터뷰방법에 기반한 구술사적 접근(생존한 1대 제주도 옹기장과 옹기장수에 대한 영상자료 및 구술자료 수집방법, 전통옹기 복원과 전승 노력을 해온 23대 전수자들)	제주의 전통 산업으로서 제주옹기업이 ‘제주옹기문화’로 소생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2011년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주도 옹기장으로 인정받기 이전에, 전통옹기 제작과 판매에 몸담았던 생존 1대 옹기장인과 옹기장수의 삶 이야기를 영상채록과 구술자료를 수록해 제주옹기의 복원과 전승과정을 다룬 인문학적 학술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의 제주옹기 관련 연구들은 크게 제주옹기의 전통기술 및 조형성과 예술성 중심의 복원 관련 연구, 전통옹기가마의 구조와 축조방법 중심의 복원 관련 연구, 전통옹기에 대한 인문학적 전승과 제주도 옹기장의 생활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1년 말까지를 연구범위로 한 연구(염미경, 2012)가 제주옹기에 대한 인문학적·사회문화사적 연구로는 최근 것이다.

현재 제주옹기는 그 기술적 전승보존 활동을 보여주는 장으로는 제주도 무형문화재 시연 중심의 탐라문화제와 제주옹기 1대와 2대 기능인들 및 관광객과 지역민이 즐기고 체험하는 장으로서 2011년부터 매년 열리는 ‘제주옹기굴제’가 있다.

2011년 이후 제주옹기의 전승은 기능 전수가 주를 이루는데, 이것의 계승은 기능보유자-전수교육조교-전수장학생 체계로 이루어지며, 1대 기능인 중심에서 2대로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수장학생들이 3대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담아내고 1인 제주도 허벅장 전승에서 분야별 전승을 인정한 제주도 옹기장 전승체계로의 변화와 제주옹기가 제주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되는 과정을 담아내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과거 제주옹기 생산지이자 마을 수준의 제주옹기 전승·보존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정읍 구억리, 2000년대 이후 제주옹기 전승·보존활동의 중심인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와 제주옹기박물관이 있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주옹기굴제 개최지이기도 한 대정읍 무릉리와 제주에서 가장 늦게까지 제주옹기를 제작했던 한경면 조수2리에 대한 것까지를 포함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룸으로써 제주옹기가 지역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되는 전 과정을 기록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과 방법

1) 연구 대상과 범위

이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은 2015년 6월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제주의 문화유산으로서 제주옹기의 복원

과 전승 및 문화유산화 과정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대상은 과거 제주옹기업에 종사하고 제주옹기의 문화적 가치가 조명되면서 제주옹기의 복원 및 보존·전승활동에 참여해오고 있는 무형문화재 1대와 2대 기능보유자들과 1대 전수교육조교, 제주옹기 전승의 또 다른 길인 제주옹기의 생활옹기로 또는 예술로의 승화를 주도한 도예가, 제주옹기 전승활동은 해오지는 않지만 제주에서 가장 늦게까지 제주옹기 생산에 몸담았던 1대 기능인들, 그리고 그 외 제주옹기의 전승·보존 관련 활동을 해오고 있는 관계자와 이를 지원하고 있는 행정 관계자들이다. 이외에 제주옹기를 연구해오고 있는 전문가들도 이 연구의 대상자 범위에 포함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제주옹기를 인간(people)과 장소(places) 및 조직(organizations)의 배열 측면에서 접근하며,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1) 문헌연구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이 연구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기 위해 각종 국내외 문헌과 정기간행물, 단행본, 연구기관의 연구자료, 인터넷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이때 제주옹기의 문화산업화를 시도해왔고 2010년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를 개최하기도 한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4호 ‘외고산옹기’사례와 2012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보유자로 선정된 경기도 ‘오부자옹기’사례 등 타 지역의 전승·보존체계와 관련 연구들도 제주옹기 연구에서 비교 준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일정한 시사점을 주었다. 외고산옹기와 오부자옹기의 전승과보존체계는 이 연구의 대상이기도 하다.

(2) 심층면접조사와 구술자료 수집

① 심층면접조사

심층면접조사는 과거 제주옹기생산지(대정읍 구억리)에서 제주옹기 전승 노력을 해오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다. 특히, 구억리는 제주옹기 기능보유자 2인을 배출한 지역으로, 지역 단위에서 제주옹기 체험관과 전수관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지역 관계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수집하였다. 또한 제주옹기 복원·전승활동을 해온 관계자들과 이를 관리하고 지원해온 행정당국 관계자도 이 연구의 심층면접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제주옹기의 초기 복원노력⁸⁾을 해온 민간단체의 최근 활동도 담아내고자 하였으나 이 민간단체 관계자의 사정으로 최근 활동은 담아내지 못했고 이 연구에는 과거 수집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010년 전후부터는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⁹⁾를 중심으로 전승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2010년 전후부터 현재까지의 전승·보존활동은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관계자들과의 심층면접조사를 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타 지역의 전통옹기 전승 사례인 오부자옹기와 외고산옹기마을의 경우도 문헌자료 이외에 관계자들과의 전화면접조사를 해 문헌자료를 보완하였다.

② 생애사 구술자료 수집

1대와 2대 제주옹기 기능보유자와 1대 기능인들과의 심층면접에 의한 생애사자료 수집은 과거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 수집작업 당시 형성된 1대 기능보유자와 기능인들과 2대 기능보유자와 기능인들과의 친밀 관계 하에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에 의한 생애사자료 영상/구술채록은 주로 1대·2대 기능보유자

8) 1990년대 후반 이후 민간차원에서 시작된 제주옹기의 복원노력으로 제주전통옹기가마가 복원되고 2000년 대정읍 영락리에 '제주도예촌(2000년 당시 제주도예원)'이 문을 열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한 복원노력은 국사편찬위원회에 구술자료(2008년도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수집사업)로 보관·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 이후 제주옹기 전승·보존활동의 중심은 2008년 설립된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이다. 따라서 최근의 제주옹기 전승·보존활동을 담아내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9) 2008년 6월 20일 설립된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는 제주옹기박물관장으로 있는 2대 기능인 허씨(제주도 옹기장 전수교육조교)가 대표를 맡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과 1대 기능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심층면접조사와 생애사자료 수집 대상은 과거 제주옹기업에 종사한 1대 기능인들과 제주옹기 복원과정에 참여하면서 1대 기능보유자로 선정되어 전승활동을 해오고 있는 1대와 2대 기능보유자, 그리고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중심의 제주옹기의 복원과 전승활동은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제주옹기업에 종사했던 1대 기능인들이다. 그리고 제주옹기의 또 다른 복원을 목표로 해 제주옹기를 생활 속에서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해온 도예가도 생애사자료 영상채록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과거 제주옹기업에 종사했고 제주옹기의 문화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제주옹기의 복원과정에 참여해왔던 1대 기능인들의 삶을, 그들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로부터 녹취한 영상(구술)자료는 제주옹기에 대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생생한 기초자료로서 그 의미가 클 것으로 보며, 제주옹기의 복원과 전승과정에 몸담아온 이들이 하나둘 돌아가시고 있고 고령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구술자료 수집의 의의와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종보고서와 별도로 1대와 2대 기능보유자와 1대 기능인들의 삶이야기를 각각의 영상자료와 녹음자료, 그리고 녹취문을 별도로 묶어서 제출한다(<부록> 참조). 구술자별로 관련 사진과 이름, 주요 사항, 그리고 그들이 구술한 삶이야기 순으로 서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심층면접 틀에 따라 수집한 구술내용을 원형 그대로 수록하였다. 이것은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의 기초자료로 보관·관리·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대와 2대 기능보유자와 기능인들이 그들의 언어로 한 그들의 삶이야기를 담아낸다는 것은 제주옹기업 종사자들의 구술을 통해 근대화과정에서 소멸되다시피 한 제주의 재래공업인 옹기공업의 지역적 전개과정을 담아냄과 동시에, 과거옹기생산지사회¹⁰⁾의 생활문화사를 재구성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1와 2대 기능보유자와 기능인들에 대한 구술자료 수집작업

10) 과거 옹기생산지는 제주 서부지역, 특히 대정읍과 한경면이 옹기생산지였는데, 구체적으로 대정읍 신평, 구억, 무릉2리 등이다. 이 지역들은 한때 마을주민 대다수가 옹기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고 이 지역에서 생산된 옹기는 제주의 거의 모든 지역으로 유통·판매되었다.

의 의의를 정리하면, 먼저 이 작업은 아직 생존해있는 제주옹기업 종사자들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제주의 재래공업으로서 옹기공업사와 기술사를 정리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제주도에서 제주옹기를 재래공업으로 자리매김해 제주옹기의 형태와 제작방식의 고유성과 조형성 혹은 예술적 가치를 넘어서 지역의 향토사와 기술사, 그리고 기능인들의 생활문화사와 옹기제작기술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지방사 혹은 지역생활문화사 자료를 축적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제1대 기능보유자와 기능인들은 거의 고령이 되어버렸고, 제주옹기의 제작과정 등에 대해 증언해 줄 이들이 나이가 들어 하나둘 돌아가시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 생존해 있는 1대 기능보유자와 기능인들의 구술자료 수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과거 제주옹기의 생산에 종사했던 1대 기능인들이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한 구술자료는 제주옹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생생한 자료가 된다.

제주옹기 제작은 철저한 공동 작업이다. 소위 리더로서 옹기와 관련된 모든 일을 관장하는 굴대장, 옹기를 만드는 대장(옹기대장 또는 도공장), 불을 다루는 불대장, 섬피라 불리는 뿔감과 찰흙을 다루는 질대장(건애장)으로 나누어 역할에 맡아 옹기 제작과정을 진행하며 완성된 옹기는 옹기판매를 담당한 통개장수(옹기장수)를 통해 제주 전역에 보급되었다. 과거 제주옹기는 분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었고 옹기만 만드는 전문 옹기대장도 있었으나 부업으로 옹기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구성원 전체가 옹기에 매달리다보니 옹기대장이 질대장일까지 겸하고 불대장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1세대 기능보유자와 기능인들과의 심층면접결과 종합).

이 연구의 심층면접에 의한 생애사자료 수집 대상으로 선정된 1대·2대 기능보유자와 1대 기능인들을 정리하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심층면접에 의한 생애사자료 수집 대상자¹¹⁾

구술자명	주요 사항	비고
김씨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거주;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굴대장)	2대
부씨	제주시 한경면 거주;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도공장)	1대
신씨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거주; 제주도 무형문화재 14호 제주도 옹기장(도공장)	2001년 8월 26일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허벅장; 2011년 9월 27일 제주도 옹기장 (도공장)으로 재지정
이씨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거주;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질대장)	1대
고씨 1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거주; 불대장(전수교육조교)	1대
박씨	서귀포시 한경면 조수2리 거주; 도공장	1대
강씨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거주; 도공장	1대
고씨 2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거주; 불대장	1대
허씨	제주시 아라동 거주; 도예가	제주옹기를 생활옹기, 도예문화로 승화시키는 노력
백씨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거주; 도공장(전수교육조교)	1대; 병가로 조사 불가

* 구술자들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까지 면접조사 하였고 영상촬영과 녹취를 병행하였음.

** 수집한 자료는 영상·구술 파일과 녹취자료집 형태로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 연구센터에서 소장·관리함.

2011년 들어 제주는 제주 옹기장 보유자를 기존 1인 체제(제주도 허벅장), 즉 제주옹기 제작과정 중 도공 분야만을 ‘허벅장’으로 지정해¹²⁾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로 전승해온 체계를 2011년 들어 개선하였다. 과거 ‘허벅장’ 명칭을 ‘옹기장’으로 명칭 변경해 전승분야를 도공 분야만이 아니라 제주옹기 제작과정 전체로 확대해 굴대장, 질대장, 도공장, 불대장 4개 분야 협업체제임을 인정해 각 분야 기능보유자를 선정하였다.

11) 이 연구의 심층면접 및 생애사자료 수집대상자인 1대와 2대 기능보유자와 1대 기능인들, 그리고 도예가는 부득이하게 밝혀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처리하였음을 밝힌다.

12) 2011년 9월 27일 이전까지는 신 씨만이 허벅장이라는 명칭 하에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 기능보유자로서 예우를 받아왔었으나 2011년 9월 27일 이후부터는 제주도 옹기장으로서 굴대장, 도공장, 불대장, 질대장 체제로 바뀌게 된다.

(3) 현지조사

유약을 칠하지 않아 질박한 색감을 띤 제주옹기는 제주의 자연과 삶 그 자체이다. 특히, 대정읍지역은 제주옹기의 집산지다. 제주는 화산섬이라 돌 많고 땅이 거칠지만 대정읍 신평리 주변에서는 찰진 흙이 있고 가마 자리와 땀감 구하기는 구덕리가 제일이었다(심충면접결과 종합).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정읍지역이 제주옹기 집산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주옹기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생활사를 구성해보고자 했고, 이를 위해 1대·2대 기능인들에 대한 삶 이야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제주옹기업의 역사와 옹기제작기술사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지역민의 생활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되기 때문이다.

(4) 전문가 의견 수렴

이 연구는 최종 보고서 제출 이전에 자문회의를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3. 연구과정

제주옹기 관련 문헌 수집과 검토·분석을 통해 제주옹기의 복원과 전승·보존 및 문화유산화 과정과 관련된 논의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제주옹기의 복원과 전승·보존에 참여해온 2대 기능인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서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제주옹기 전승·보존체계를 개략적으로 파악하였고, 이 연구의 분석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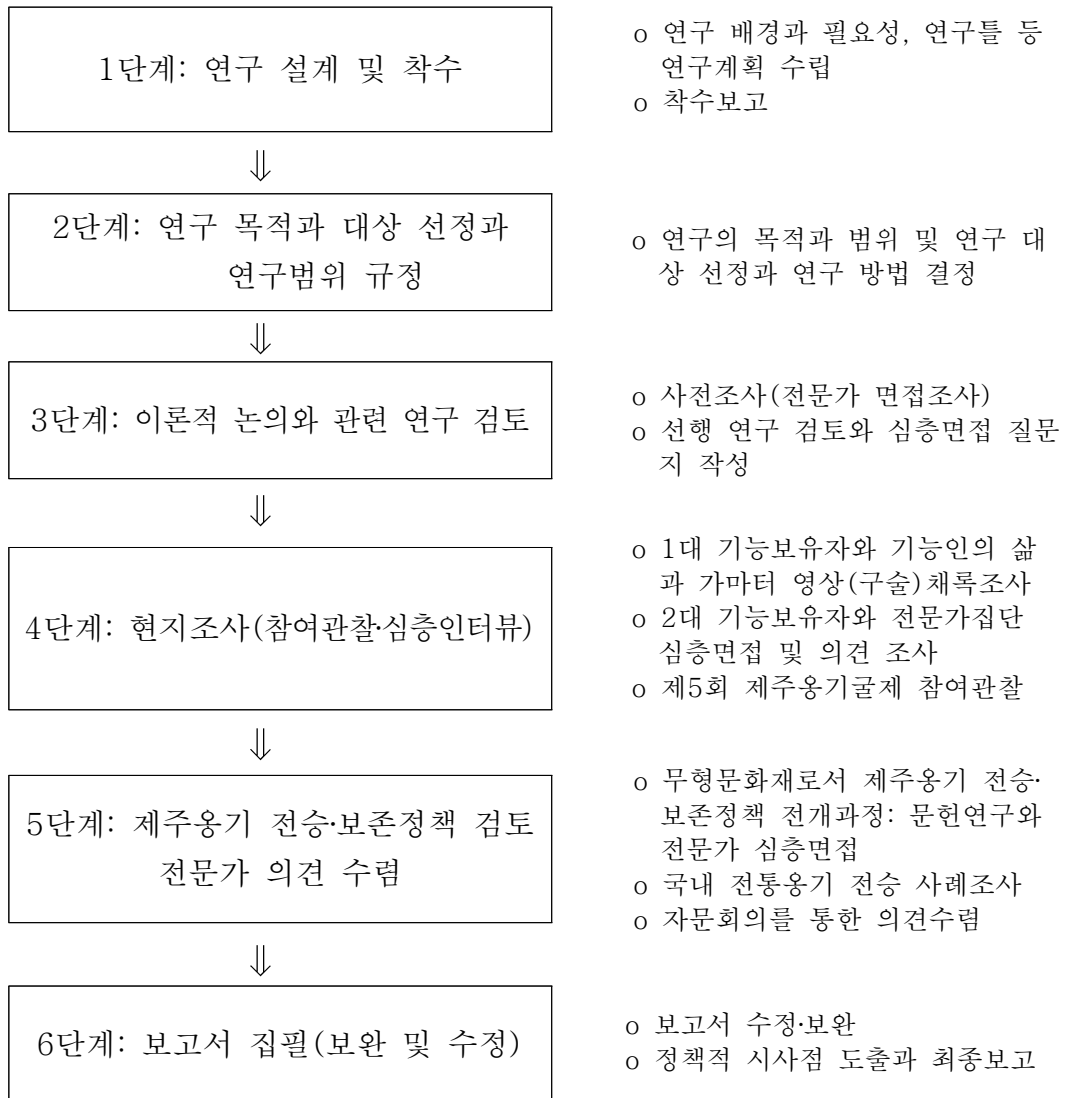
제주옹기 1대 기능보유자들과 기능인들, 그리고 2대 기능보유자와 마을 단위, 즉 대정읍 구덕리 주민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지역(대정읍과 한경면)에서 제주옹기업의 발생과 쇠퇴 및 소생과정에 대한 자료¹³⁾를 수집하고, 대정읍과 한경면의 현존 가마와 가마터 현장답사를 하였다. 특히, 대정읍 구덕리의 전통옹기전수관을 중심으로 한 전수활동을 정리하고 지역 관계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구덕리의 제주옹기 전승·보존 움직임에 대한 자료를

13) 수집된 1대·2대 기능보유자와 1대 기능인들의 생애이야기 구술자료의 녹취문을 작성하고 일정한 서식을 갖춰 개인별로 정리해 묶었다.

수집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매년 열린 제주옹기굴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2015년 제5회 제주옹기굴제의 경우 전 일정을 참여관찰 하면서 영상/구술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연구체계와 목차에 따라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제주옹기가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제주의 문화유산으로서 안정된 제주옹기의 전승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II-1〉 연구수행 절차

III. 제주전통옹기의 복원과 전승활동

1. 제주전통옹기 관련 주요 문화유적

가마(굴)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제주전통옹기관련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노랑굴과 검은굴은 4기가 있다. 모두 타 지역의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경사면을 이용하여 축조된 가마이다. 노랑굴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노랑굴에서 생산되는 기물의 색깔은 노란색 혹은 붉은색 계열, 즉 산화 환경에서 번조된 기물을 생산하는 가마임을 알 수 있다. 산화염과 환원염의 차이는 산소 공급량으로 구분되는데 산화염의 경우는 가마 내부의 산소 소모량보다 산소가 많은 상태로, 여분의 산소가 태토 안에 있는 철분과 결합하여 산화제이철(Fe_2O_3)로 되어 그릇은 붉은색 계열이 된다(김원룡, 1990: 205; 김정선, 2010: 375; 염미경, 2012)¹⁴).

검은굴은 현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1기 남아있다. 검은굴이라는 검은색 계열의 기물을 생산했던 가마를 일컫는 명칭이다. 기물의 색이 검은색 계열, 즉 환원환경에서 운영되었던 가마임을 추정할 수 있다. 검은굴은 노랑굴에 비해 크기가 작고 내부에 별다른 시설이 없는 매우 단순한 구조를 띠고 있으며, 가마 벽체는 노랑굴과 마찬가지로 현무암으로 수직에 가깝게 쌓았으며 천장부분은 아치형으로 축조하였다. 제주도의 옹기가마는 가마에서 소성된 기물(器物)의 빛깔에 따라 노랑굴(또는 황굴, 붉은굴)과 검은굴로 불리워지고 있다(김은석, 1991: 24)¹⁵. 현재 제주 옹기가마 축조술과 옹기 제작술은 제주만의 모습으로 정착되어 왔고¹⁶, 타 지역과는 다른 외형으로 인해 세계 유일의 돌가마로 알려져 있다.

14) 제주도 옹기가마의 축조방식의 특징에 대해서는 김은석(1990)과 김정선(2010)을 참조바람.

15) 타 지역의 경우 형태에 의해 용(龍)가마(또는 대포가마, 뽕불통가마), 쟁가마(또는 노부리가마, 칸가마, 봉우리가마), 조대불통가마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중식(1983: 24-27)을 참조바람.

16) 물론 현재의 이러한 모습이 제주도의 초창기 옹기생산 당시와 동일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정선(2010)을 참조바람.

현재 제주 용기가마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가마는 모두 7기 가량 남아있다. 이들 가마의 최초 운영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략적으로 1940년대 후반의 4.3사건을 거치고 식생활의 변화와 도시화,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의 영향 등으로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대부분 폐요(廢窯)되고(김정선, 2010: 374), 제주시 한경면 조수2리(이하 조수2리)만이 1970년대 말까지 운영되었다(<사진 9> 참조; 구억리 출신으로 조수2리에서 가장 늦게까지 용기작업을 했던 1대 기능인 박씨와의 심층면접결과).

현재 제주전통용기관련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4개 가마로는 구억리 노랑굴과 검은굴, 신도리 노랑굴, 신평리 노랑굴이 있다¹⁷⁾.

1) 구억리 노랑굴(제주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58-1호)

구억리 노랑굴은 보통 상동 노랑굴이라고 하는데, 이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것이다. 이 굴은 2002년 4월 11일 제주도지정문화재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소재지는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720번지이다. 노랑굴은 제주도 사람들이 사용했던 생활용기를 구워내던 가마를 말한다. 유약을 바르지 않는 제주용기는 소성(燒成) 시 온도의 변화에 따른 발색으로 그릇표면이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여기서 구워지는 그릇을 ‘노랑그릇’, 가마를 노랑굴이라 불렀다.

가마 축조는 ‘굴계(契)’를 조직하여 굴대장을 주축으로 계원들이 동원되었다. 자연적인 경사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고 현무암과 흙을 사용하여 만들었는데 다공질의 현무암은 화산폭발에 의한 용암석으로 내화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7) 이 부분 관련 내용은 제주통용기전승보존회 실측과 연구자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사진 Ⅲ-1] 구억리 노랑굴(갯집)



[사진 Ⅲ-2] 구억리 노랑굴(전면)

대정읍 구억리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도토(陶土)가 전혀 나지 않지만 가마의 주재료인 돌과 소성에 필요한 땀감이 풍부하고 인근지역에서의 질흙수급이 가능하면서 옹기 기능인들이 이동하여 점차 옹기집성촌을 이루게 된다. 구억리 가마는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은 자연경사면을 이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시기는 불분명하나 1948년 4·3사건 이전까지 운영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굴천장은 본래 현무암으로 축조하여 흙을 발랐으나 당시 흙벽돌로 보수하였던 흔적이 남아있으며 굴의 규격은 길이 17m 너비 2.8m, 높이 2.5m이다.

2) 구억리 검은굴(제주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58-2호)

구억리 검은굴은 구억리 노랑굴과 함께 2002년 4월 11일 지정되었으며 소재지는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670번지이다. 검은굴은 시루, 지새항, 지새허벅 등을 구워내던 가마이다. 소성은 노랑굴과 비슷하나 마지막단계에서 굴을 밀폐시켜 그릇에 연기를 입혀 검게 구워내는데 완성된 그릇의 색깔이 검은색을 띠다하여 검은굴이라 불렀다. 가마는 자연경사를 이용하여 짓고 노랑굴에 비해 크기가 작고 돌과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토를 많이 발랐다. 천장이 낮고 가마의 뒷구멍이 출입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릇을 재임할 때는 앞에서부터 재임하여 뒤에서 끝난다.

검은그릇의 대표 격인 시루는 자급자족을 해야 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생활용기로 많이 쓰였던 그릇이며 일명 ‘숨 쉬는 항아리’로 불리는 지새항은 식수와 곡식을 저장하기 위한 생활필수품 중 하나였다. 검은굴의 규격은 길이 8.1m 너비 3m, 높이 2.7m이며 계를 조직하여 공동관리하였으며 검은굴은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것으로 제주옹기의 역사와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사진 Ⅲ-3] 구억리 검은굴(1)



[사진 Ⅲ-4] 구억리 검은굴(2)

3) 신평리 노랑굴(제주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58-3호)

신평리 노랑굴의 지정일은 2005년 10월 5일로 소재지는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59-1번지이다. 이 유적은 ‘앞동산 노랑굴’이라고도 한다. 북쪽이 낮고 남쪽이 높은 지형으로 자연 경사면을 이용하여 축조하였고 경사각도는 18도이다. 축조와 운영 시기는 불분명하나 두 차례에 걸쳐 증축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가마는 외관상 굴가마 형태로 가마의 방향은 뒤쪽에서 앞쪽으로 $180 \rightarrow 0^\circ$ 이며, 부장은 북쪽, 뒤 고망¹⁸⁾은 남쪽이고, 굴 들이는 입구는 서쪽이다. 가마의 내·외벽은 현무암 잡석으로 허튼층쌓기를 하여 축조하였고 그 사이에 흙을 채우는 한편 내벽에는 흙을 발랐다. 천장은 아치 형태로 돌을 붙여 쌓고 허물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돌과 돌 사이에 ‘빠비’라는 잔돌을 끼워 넣고 흙을 발랐다. 또한 다른 지역은 모두 흙가마인데 비해 제주지역은 돌가마라는 특징을 지닌다. 부장쟁이와 불벽 앞까지의 부장부분이 농로를 개설하면서 파손되었다. 굴의 규격은 길이 16.05m, 너비 3.6m, 높이 1.8m이며, 내부 너비 1.6m로서 근대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III-5] 신평리 노랑굴(옆면)

18) ‘고망’은 ‘구멍’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어를 가능하면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사진 Ⅲ-6] 신평리 노랑굴(후면)

4) 신평리 노랑굴(제주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58-4호)

신평리 노랑굴, 즉 일곱드르 노랑굴의 지정일은 2005년 10월 5일 이며 소재지는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1040번지이다. 이 유적은 ‘일곱드르 노랑굴’ 이라고도 한다. 굴의 지형은 서쪽이 낮고 동쪽이 높은 자연 경사면을 따라 만들어졌다. 노랑굴은 제주인들이 사용했던 생활용기를 구워내던 가마를 말한다. 소성 시 온도의 변화에 따른 자연유의 발색으로 그릇표면이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여기서 구워지는 그릇을 ‘노랑그릇’ 가마를 노랑굴이라 불렀다.



[사진 Ⅲ-7] 신도리 노랑굴(전면)



[사진 Ⅲ-8] 신도리 노랑굴(옆면)

현재 이 가마는 보수 및 수리가 잘못되어 원형이 훼손되었다. 동쪽의 뒤고망 부분과 남쪽의 출입구는 보수하면서 완전히 막아버렸고, 뒤 불벽은 개축하였다. 천장 부분은 뒤쪽에 5m 정도 시멘트 콘크리트로 보수 후 흙을 덮어 외관상 가마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굴의 규격은 길이 8.85m, 너비 2.57m, 높이 1.56m이며 축조 시기는 근대 초기에 만들어져 제주옹기 소멸 시점인 1960년대 말까지 사용되었다.

2. 제주전통옹기의 복원과 소생

1) 제주옹기업의 성장과 쇠퇴 배경

대체로 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전통공업인 옹기업은 역사적 전승이라는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그 지역이 가진 지형, 지질, 기후, 지리적 위치 등 자연적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이 있는데, 하나의 지역에 다수의 동업자 및 관련업자가 밀집하여 동일계통 제품의 생산에 종사함으로써 해당 지역이 하나의 생산지가 되면서 전통적 기술도 양성되고 기업경영상 유리한 경제성을 만들어낸다.

한편, 옹기업은 자급적 원료에 의존해서 자생적으로 시작되어 지역 중심의 수요와 결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원래 풍토에 뿌리박고 자생적으로 발생하여 가공기술이 숙련되고 축적되어 온 옹기업은 전승적 산업으로서 경영주체나 노동의 고착성, 지역사회의 융합성, 즉 지역성 혹은 향토성을 갖는다. 따라서 옹기업은 그것이 입지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의 영향 하에 있는데, 이는 원료와 생산기법 및 유통과정에서 잘 나타난다(이청일, 1991: 18-19; 辻本芳郎, 1978: 1-2; 염미경, 2012).

제주에서 문헌을 통한 운반용 물병의 사용 기록 등을 종합해보면 늦어도 대략 17세기 후반 경에는 옹기생산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주로 전라도를 기점으로 물품이 유입되고 반입되었다. 18세기 후반 편찬된 제주읍지(『濟州邑誌』「大靜懸誌」道路條)에 ‘가미수 옹점’(加味數 甕店)이라는 옹기판매점의 등장에서 제주 옹기생산, 판매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김

정선, 2010: 364). 따라서 제주에서 옹기생산의 시작은 명확하진 않지만 늦어도 17세기 후반 경에는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염미경, 2012).

가마축조기술을 포함한 옹기제작 기술이 온전히 제주지역 자생적인 기술이 아닌 타 지역에서 전래되어온 기술임을 고려하면 초창기 제주의 옹기가 마의 모습은 타 지역의 같은 시기 옹기가마의 모습과 유사할 것이다. 이 점은 가마축조기술이 옹기 제작기술에 비해 단기간 내에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가마 축조기술을 가진 숙련된 기술자가 직접 제주에 들어와 가마를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김정선, 2010: 374; 염미경, 2012).

실제로 옹기제작 기술이전 지역으로 전라도 지역을 드는데 전라도 지역에서 들어온 옹기제작 기술이 제주도 환경에 맞게 ‘제주적’으로 변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의 옹기가마는 돌가마 즉 석요(石窯) 형태로, 제주의 옹기가마는 가마생산품의 종류에 따라 노랑굴, 검은굴로 불리고 있는데, 이는 제주의 자생적인 기술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전라도에서의 기술이전, 특히 기술자의 유입을 통해 가마축조기술이 이전된 것으로(주희춘, 2008: 185-193), 점차 제주의 환경에 맞게 토착화된 것으로 이해된다(김정선, 2010: 353, 염미경, 201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랑굴은 두 종류의 가마 중 하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릇들을 구워냈던 가마이며, 노랑굴에서 구워진 그릇들이 “노란색을 띤다.”하여 노랑굴이라 불렀다. 검은굴은 또 다른 가마 종류 중 하나로 생활옹기들을 구워냈던 가마이고, 구워져 나온 그릇의 색깔이 검정색을 띠기 때문에 검은굴이라 불렀다(염미경, 2012).

당시 뱃길로 가까운 거리였던 전남 강진은 그릇문화가 강진(칠량면 봉황마을)에서 제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다. 제주에 강진 옹기배가 들어가면 늘 인기를 독차지했고 제주사람들에게 강진옹기는 꿈의 그릇이었으며 실제로 제주에서 강진옹기는 소비가 많았다(주희춘, 2008: 185).

전라도에서 생산된 옹기와 제주 전통옹기가 제주에 공존했다는 것은 제주 전통옹기 생산 도공들과 제주의 골동품점 대표들과의 심층면접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이들이 제주 전통옹기를 육안으로 구별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옹기 표면에 유약을 발랐는지 아닌지 하는 것, 따라서 전라도에서 생산된 옹기는 훨씬 정교하고 매끄럽게 보이고 제주 전통옹기는 그렇지 않다

는 것이다. 제주에서는 비교적 부유한 집에서 유약이 발라진 전라도 등지에서 들어온 옹기를 사용했다고 한다(심충면접 결과 종합; 염미경, 2012).

그러나 제주옹기의 주 생산지였던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는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제주옹기 제작이 중단된다. 이에 반해, 제주시 한경면 조수2리에서는 이후에도 근대공업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이 지역 또한 옹기 수요 감소 및 땔감과 흙 조달 문제, 그리고 플라스틱제품의 확산 등으로 인해 중단되게 된다. 즉 1970년대 후반 이후 제주시 한경면 조수2리를 중심으로 제주옹기 도·소매업자인 이성호씨(작고)가 제주옹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남 남창의 옹기제작 기술자를 제주로 불러들여 계란형의 경남 남창 방식의 옹기를 만들게 하여 유약을 발라 기름 가마에 구워내는 시도가 있었다. 즉, 제작 기술자들을 제주로 불러들여 옹기에 육지 방식으로 유약 바른 후 기름 가마로 굽는 시도가 있었으나 남창 기술자들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980년대까지 옹기를 생산했던 제주시 한경면 조수2리의 경우 1970년대 말부터는 폐유를 사용하는 기름 가마로 바뀌는데, 이는 벌목 금지로 땔감 구하기가 어려워져서였으며, 따라서 자연스럽게 조수2리에서도 옹기생산은 중단되게 된다(1대 기능인 박씨와의 심충면접결과, 심충면접 일자는 2015년 9월 6일).



[사진 III-9] 1970년대까지 불 땔던 가마(제주시 한경면 조수2리 소재)

제주옹기 제작이 조수2리를 제외하고 대정읍 옹기생산지들에서 1960년대 말 또는 1970년 초에 중단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제주옹기 제작방식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제주옹기 생산은 기본적으로 분업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기물을 성형하는 대장(도공), 토립¹⁹⁾(토래미)을 만들고 기물을 관리 하는 질대장, 가마에서 기물을 소성하는 불대장, 가마축조를 맡는 굴대장 등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1대 기능인들과의 심층면접내용에 의하면, 제주옹기 제작이 꼭 분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가정에서 자가 수요를 위해 옹기를 한 굴(가마) 또는 두 굴을 구워내는 경우 가족구성원들이 땀감과 흙 모으는 일, 옹기를 성형하는 도공의 일, 토립을 하고 옹기를 관리하는 질대장의 일, 옹기를 소성하는 일 등을 모두 하는데, 옹기를 성형하는 도공의 일은 하기 힘들어 외부에서 전문 도공장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다. 도공의 일은 쉽게 하기 힘든 일이라 수입이 가장 많았으며 옹기의 환금성이 커지면서 현금이 있어야 도공장을 데려올 수 있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중에 도공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제주에서 옹기 수요가 많아지면서 성형 전문 도공장이 등장했으며, 도공장 개인이 옹기제작 전 과정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다²⁰⁾(1대 기능보유자와 기능인들과의 심층면접결과 종합). 실제로 1950년대, 1960년대를 거치면서 제주지역에서 옹기수요가 많아졌으며, 따라서 자가 수요를 위한 생산을 넘어서 제주 전역에 보급하기 위한 대량생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옹기제작 분업화·전문화되고, 또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옹기제작에서 협업체제가 보편화되게 된다(1대 기능인들과의 심층면접결과 종합).

가마(굴)의 운영, 특히 대정읍지역은 마을 단위로 굴계를 조직해 가마를 운영하였는데, 옹기수요가 줄면서 1970년대 초 자연스럽게 가마는 폐쇄된다. 이에 반해, 조수2리에서는 옹기업이 근대적 산업으로 전환 움직임이 있었으나 땀감과 흙 조달이 어렵게 되고 옹기 수요가 줄고 플라스틱제품 사용이 확대되면서 중단된다. 이처럼 옹기제작이 끝나게 된 직접적 요인은

19) 전통옹기 성형기술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그릇의 벽을 쌓는 토립(토래미) 혹은 타림이라고 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그릇의 벽을 만들기 위해 떡가래 혹은 질판 모양으로 길게 흙막대기를 만들어 그릇 벽의 형태로 한단씩 테쌓기하거나 코일처럼 감아올리는 서리기 방법으로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염미경(2012)을 참조바람.

20) 이 연구의 심층면접대상자 중 1대 기능보유자 신씨, 1대 기능인 박씨, 고씨 2가 이에 해당하며, 1대 기능보유자 부씨는 전문 도공장에 해당한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1대 기능보유자와 기능인들과의 심층면접결과 종합). 특히, 조수2리는 1970년대 중반 기름가마가 축조되고, 육지(경남 남창)의 옹기기술자를 유치해 대량생산을 시도하는 등 근대적 산업으로 전환 움직임이 있었다²¹⁾. 따라서 이 지역의 경우 1980년대 중반까지도 옹기가 제작되었다(1대 기능인 박씨 씨와의 심층면접결과).

과거 옹기업에 종사했던 많은 제주인들은 감귤농사 등 다른 업종으로 전업했고 이후 제주의 돌가마(石窯)를 비롯한 옹기관련 유적들은 농업구조의 변화(귤 농사)와 도로공사,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라져 가게 된다.

2) 제주옹기의 복원노력과 소생

1990년대 후반 들어 제주 전통옹기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복원 노력이 시작되었으며, 점차 제주옹기의 우수성과 독특함, 그리고 제주옹기의 관광자원화와 관련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옹기생산지는 제주도 서부지역, 특히 대정읍과 한경면이 옹기생산지였는데, 구체적으로 대정읍 신평, 구역, 무릉2리, 조수2리 등²²⁾이다. 이 지역들은 한때 마을주민 대다수가 옹기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고 이 지역에서 생산된 옹기는 제주도 전역에 유통되었다. 이외에 인근 신도리, 고산리, 청수리, 산양리 등에도 옹기가마가 있었다. 옹기를 굽는 가마가 있었던 터는 노랑굴터 총 34기-대정읍 24기, 안덕면 4기, 애월읍 3기, 제주시 3기-, 검은굴터 총 4기-대정읍 3기, 애월읍 1기-가 있다. 그러나 가마터였다는 것을 1대 기능인들의 구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형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흔적이 남아있는 현존 가마로는

21) 이는 제주지역 옹기판매상 이성호 씨가 주도하였다. 이성호 씨는 대규모 옹기판매상이었는데, 유약을 바른 타 지역 옹기가 제주에 유입되면서 제주옹기가 이에 밀리자 경남 남창의 옹기기술자를 제주로 유치해 남창 방식의 가마와 옹기를 제작하는 등 제주지역 내 옹기제작·유통망을 구축하고자 하였고, 대량생산을 시도하는 등 전통옹기의 근대화 노력을 한 인물이다(박씨 등 1대 기능인과 전문가들과의 심층면접결과).

22) 제주 대정읍과 한경면 일대는 제주옹기의 집중적인 분포지이다. 특히, 구역리의 토양은 물빠짐이 잘되는 현무암 풍화토가 대부분이지만 옹기생산에 필수적인 점토가 없기 때문에 인접한 신평리에서 옹기의 원료인 점토를 구입하여 이용하였다. 한경면 일대는 대정읍 구역리와 신평리 1대 전통옹기 기능인들이 옹기제작 일로 갔다가 한경면 조수2리 등지에 정착하면서 옹기생산지가 되었고 제주에서 가장 늦게까지 옹기 제작을 한 지역이 되었다.

노랑굴 8기와 검은 굴 1기가 전부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 전통옹기의 생산은 1960년대 신소재인 양은과 플라스틱 그릇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옹기생산을 관여했던 사람들이 다른 환금작물 농사로 전업하면서 1970년 초에 대정읍 구억리 가마가 폐쇄되게 된다. 제주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과거 생산된 제주옹기를 수집하고 유통을 담당하는 골동품점들이 등장하면서 과거 제작된 제주옹기가 골동품점들을 중심으로 유통되기 시작했으며,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노력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다(염미경, 2012).

1990년대 후반 전통옹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통옹기 복원노력으로 제주전통가마가 복원되었고, 2000년 대정읍에 제주도예원(현재는 제주도예촌)이 문을 열면서, 그리고 조수2리에서 기계로 토기화분을 대량생산하던 제주옹기마을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이후 2000년대 제주돌가마도예연구소(2002), 껌은돌(2007), 그리고 1대 기능인들과 무형문화재 14호 제주도 옹기장 기능보유자와 1대 기능인들, 그리고 전수교육조교와 전수장학생 등 2대 기능인들을 중심으로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2008)가 설립되어 제주 전통옹기 제작의 맥을 이어나가게 된다(오창윤, 2010: 12-13; 염미경, 2012). 이를 기반으로 과거 제주옹기의 집산지였던 대정읍 구억리 마을청년회와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가 주축이 되어 2009년 3월 서귀포시 대정읍 옛 구억분교 건물에 제주옹기 배움터라는 옹기체험장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유물 수집과 채록 결과물을 모아 2010년 11월 제주옹기박물관²³⁾이 건립되기에 이른다.

2008년부터 박물관 조성작업을 시작해 개관한 제주옹기박물관은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를 중심으로 구억리 마을회와 청년회 등 지역주민들에 의해 마련된 공간이라는 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해 제주에서 사라진 전통옹기는 1대 기능인들, 제주옹기의 복원에 노력해온 2대 기능인들, 그리고 마을주민들에 의해 제주 전통문화유산으로서 제주의 문화유산으로서 소생되게 된다.

23) 이 박물관에서는 옹기와 관련된 산증인들의 사진과 이력이 전시되었고, 150여종 700여점의 옹기가 수집됐고 이 가운데 50여종 150여점을 전시했으며, 옹기복원노력을 해온 2대 기능인 허씨가 관장을 맡았다. 그러나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의 작업장이 대정읍 신평리에서 무릉2리로 옮겨가면서 구억리 옛 구억분교 건물에 있던 제주옹기박물관도 문을 닫게 된다. 이후 이 박물관은 개관하지 못하고 있다.

3. 제주전통옹기의 문화유산화 과정

1) 민간 주도의 제주옹기 복원기(2000년대 초반까지)

제주옹기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제주옹기의 소멸과 복원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하고, 특히 제주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한 전승체계 성립과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제주옹기의 복원과 전승은 특정 민간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주옹기의 복원과 전승과정에서 형성된 단체나 조직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제주전통옹기의 쇠퇴

먼저 제주옹기가 쇠퇴하게 된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옹기는 제주인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 역사를 이어왔다. 제주의 전통옹기를 대표하는 물허벅은 화산섬이기에 겪어야했던 물 부족 환경에서 물을 운반하는 도구 중 하나였으며, 습한 지역이기에 각종 발작물의 씨앗 보존에도 옹기는 훌륭한 저장고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제주의 전통옹기는 가볍고 반영구적인 플라스틱 그릇 등 새로운 생활문화가 유입되면서 그리고 제주옹기 이외에 감귤 등 더 나은 환금작물이 등장하면서 제주인의 생활에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 더욱이 1960년대 들어서부터 제주의 전통옹기보다 쉬운 제작방법을 지닌 육지옹기를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제주옹기의 수요는 줄게 된다. 옹기 수요가 없어지면서 옹기 일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다른 직종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데, 이즈음 제주에서는 감귤농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감귤농업 인구는 증가하기 시작했다. 당시 옹기 일을 하던 사람들도 대부분 감귤농사를 시작하게 된다(제주옹기 1대 기능인들과의 심층면접결과).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제주의 전통옹기는 그 맥을 상실하게 된다.

(2) 제주도예원의 설립과 복원노력

1960년대 말부터 1970년을 기점으로 사라졌던 제주전통옹기에 대한 부활

은 일부 사람들의 노력에서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예원과 제주전통도예학회가 설립되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한 복원노력으로 인해 2001년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허벅장 지정을 받게 된다. 제주전통옹기는 제작과정도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졌듯이 전통옹기의 복원과 전승과정도 공동체작업, 즉 협업과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부터 민간 차원에서 전통옹기 복원 노력이 있었고, 1996년 대정읍 영락리에 전통옹기가마와 옹기 복원을 위한 공동작업장으로서 제주도예원이 설립되었다. 제주도예원 대표는 제주 전역에서 가마터 47군데를 발굴하였고 제주 서부지역, 특히 대정읍과 한경면 일부 지역에 도요지가 집중되었던 사실을 언론과 학계에 알리는 노력을 했다. 1999년 허씨까지 결합되면서 제주전통옹기 복원 계획은 구체화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1대 기능인들, 즉 질대장 김성균, 박근호, 이윤옥, 이전강 씨, 불대장 강신원, 고달순 씨, 그리고 강씨, 이씨, 허씨 등이 참여했다(<제민일보> 2002년 12월 28일자).

제주도예원은 과거 전통옹기 생산에 몸담았던 1대 기능인들과 전통옹기 전수자들이 모여 공동작업장 공동체 형태로 만들어진 민간단체로서 초기 전통옹기 복원노력은 제주도예원 중심으로 수행되어진다²⁴⁾.

한편, 1999년부터는 제주도예원을 주축으로 하여 제주전통옹기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게 된다. 제주도예원은 제주전통옹기 1대 기능인들을 만나면서 무형문화재 취지를 설명하고 제주옹기의 전승체계를 갖춘다는 차원에서 1대 기능인들, 즉 송창식, 홍태권, 고정대, 신창현, 고원수 씨 등과 함께 작업했고 송창식 씨가 중심이 되었다. 제주옹기의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송창식 씨가 물망에 올랐으나 작고하면서 신창현 씨가 2001년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허벅장²⁵⁾ 보유자로 지정되게 되고 전수장학생으로 당시 제주도예원의 대표 강씨와 허씨, 이씨가 지정되었다.

24) 제주도예원 이외에 제주옹기를 만들고 있는 곳으로 제주옹기마을이 있다. 이곳은 원래 토기화분을 주로 만들던 장인을 중심으로 해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전통 방식으로보다는 현대적 가마와 기술을 결합해 제주옹기를 만들고 있다.

25) 제주옹기의 제주도 무형문화재 지정은 제주옹기의 위상을 세우는 데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제주옹기의 작업방식이 분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어느 한 분야만을 지칭하기 어려워 2001년 당시 무형문화재 명칭으로 여러 가지 명칭이 거론되었다. 제주옹기 중 특이하고 대표적인 그릇이 허벅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져 ‘제주도 허벅장’이라 칭하였다.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제주도 허벅장 전승체계가 구축되면서 제주옹기의 복원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2001년 11월에 열린 제주전통도예워크숍²⁶⁾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옹기의 초기 복원과정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개인 중심의 복원작업에 과거 옹기생산에 몸담았던 1대 기능인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

(3) 제주옹기문화연구회의 창립과 제주옹기의 현대화와 예술적 승화

제주도예원 설립 이후 대학의 학술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해 1998년 말 제주옹기문화연구회 발기총회를 거쳐 1999년 제주옹기문화연구회가 창립된다. 제주옹기문화연구회는 제주대학교의 허민자, 김은석 교수 등을 비롯해 제주옹기와 전통가마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하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제주도예원 대표 강씨도 참여하였다(제주옹기문화연구회 관계자와의 심층면접결과, 심층면접일자 2015년 12월 8일자).

제주옹기문화연구회는 1999년 11월 제1회 제주옹기문화연구회전을 세종갤러리에서 열고 일본 오키나와지역 전통가마를 답사하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 후 매년 제주옹기문화연구회전을 열고 일본 큐슈지역 도예촌과 도예가들 또는 중국 도예가들과의 교류와 학술세미나, 전라도와 경상도의 가마와 옹기유적지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국내외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갔고, 이러한 흐름은 국내외 대학 연구자를 주축으로 제주옹기를 도예문화 또는 도자예술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을 해나갔다. 2011년에는 ‘제주옹기 어제 오늘 그리고...’라는 주제로 제14회 제주옹기문화연구회전을 제주 문예회관에서 열기도 했다²⁷⁾. 또한 2013년에는 ‘제주옹기, 여성의 삶을 담다’라는 주제로 제15회 제주옹기디자인협회전을, 2014년에는 제17회 제주옹기디자인협회전으로 ‘제주점토를 이용한 특별한 상품전’을 개최하였다²⁸⁾.

26) 이는 제주 최초의 옹기 관련 워크숍으로 그 내용은 전통가마 유적답사와 도예작업·캠핑 그리고 제주 옹기에 사용되는 흙을 직접 채취하고 주무르고 쌓아보면서 느끼는 체험과 흙과 불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27) 제주옹기문화연구회에 대해서는 제주옹기문화연구회(2011)를 참조바람.

28) 이에 대해서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2013)와 제주옹기디자인협회(2014)를 참조바람.

제주옹기문화연구회 소속 연구자들은 제주옹기에 대한 학문적 관심에서 출발해 이를 작품 활동과 연결시킴으로써 제주 전통옹기의 현대화와 예술 작품화를 시도해왔다. 이들은 제주 전통옹기를 제주의 문화와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면서 전통의 현대화와 생활옹기로의 변화를 시도해오고 있다.

(4) 제주전통도예학회의 제주전통옹기 복원노력(2001-2007년까지)

제주도예원 중심으로 제주옹기 복원노력을 해오는 과정에서 전통옹기와 가마의 복원 못지않게 전문가집단 구성을 통해 전통옹기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작업이 중요해지면서 2001년 12월 제주도예원 내에 학술단체로서 ‘제주전통도예학회-제주굴제’²⁹⁾가 창립되었다.

제주전통도예학회는 제주 전통가마에 대한 조사연구는 물론 1대 기능인들의 옹기 제작 분야별 작업을 기록함으로써 기술 전승을 시도하고 제주 전통가마와 전통 제주 질그릇 복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제민일보> 2001년 12월 5일자). 제주전통도예학회의 초대 학회장으로는 질대장 박근호 씨를 선출했고 1대 기능인들, 즉 강신원, 고달순, 고원수, 이윤옥, 김성균, 고경대, 홍태권, 신창현, 이전강 씨 등을 비롯해 2대 기능인들 참여했다³⁰⁾.

제주전통도예학회는 연 2회 동계와 하계 워크숍을 진행하였는데, 워크숍 내용은 제주 전통옹기의 역사성을 알리고 우수성을 홍보하는 일, 학술세미나를 통한 학술적 연구 발표, 제주 흙의 질감과 성질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그리고 제주전통가마 답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2006년 동계 제주전통도예워크숍은 2007년 ‘제주민속문화의 해’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로 전시회 ‘공수래공수거’전이 개최되었다. 이 전시회에서는 전통옹기 100여 점이 전시되었고 1대 기능보유자와 기능인들 및 전수장학생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29) ‘제주굴제’란 제주전통옹기 제작이 1인의 도공 기술이 있다고 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철저한 분업으로 하나의 옹기가 만들어지는 제주전통옹기 제작 방식에서 유래한 고유명사로, 제주옹기 제작이 보통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데서 붙인 말이다. 제주옹기 제작은 많은 분야와 사람이 동원되는 일이기에 보통계를 조직해 운영했다. 이러한 전통옹기 제작 전반을 아우르는 용어가 제주굴계이고, 이를 제주에서는 제주굴제라고 부른다.

30) 제주전통도예학회에 참여했던 1대 기능인들은 무형문화재 제주도 허벅장 또는 제주도 옹기장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로 복원활동을 하다가 작고했거나 현재 활동하고 있다.

제주전통도예학회는 제주전통옹기의 복원 방향을 둘러싸고 회원들 간 이견이 커지면서 2007년 말 해체된다.

2) 제주옹기의 문화유산화: 성장기(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

제주도 행정당국 차원에서도 제주 전통옹기 복원에 관심을 보이면서 2001년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허벅장 보유자로 신창현 씨가 지정되고 제주옹기 전승은 제주도 허벅장 보유자와 전수장학생 체계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제주 탐라문화제에서의 시연 행사나 전시회 등에 대해 일정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형문화재 제주도 허벅장 보유자로 1대 기능인 1인만 지정되면서, 그리고 전승지원금과 행사 경비 등을 둘러싸고 제주도예원 내부 문제가 커지면서 제주도예원의 전수자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 공동 작업장인 ‘검은돌’이 설립되게 된다. 이곳을 중심으로 제주옹기의 문화유산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게 된다.

(1)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2008년~)의 설립³¹⁾

검은돌은 대정읍 신평리 작업장에서 전통옹기 복원활동을 시작하였고, 제주전통도예학회가 해체된 후 1대 기능인들을 중심으로 해 제주옹기의 맥을 이어가고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한 전승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해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가 사단법인 형태로 2008년 6월 설립되었다. 이 단체에는 1대 기능인으로 강신원, 이전강, 이윤옥, 고달순, 김성균, 고원수 씨 등과 제주도예원에서 전수활동을 했던 김씨, 문씨, 허씨 등이 참여했다.

대정읍 신평리 작업장인 검은돌에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은 노랑굴을 복원하는 것이었고, 김씨와 허씨가 중심이 되고 1대 기능인들의 경험과 지식이 결합해 2009년 신평리 노랑굴이 축조되었으며, 2011년 무형문화재 제주도 옹기장으로 지정받은 후 작고한 굴대장 고신길 씨로부터 고증을 받았다.

2010년 제주도 행정당국을 중심으로 제주옹기의 무형문화재 재지정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제주옹기의 복원과 전승노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즉 제주옹기를 무형문화재로 재지정하는 과정에서는 제주옹기 제작이 분업

31) 이 부분은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관계자와의 심층면접결과를 중심으로 서술되었음.

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반영되어 지정 해제된 제주도 허벅장을 제주도 옹기장으로 명칭 변경해 보유자를 질대장, 도공장, 불대장, 굴대장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보유자 지정을 위한 심사가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의 신평리 작업장과 가마에서 2010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이루어졌고 전 과정이 기록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신길, 강창보, 백도현, 부창래 씨 등 1대 기능인들이 새롭게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에 참여하게 된다.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4회 제주도 옹기장 지정은 2011년 봄에 확정 발표되었는데, 제주도 옹기장 도공장 고원수, 불대장 강신원, 질대장 이윤옥, 굴대장 고신길 씨가 지정되었고, 2001년 제주도 허벅장 보유자였다가 해제된 신창현 씨는 제주도 옹기장 도공장으로 재지정 되었다.

(2) 제주옹기박물관의 개관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작업은 2010년 11월 대정읍 구억리에 제주옹기박물관이 건립되면서 제주 전통옹기의 지역문화유산 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시도하게 된다.

구억리 주민들이 2009년 3월 폐교된 옛 구억분교를 보수해 300여㎡ 규모의 ‘제주옹기배움터’³²⁾를 개관하면서 제주옹기 만들기 체험은 물론 제주 전통옹기를 전시해왔다. 이 ‘제주옹기배움터’는 구억리 마을청년회와 1대 기능인들이 참여한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가 공동으로 주도해왔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0년 11월 구억마을에 제주옹기박물관이 건립되었다³³⁾. 제주는 2010년 11월 제주옹기박물관 건립을 계기로 제주옹기는 지역문화유산으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를 해나가게 된다.

제주옹기박물관 설립은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의 최종 목표 중 하나였

32) 당시 대정읍 구억리 청년회장은 “제주 전통옹기의 발원지인 구억을 중심으로 전통옹기의 맥을 잇기 위한 전승교육을 목적으로 이 배움터를 마련하게 되었고, 앞으로 옹기를 굽는 굴(가마)을 축조해 옹기를 만드는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제민일보> 2009년 3월 19일자). 제주옹기배움터는 제주전통옹기의 전승과 교육을 위한 장소이자 옹기제작의 전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체험공간의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이곳의 운영은 제주옹기박물관 건립을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제주옹기박물관 관계자와의 심층면접결과).

3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I장 4절 제주전통옹기의 전승활동 부분을 참조바람.

는데, 박물관 설립을 위해 부지 확보, 유물, 수장고, 전시실, 그 밖의 시설 등 여러 가지 구비 조건을 갖추어나가야 했고, 이를 위해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와 구역리 마을사람들이 온 힘을 다한 결과 제주옹기박물관은 설립될 수 있었다. 즉, 수장고와 전시실 및 그 밖의 시설을 박물관 규정에 맞게 갖추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허벅·통개·시루 등 100여종의 옹기를 400여점 모을 수 있었고 옹기 관련 유물까지 포함해 600여점을 수집하여 옹기박물관 설립 준비를 했다. 그 결과 2010년 11월 제주옹기박물관이 승인되었고 제주옹기박물관은 2011년 개관하게 된다. 제주옹기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제주전통옹기 복원노력은 발전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3) 제주옹기의 문화유산화: 발전기(2011년 이후)

(1)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의 무릉리 작업장 시대³⁴⁾

제주옹기 1대 기능인 고신길 씨가 2011년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주도 옹기장(굴대장)에 지정된 해 작고하면서 고신길 씨의 집과 집터를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의 무릉리 작업장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처럼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는 2012년 대정읍 무릉리로 작업장을 옮기고 제주옹기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게 된다.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한 제주옹기굴제인데, 제2회 제주옹기굴제부터 2015년 제5회 제주옹기굴제까지 이곳에서 치러졌고 2015년 제주옹기굴제는 제주도 행정당국과의 협력 하에 치른 첫 번째 제주옹기굴제이며, 명실상부한 지역 민관협력체제 하에 제주옹기의 축제화와 문화유산화가 시도된 원년이다.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의 당면 과제는 제주옹기박물관의 복원과 무릉리 작업장 건물과 땅 소유문제를 비롯해,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제주도 옹기장 전승체제를 내실화하고 다기능 전승체제로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34) 이 부분은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관계자와의 심층면접결과를 중심으로 서술되었음.

(2) 제주옹기의 축제화: 제주옹기굴제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말 옹기축제인 제주옹기굴제를 열어오고 있다. 제주옹기굴제의 가장 큰 목적은 제주전통옹기의 원형 재현과 보존에 있음을 확인시키고 알리는 데 있다. 따라서 제주옹기굴제에서는 제주 전통옹기 기능보유자와 기능인들이 시연을 통해 제주옹기 제작과정을 보여주고 가마에서의 옹기 소성과정도 공개하고 있다. 2011년 제1회부터 2015년 제5회에 이르기까지 제주옹기굴제 행사내용 기획에서 축은 제주 전통옹기의 홍보의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제주지역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새로운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었다(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관계자와의 심층면접결과).

특히,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제주옹기굴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향토핵심 자원 사업화 시범사업’대상에 ‘제주전통옹기 명품화 사업’이 선정되어 제주전통옹기에 대한 전통기술 전승과 클러스터화를 통한 제주옹기 명품화 사업의 성과를 함께 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제주전통옹기 명품화 사업은 제주전통옹기의 생산기반 구축과 상품화 사업을 비롯해 사업·마케팅화와 사업고도화 사업 등이 진행되었다³⁵⁾(염미경, 2012: 206). 제주옹기굴제의 역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⁶⁾.

2011년 제1회 제주옹기굴제는 ‘제주옹기굴제-노랑굴 큰불때기’란 주제로 열렸다. 제1회 제주옹기굴제는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인 ‘제주도 허벅장’에서 ‘제주도 옹기장’으로의 확대 지정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제주전통옹기의 제작과정을 제주도 옹기장들의 시연에 초점을 두고 행사내용이 기획되고 진행되었다. 그릇을 불에 구워내는 불대장 강신원(작고), 옹기 모양을 만드는 도공장 고원수(작고), 흙을 준비하는 질대장 이윤옥 씨 등 제주도 옹기장들이 참여하여 기능을 선보였고 대정읍 신평리에 복원된 노랑굴에서 옹기그릇을 가마 안에 재이는 ‘굴재임’행사를 시작으로 굴할망제와 함께 장작들이기 등 작은불 행사, 아궁이에 불을 놓는 중불행사, 본격적으로 옹기를 굽는 큰불때기를 통해 전통옹기제작의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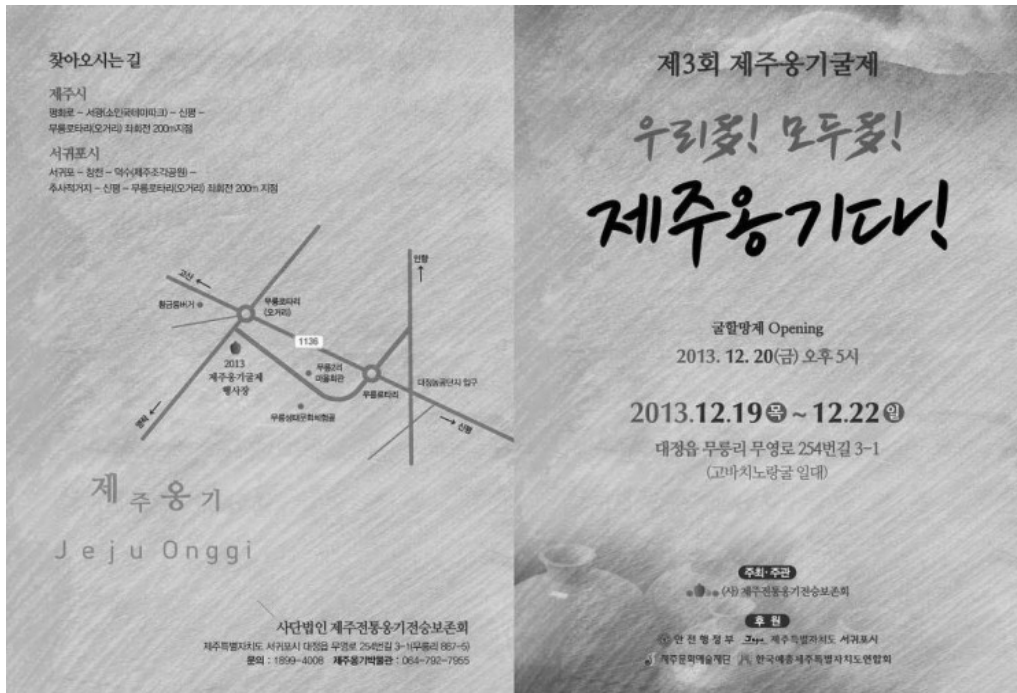
35) 2011년 제1회 제주옹기굴제 등에 대한 내용은 염미경(2012)를 참조바람.

36) 이 내용은 관련 기록자료와 제주옹기굴제 추진 관계자와의 심층면접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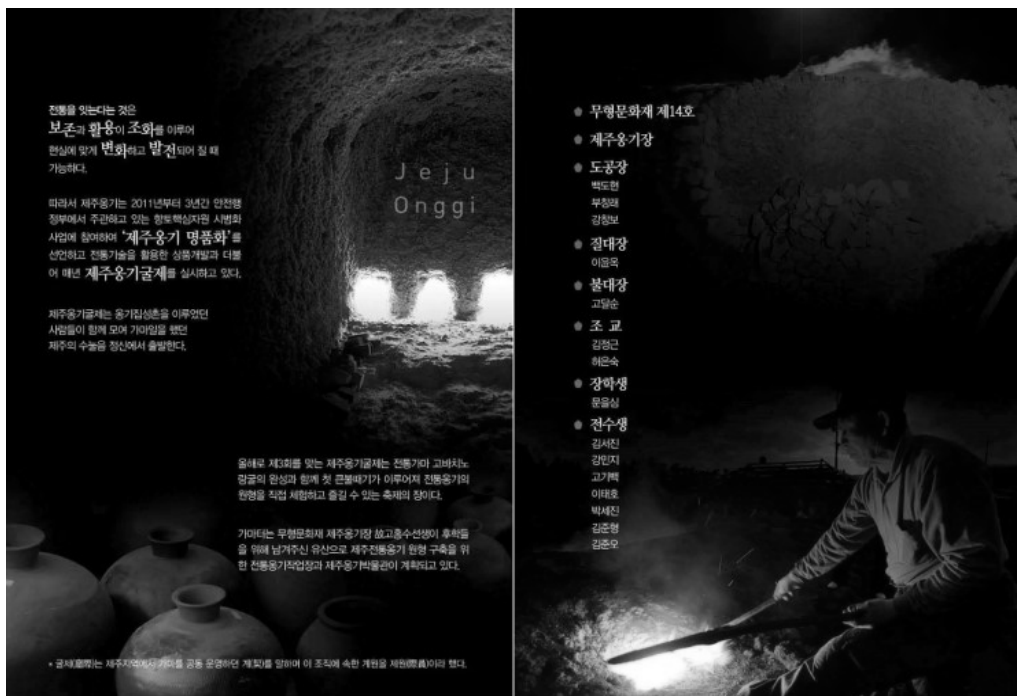
과정을 담아내는 행사로 꾸러졌다. 이외에도 체험마당으로 질흙 매치기, 흙판 만들기, 제주옹기 유적과 도공의 자취를 밟아가는 답사도 진행하였다.

2012년 제주옹기축제는 제주전통옹기의 새 출발을 알리고자 대정읍 무릉리에서 ‘새로운 출발! 제주옹기’란 주제로 열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곳은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굴대장) 고신길 씨가 제주옹기를 이끌 후학들을 위해 남긴 집터인 무릉리 고바치에서 이루어졌다. 향후 제주옹기박물관과 전수·체험관이 들어서게 되는 자리에 터를 다지는 행사로, 방문객들이 직접 노랑굴을 짓는데 필요한 돌을 가져다 올리며 공동작업으로서 제주옹기 제작의 의미를 불어넣는 행사내용으로 꾸러졌다. 전통물레를 돌리고 가마에 불을 때는 체험공간을 비롯해 굴대장 고신길 씨와 질대장 전수교육조교 이진강 씨의 삶과 이야기를 추억하는 기록사진전, 1세대 전통옹기 기능인들의 작업과정을 담은 영상기록물 상영 등이 행사내용에 포함되었다.

2013년 제3회 제주옹기축제는 ‘우리다! 모두다! 제주옹기다’라는 구호와 함께 대정읍 무릉리 고바치 노랑굴 일대에서 열렸다. 2012년 제주옹기축제를 하면서 터다지기를 하였던 전통가마가 완성되어 노랑굴의 첫 불때기가 2013년 제 3회 제주옹기축제 행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불을 때기 위해 가마 안에 그릇들을 쌓는 작업인 ‘굴드림’을 전통작업 방식으로 재현했고, 옹기가 잘 구워져 나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굴에 올리는 기원제인 ‘굴할망제’도 치러졌다. 매년 해 오던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주도 옹기장 시연과 체험프로그램인 제주도 옹기장과 함께 전통물레 체험하기, 제주 흙과 놀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주제 전시인 ‘제주옹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전과 특별전 ‘향토핵심자원사업화 시범사업 제품전시’ 그리고 한용민·김남숙·고난영의 ‘삼인삼색’전을 통해 제주옹기의 새롭고 다양한 시선들을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고바치 마을길 트래킹과 야간 트래킹인 ‘노을빛, 별빛 따라 걷기’등의 답사 행사가 진행되었다.



[사진 III-10] 2013년 제3회 제주옹기축제 팸플릿(1)



[사진 III-11] 2013년 제3회 제주옹기축제 팸플릿(2)

III. 제주전통옹기의 복원과 전승활동

행사 일정표

우리들! 모두들!
제주옹기다!

날짜	19일(목)	20일(금)	21일(토)	22일(일)
노년공 인 물레가	공예전 10:00~16:00	공예전 17:00~	경쟁공예 전시가 18:00~21:00	경쟁공예 전시가 18:00~21:00
시연	무형문화재 제주옹기장 시연 전통물레상형 / 물레도구 제작 / 전통도공이 들려주는 옹기이야기			
제형	전통물레 제작 문화재청 함께 전통물레 배우기	민들레 밍고리 1. 발포도구 만들기 2. 노년공 만들기	제주옹기 장신구 제작 1. 장신구 2. 노년공 만들기 3. 도자기를 만들기	제주옹기 장신구 다도작을 위한 만들기
담사	* 전통물레 & 다도 체험은 오전 10:00~12:00 / 오후 14:00~16:00			
공연	고지리 바들길 노래방 14:00 ~ 16:00	노년공, 발포도구 만들기 (아카데미) 18:00 ~ 20:00	제주남초등학교 어린이가야금 연주 12:00~	제주남초등학교 어린이가야금 연주 12:00~
전시	(제주옹기 주례관) 제주옹기의 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제주옹기 상형관) 제주옹기 시범·시연으로 가장한 제주옹기 체험 전시	(제주옹기 초대관) 도자 / 한복 조형 / 김남숙 힐보 / 고난영	
영상	특별관 제주옹기 상형관·시연관·전시관 25개 업체·제주 전시			
장터	행사기간 중 제주옹기 남양이 물레잡고다. 더불어 자연친화적 판매 코너가 마련됐다. 제민에게 줄기는 박자부들이 준비함.			

* 이 일정은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행사

전시

19일(목) ~ 22일(일)

- 제주 작가 초대전
도자 : 원영민 | 조형 : 김남숙 | 힐보 : 고난영

공연

20일(금)

- KBS 어린이 합창단 공연
- 지휘 : 이광숙 | 반주 : 박은희 | 연주 : 고사영
- 대정서초등학교 어린이그림 사운드 공연
- 퍼펙트오즈 밴드 공연
- 조창호 밴드 공연
- 예술 : 박상대 | 드럼 : 김민정 | 다트송기악 협주 : 조창호

21일(토)

- 제주남초등학교 어린이 가야금 연주
- 연주 : 김서희, 조소영, 장민서 | 지도 : 이다경
- 가타연주
- 연주 : 심어송라이터 박영규
- 대금연주
- 연주 : 유궁

22일(일)

- 라퍼월드 밴드 공연
- 리더:기타 : 김윤성 | 피아노 : 진석민 | 보컬 : 김소리

체험

20일(금) ~ 21일(토)

- 제주그릇에 우리차! 다도체험
다도강사 : 고창명, 고순이 | 시음 : 이광현, 이우자 | 보조 : 강민정
- 제주옹기에 향초 만들기, 다육식물 화분만들기
무용 피아니스트 : 고지선

담사

20일(금)

- 고바치 마을길 트레킹

21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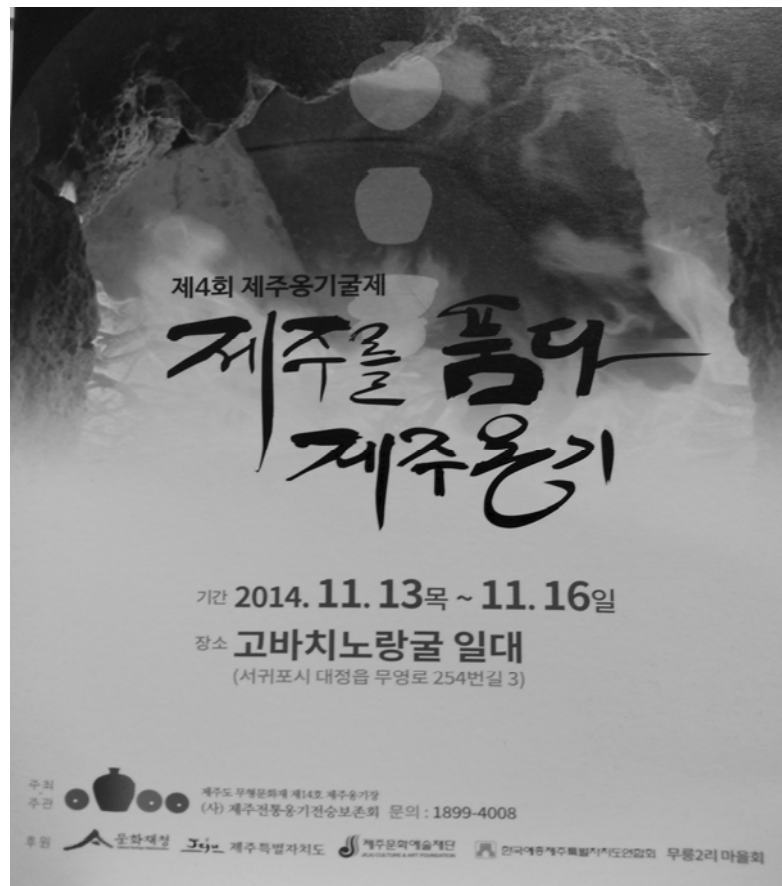
- 노을빛, 별빛 따라 걷기 (아카데미)
- 참가인원 : 20명 | 안내 : 송해영이 담당함.

[사진 III-12] 2013년 제3회 제주옹기골제 행사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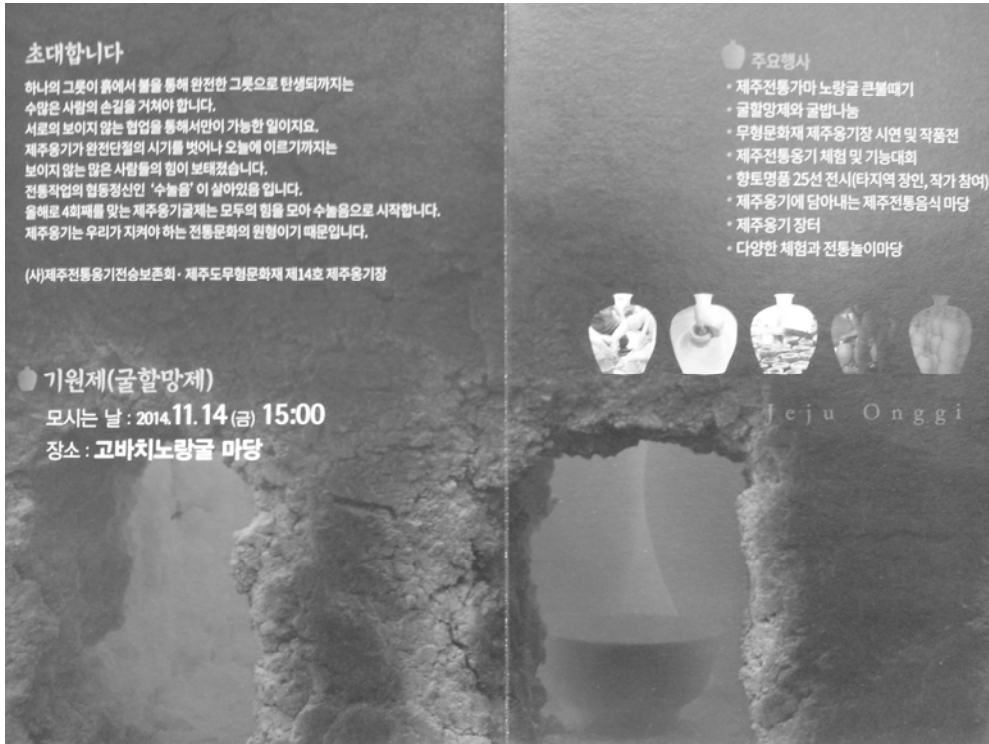


[사진 III-13] 2013년 제3회 제주옹기골제 '삼인삼색'전

2014년 제4회 제주옹기골제가 대정읍 무릉리 고바치 노랑굴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제주를 품다, 제주옹기’를 주제로 하여 지역과의 상생을 부각시키는 것이 행사의 주안점이었고 지역주민과 함께 함께 하는 품물패 길트기로 시작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그릇을 이동하고 가마 안에 재임을 하는 굴드림 등으로 꾸려 졌다. 노랑굴 복원 성공에 이어 검은굴 축조 현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검은굴 원형 복원은 1대 고(故) 고신길 굴대장의 뒤를 이은 2대 김정근 굴대장이 진행하여 ‘전승’에 대한 의미를 더했다. 또한 제주옹기박물관 건립의 시작을 알리는 초석인 벽돌 나르기 행사로 진행하여 어느 때 보다 의미 있게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외에 직간접으로 옹기 일을 해온 1세대 기능인들이 들려주는 옹기이야기 시간이 마련되었고 제주 흙으로 빚어서 전통방식으로 구워낸 흙구슬 놀이도 재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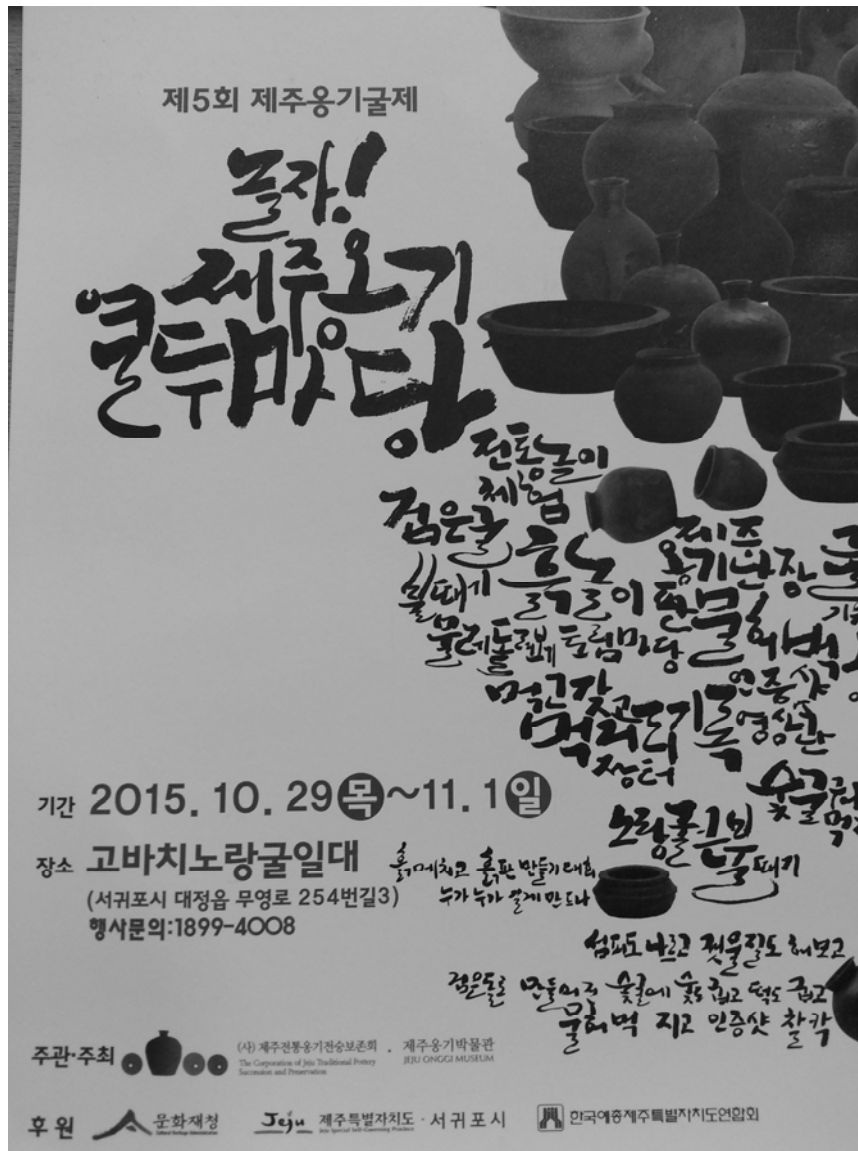
[사진 III-14] 2014년 제4회 제주옹기골제 팸플릿(1)



[사진 15] 2014년 제4회 제주옹기글제 팸플릿(2)

2015년 제주옹기글제는 ‘놀자! 제주옹기 열두마당’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대정읍 무릉리 고바치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관람객과 한데 어우러지는 ‘놀이판’으로 꾸며졌다. 행사는 ‘굴마당’과 ‘원형마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굴마당 행사 중 ‘노랑굴 큰불때기’는 굴드림-피움불-죽은불-중불-큰불까지 전통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하였다. 관람객들이 직접 불 때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검은굴 불 때기’행사도 함께 열려 좋은 반응을 얻었다. 원형마당에서는 제주도 옹기장이 직접 시연하는 프로그램과 전통물레체험 등 대정읍과 그 외 제주지역민, 그리고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었는데, 지역민 등 제주옹기글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 14호 제주도 옹기장들과 함께 제주옹기 제작 체험을 해볼 수 있게 꾸렸다. 이때 제작된 옹기는 2016년 제주옹기글제 때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굴 기원제인 굴할망제가 제주도 행정당국 관계자들과 정치인들, 제주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해 치러졌으며 글제가 끝난 후 굴밥 나눠먹기를 통해 제주옹기글제 추진위원회와 지역민을 비롯한 관광객이 함께 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행사기간 중 관람객들에게 받은 소원지·기원솥대
태우기 행사 숲해설사가 함께하는 ‘곶자왓·옹기유적답사’와 집줄농기·짚방석
만들기·망태이만들기·노람지짜기·토림판 만들기·토우만들기·보말공예 등 다채
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되었다.



[사진 III-16] 2015년 제5회 제주옹기축제 팸플릿

Ⅲ. 제주전통옹기의 복원과 전승활동

제5회 제주옹기축제 행사 일정표		일 정				비고
내 용		10. 29 목	10. 30 금	10. 31 토	11. 1 일	
굴마당	노랑굴 큰불매기	굴드림(28일)~파용불~죽은불~중불~큰불(10.31.늦은밤) ※노랑굴재입은 행사일정상 28일진행하며 큰불(갯불질)은 날씨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검은굴불매기(체험)	09:00재입시작~불매기(하루)~ 불매기(아름) ※재입은 1인 30분 소요				
원형 굴제	제주옹기장 시연	오전11:00~12:00 오후14:00~15:00	오전11:00~12:00	오전11:00~12:00 오후14:00~15:00	오전11:00~12:00	
	전통물레체험	오전10:00~11:00 오후15:00~17:00	오전10:00~11:00	오전10:00~11:00 오후15:00~17:00	오전10:00~11:00 오후15:00~17:00	사전예약 필수!!
	제주옹기전시	제주옹기장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유물전시·기록영상)				
기원 마당	기원제(시작)		기원제(굴알양제) 15:00~16:00			
	소원제(마무리)		소원지쓰기·기원솜대 만들기		소원지태우기 행사 18:00~19:00	
참여 마당	꽃자왈·옹기유적답사 양은영 숲해설사와 함께 합니다.	오후2:00~4:00	—	오후2:00~4:00	오후2:00~4:00	사전예약 필수!!
	교육작품전시	오메기아홉 제주옹기작품 전시 가을 이야기(이주자) ※특별참가: 꿈꾸는 도자기(대정여고 도예반 9명)				
	체험작품전시	2014년 제주옹기축제 전통물레체험작품 전시(※현장에서 본인확인 후 반출합니다) 대정읍새마을부녀회 제주옹기체험이야기 전시				
놀이 마당	문화원형체험	집줄농기, 질방석만들기, 망태기만들기, 노람지짜기, 신사라(신서단)팽이치기, 뽕구슬치기				
	놀이체험	토림판 만들기(대회), 토우만들기, 도판에 그리기, 솜대 색칠하기, 보말공예, 전통염색, 다육식물·함초만들기, 전통차체험				
향토 마당		옹기난장, 지역농산물판매, 솜글체험 화덕에서 굽고먹고, 가마솜엔 감저법법.				

* 상기 행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행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진 Ⅲ-17] 2015년 제5회 제주옹기축제 행사일정



[사진 Ⅲ-18] 2015년 제5회 제주옹기축제 전시관 내부



[사진 III-19] 2015년 제주옹기골제 기원제(굴할망제)

2011년부터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가 주축이 되어 마련하는 제주옹기골제는 제주도의 축제 중에서도 ‘계’를 조직해 굴(가마)를 만들었던 과거 전통을 발굴해 축제로 승화시킨 점은 특산물 중심의 지역 축제에 자극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제주전통옹기의 전승의 맥과 그 궤도를 함께하기에 제주전통옹기의 정통성을 살려가면서도 다양한 새로운 시도로 현대생활과의 접목도 시도하고 있다.

4. 제주전통옹기의 전승활동

1) 제주도 옹기장 기능보유자와 기능인들의 전승활동³⁷⁾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과 1대 기능인들의 전승교육은 4단계의 분야별 교육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제주도 옹기장 질대장의 전수는 흙에 관련된 모든 총괄자로 흙을 찾는 일, 흙을 채취하는 일, 흙을 잘 이겨 옹기를 만들기 좋게 토립관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도공장의 기물에 맞게 예를 들어 검은굴 작업인지 노랑굴 작업인지를 파악하고 그 종류, 즉 허벅, 합단지, 대항 등인지에 따라 흙의 성질과 두께를 정하여 제공하는 일, 그리고 도공의 만든 완성된 기물의 보관과 건조 즉, 옹기가 가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총괄을 전승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제주도 옹기장 도공장 기능의 전수는 질대장이 마련해준 흙으로 기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처음부터 기물 성형 방법을 전수해주지는 않는다. 기능보유자의 기물 성형 보조로서 토립 하는 것부터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도공장이 되면 토립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옹기 수요가 많아 도공장 수요도 많아지게 되자 기물 성형만을 전문으로 하는 도공장도 등장하게 되고 토립을 전문으로 하는 질대장도 나오게 되는데 이는 제주 흙의 성질로 인해 토립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주전통옹기는 그 형태도 다양하며 종류도 많다. 능생이, 허벅, 대항, 고소리 등 각각의 기물들의 특징과 형태를 잘 구현해야 한다. 기능보유자의 전수는 주로 기능 보유자의 물레작업을 지켜 본 후 전수자가 따라 해보고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제주전통옹기 기능보유자들은 하루 중 마지막 작업 기물은 물레에 그대로 두고, 다음날 작업 시작 전 기물을 옮긴다. 이는 자신의 물레 자리에 대한 기능보유자의 자신감이자 일종의 권위의 상징이었다. 현재는 공개 시연 때인 경우 기능보유자와 전수자가 나란히 앉아 작업을 하지만 전승의 공간에서는 나란히 앉아 전수하지는 않

37) 이 부분은 이 연구에서 영상/구술채록 대상 제주도 옹기장 기능보유자와 기능인들, 그리고 제주도 당국 문화정책과 관계자와의 심층면접 자료로 구성되었음.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기능보유자와 1대 기능인들의 삶에 대한 영상/구술채록 녹취문과 영상 파일은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기록으로 <부록>에 제시된 양식으로 소장관리되니 참조바람.

는다. 전수자는 자신이 여러 번 기물을 만들어 본 이후에야 비로소 보유자에게 잘 안 되는 부분을 물어 볼 수 있다. 그러면 기능보유자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바로잡아주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옹기의 성형과정은 단순하고 쉬운 기물에서부터 점차 복잡하고 어려운 기물의 성형으로 단계를 밟아간다. 따라서 전통옹기의 다양한 종류의 습득, 특성을 익히는 기술을 전수한다.

제주도 옹기장 불대장 기능의 전수는 땀감을 고르는 일에서부터 나무를 나르고 쌓는 일까지, 그리고 불을 관리하고 살피는 방법과 불 때기의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법, 굴재임을 하는 일 등을 총괄해 전수한다. 보통 가마 위에 구멍이 있는데 이를 ‘독새기 구멍’이라 한다. 그 구멍을 중심으로 굴 안에 옹기를 재임한다. 옹기 재임 수량은 독새기 구멍의 수, 즉 가마의 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보통 12개의 독새기 구멍이 있는 굴인 경우 1줄에 10~12개정도 쌓게 되며 30줄~33줄을 재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굴에는 크고 작은 옹기가 약 400개 정도가 재워지는 셈이다. 불대장이 옹기 재임을 잘해야 불도 잘 잡을 수 있고 옹기가 잘 구워져 나오기 때문에 이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불의 조절이나 옹기의 건조 상태, 재임의 위치, 바람 방향에 따라 그 방법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도 옹기장 굴대장은 옹기제작 전 과정을 관장하는 자이며 전통옹기 제작이 주로 가마(굴)계를 구성하여 제작했기 때문에 계원들의 관리, 굴 축조, 구워진 옹기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굴대장의 이러한 기능은 축소되어 주로 굴축조에 그 무게가 주어진다. 따라서 누구보다 우선 제주 전통가마라 할 수 있는 노랑굴과 검은굴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해 적당한 장소에 잘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 돌의 성질과 흙에 대한 남다른 안목이 필요하고 지형에 대한 지식과 불의 성질을 파악하여 옹기 제작 전 과정을 이해하고 총괄할 수 있는 기능장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중점적으로 전수한다.

다음으로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전승지원금이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 그리고 전수장학생에게 매달 지급되고 탐라문화제 시연행사에 따른 보조금이 나오긴 하지만 제주전통옹기 전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원재료인 흙과 땀감 등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흙 값 뿐 아니라 포클레인과 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하는 일만해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 그뿐 만 아니라 흙을 구입할 수 있는 면적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대정읍 무릉리는 이제 더 이상 좋은 흙을 찾기 어려워졌고, 구억리와 신평

리에 그나마 옹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이 남아 있다. 2015년 제5회 제주옹기축제 준비과정에는 대정읍 신평리 흙이 사용되었다(제주도 옹기장 기능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들과의 심층면접결과). 기능보유자와 기능인들은 전승지원금 형태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흙과 땀감 등 옹기 원재료의 공급과 기능보유자와 기능인들의 시연과 전시에 대한 지원, 시설 장비의 지원,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등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기능보유자와 기능보유자들과의 심층면접결과). 이와 관련해 제주도 당국 문화정책과 관계자에 의하면, 2016년부터 제주도 당국 차원에서 전통옹기 기능보유자와 기능인들의 시연과 전시에 사용할 옹기 제작을 위한 땀감과 흙과 같은 원재료를 공급할 예정이다(제주도 문화정책과 관계자와의 심층면접결과).

2) 과거 옹기생산지에서의 전승활동: 대정읍 구억리 사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구억리는 과거 옹기의 재료인 점토구입이 손쉽고 땀감이 풍부해 옹기생산이 많이 이뤄졌던 곳이다. 구억리 주민, 특히 구억리 청년회를 중심으로 해 제주전통옹기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 제주도 교육청 소유의 폐교된 옛 구억분교를 리모델링해 2009년 ‘제주옹기배움터’를 개관해 전통옹기 만들기 체험을 조직하는가 하면 마을주민들로부터 수합한 제주전통옹기를 전시하게 된다. 이 ‘제주옹기배움터’는 구억리 마을청년회와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가 공동으로 주도해왔다. 이 과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교육청에 옛 구억분교 사용 신청을 제주도교육청에 할 당시 주체는 구억리 마을청년회였고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는 보조단체로서 임대 계획서를 작성해 시작했다. 이렇게 2009년 3월 폐교된 옛 구억 분교를 보수해서 300여㎡ 규모의 제주옹기배움터가 문을 열게 된 것이다(<제민일보> 2009년 3월 19일자).

제주옹기배움터는 제주전통옹기의 전승과 교육을 위한 장소이자 옹기제작의 전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었고, 제주옹기배움터의 운영은 ‘제주옹기박물관’건립을 목표로 한 중간 단계의 의미를 지녔다. 이후 제주옹기박물관 건립 준비를 위해 마을주민들이 허벅·통개·시루 등 100여종의 옹기를 400여 점의 전통옹기를 모을 수 있었고 전통옹기 관련 유물까지 포함해 600여점을 수집하여 2011년 11월 제주옹기박물관이 개관하게 된다.

한편, 제주옹기박물관이 건립된 후 전통옹기 전수교육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국고보조금이 투입되어 2012년 12월 ‘제주구억마을 전통옹기전수관’이 건립³⁸⁾되게 된다. 5,045㎡ 규모의 부지에 5억 원을 들여 전수관과 체험관, 전통옹기가마 2기, 건조장을 신축했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전통옹기 기술 전수’등의 전수관 설립 목적에 맞춰 건립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 만들어진 전통옹기가마인 돌가마 2기는 전문가의 고증도 받지 않고 지어져 사용할 수 없는 전시용으로 전락하게 되고, 체험관인지 전수관인지도 불분명하게 되어 건립 이후 1년도 채 못가서 문을 닫게 된다. 즉 2011년 무형문화재 제주도 옹기장 지정 이후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을 위한 전수교육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구억리 마을사업으로 전락하게 되면서³⁹⁾, 더욱이 이에 관여해오고 있던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의 작업장이 구억리에서 무릉리로 옮겨가면서 구억리에서의 전승활동을 중단되었다.



[사진 III-20] 제주구억마을 전통옹기전수관

38) 복권기금이 전수관 건립에 투입될 당시에는 ‘무형문화재 옹기전수회관 건립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으나 구억마을 사업으로 진행되어 갔고 복권기금이 법으로 정한 사업과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할 때 ‘제주구억마을 전통옹기전수관’으로서 구억마을사업이 되면서 논란이 있었다. 이 전수관은 제주도 지정 기념물 제58호인 제주 도요지와 무형문화재 제14호인 제주도 옹기장의 전승을 위해 필요하다는 대정읍 구억리 마을회의 제안으로 2012년 12월 건립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제주> 2012년 9월 11일부터 24일자 기획연재를 참조바람.

39) 전수교육관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IV장을 참조바람.

이후 구억리에서의 전통옹기 전승활동은 2015년 들어 정부 지원의 ‘구억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면서 전통옹기전수관은 다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제주옹기마을 구억리의 마을만들기의 목표는 ‘전통문화의 계승=전통 도기생산기술의 전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활환경, 농업환경 조성, 그리고 협동의 공동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등에 두어져 있으며(‘구억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기본계획), 2015년 8월 21일 착수보고를 한 상태이다. 이 사업의 하나로 구억리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7월 12일부터 12월일부터 12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저녁 6시부터 제주전통옹기전수교육을 하고 있다. 전수교육 내용은 전통옹기 중 합단지, 장태, 망데기의 토림판 만들기 와 성형이다. 강사는 대정읍 구억리 출신 2대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굴대장)인 김정근 씨가 맡고 있다. 전통옹기마을로서 구억의 마을주민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자라나는 세대가 전통옹기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기능인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구억리 마을 관계자와의 심층면접결과).



[사진 Ⅲ-21] 제주구억마을 전통옹기전수관에서의 전통옹기전수교육

구억마을에서는 2016년 제주전통옹기 전수교육은 구억리 마을주민을 넘어서 제주지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대정읍 구억리 마을관계자와의 심층면접결과).

Ⅳ. 제주전통옹기의 전승·보존정책⁴⁰⁾

1.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정책

1) 국가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정책

(1)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정책 현황

제주도 옹기장은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경적 논의로 한국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재 관련 정책을 살펴본다.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1월 10일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기본법이다. ‘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의거 정의하면,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라고 하며, 이것은 형태에 따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분류된다. 또한 문화재 지정 주체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구분된다.

무형문화재에서 ‘무형’은 ‘가시적인 사물이 아닌 예술적 활동이나 기술과 같이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인 행위이지만 정형화되거나 구체적인 실물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의 총화’를 의미한다(「문화재보호법」). 주로 인간의 비물질적인 세계를 구현한 산물로서 오래된 시간 속에서 인류의 전통적 맥락을 이어오는 문화와 관습에 관련된 것들로, 제의, 음악, 연극, 언어, 관습, 축제, 춤, 음식, 공예기술 등이 무형 문화의 소산이다. 무형문화재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을 지정하며 전승가치·전승능력·전승환경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를 예능종목으로 공예기술과 음식제조를

40) 이에 대한 서술은 문화재보호법과 기타 법령, 선행연구, 문헌자료와 통계자료,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고, 제주도무형문화재 전승현황에 관련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자,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조언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기능종목으로 나누어 지정된다(「문화재보호법」 제11조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기준).

「문화재보호법」은 그동안 우리민족의 전통문화와 생활문화를 바탕으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문화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은 한국사회 전통의 맥을 이어나가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이 법은 1962년 제정 이래 꾸준히 시행되어 왔으며 1964년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즉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여 왔다.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주옹기와 관련해 비교할 만한 중요한 사례인 경기도 여주의 ‘오부자옹기’⁴¹⁾ 김일만 씨가 전통적 옹기제작 기법과 조형성, 전승 현황 등이 두루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아 2012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보유자로 선정된 바 있다⁴²⁾. 옹기장은 옹기를 만드는 기술 또는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국가는 이러한 전통적 옹기제작기술의 전승을 위해 1990년에 옹기장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로 지정했다. 무형문화재 지정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형문화재 지정에서는 그 실체가 없는 무형이라는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이를 유지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인 사람을 함께 지정하고 있고 종목의 기·예능 보유한 사람이나 보유단체를 함께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문화재의 전승을 위해서는 해당 종목의 기·예능을 잘 구현할 수 있는 보유자나 보유단체, 명예보유자를 구분하여 지정한 다음, 기·예능 보유자로부터 전수교육조교를 훈련시키고 그 아래 다시 전수장학생을 두어 일정 기간 그 분야의 기·예능 교육을 전수 받게 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⁴³⁾. 또한 중요무형문화재로 한번 지정되면 그 종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 해제되기도 한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해도 그 전승의 맥이 끊긴 경우나 보유자가 없는 경우, 문화재로서의 된치가 소멸

41) ‘오부자옹기’ 김일만 씨의 옹기제작은 5대조 조부 때부터 이어온 가업이다. 김 씨는 1941년 안동 출신으로 부친인 김운용 옹을 따라 1980년에 여주에 정착해 6대째 전통옹기를 빚어왔다. 김성호, 김정호, 김창호, 김용호 씨 등 김 씨의 네 아들 역시 모두 옹기장으로 7대째 가업을 잇고 있으며, ‘오부자옹기’는 이들 오부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42) ‘오부자옹기’ 사례에 대해서는 IV장을 참조바람.

43) 1964년 12월 7일 제1호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2014년 3월 24일 제127호 아랫넛수룩제까지 총 132개 종목이 지정되었다.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종목별 현황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유형원(2015: 10-11)을 참조바람.

된 경우, 전승이 잘 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했을 경우 해제되기도 한다⁴⁴⁾.

한편, 「문화재보호법」에 지정된 무형문화재는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 공예기술, 음식제조 등 8개 분야로 그 범위가 협소하고 제3조에 제시된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에 준거하여 원형 유지를 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범위 협소’와 ‘원형 유지’중심의 정책은 무형문화재의 발전과 전승에 오히려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되어 2015년 3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즉 「문화재보호법」은 원래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영향을 받아 무형문화재의 범위를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제정되고 무형문화유산 정의의 확대와 함께 분야도 다양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이를 수용해 2015년 3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문화재보호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무형문화재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 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 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로 정의함으로써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무형문화재 정의보다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국립무형유산원, 2015: 13). 이처럼 무형문화재에 대한 범위와 개념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 우주에 관련된 지식까지 포함되는 보다 유연한 적용으로 보다 확장되어가고 있다.

다른 한편, 무형문화재 보전·관리와 관련해,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문화재보호법」 제3조의 폐단이 지적되어 왔다. ‘원형 유지’는 무형문화재보다 유형문화재에 더 적합한 원칙이라는 것 때문이다. 즉 무형문화재는 일정한 형태로 이어져 온 문화유산이라기보다는 기·예능인의 매개에 의하여 도제식 운영 방식으로 유지되어 온 전통문화이기에 진정한 원형을 찾기 힘들다. 따라서 무형문화재 자체가 우

44) 예를 들어, 제37호인 화장과 제52호 시나위, 제94호인 벼루장은 보유자가 없어 중요무형문화재에서 지정 해제된 종목이다.

리 생활문화와 관련된 문화적 전통으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부단히 변화해 가는 속성의 산물이기 때문에 ‘원형’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한다는 논의가 제기된 바 있으나⁴⁵⁾ 현재에도 유형·무형문화재 모두 동일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2)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해제

①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무형문화재 지정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준해 이루어진다. 또한 무형문화재를 지정주체를 기준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로 구분된다. 제24조에 의거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중요한 것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4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한 문화재로는 전통연행과 관련되는 예능종목인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 등 5개 분야가 있고, 도자가·직조·목공·음식 등 기술능력이 우선시되는 공예기술과 음식 등 2개 분야가 기능종목으로 지정되었다⁴⁶⁾.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 3월 28일 시행 예정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무형문화재가 보다 많은 분야와 종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즉 지금까지 국가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인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칭도 국가에서 관리·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되게 되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와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며,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⁴⁷⁾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45) 이와 관련해서는 송준(2009)와 정상우(2014)를 참조바람.

46) 중요무형문화재 종목별 현황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통계를 참조바람.

47)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중에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무형문화재이다.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중요무형문화재가 지정되었다가 해제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 중요문화재에 대한 엄격한 조사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던 무형문화재들도 구제될 수 있게 된다.

②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절차와 해제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절차와 해제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중요무형문화재는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형문화재는 해당 종목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추천을 받아 지정된다.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가 있으면 그 무형문화재의 종목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거주하고 있는 시·도에서 문화재청에 추천을 한다. 문화재청은 시·도에서 추천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해당 분과 문화재 위원과 전문 위원 3인 이상이 참여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실시한다. 추천된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대한 기능·예능의 수준을 조사한다. 문화재 위원과 전문 위원들이 현장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조사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지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한다. 문화재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중요무형문화재로의 지정과 인정을 심의하기 전에 심의할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무형문화재위원에서 중요무형문화재로의 지정과 인정 여부를 심의한다.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청장은 즉시 관보에 고시하고, 그 보유자에게는 인정서를 발부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되고 있다.

한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 세 가지 항목, 즉 가치의 소멸되었을 경우, 전승의 단절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소멸 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정 해제된다⁴⁸⁾. 또한 전승이 잘 되어 그 기·예능이 활성화 되어도 중요무형문화재에서 해제될 수 있지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절차가 까다롭듯이 그것의 해제도 쉽지 않다.

③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체계: 보유자와 전수교육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체계는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전수장학생

48) 중요무형문화재 제37호인 화장, 제52호 시나위, 제94호인 베틀장은 기능 보유자가 없어 전승이 단절되게 되어 해제된 경우이다(국립무형유산원, 2015: 16).

순으로 유지·보존된다. 「문화재보호법」 제24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명예보유자의 지정에 대해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하고, 인정한 보유자 외에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⁴⁹⁾.

국가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는 종목을 먼저 정하고, 반드시 해당종목의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지정하고, 현장에서 전승교육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자는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인정된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원형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전승을 위한 전수교육과 공개시연의 의무를 지닌다.

다음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은 1970년부터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보유자가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즉 「문화재보호법」 제41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조항에 보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6조에 전수교육 조항에 보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준하여 전수교육조교의 자격을 얻으려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고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49)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2조를 참조바람.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한 분야의 전수교육 조교가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쳐 이수증을 받고 다시 5년 동안의 전승활동을 거쳐 후에야 비로소 전수교육조교가 될 수 있다. 적어도 한 분야에서 거의 10년 동안 기·예능을 연마한 연후에야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수장학생 선발은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 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 전수교육 기간, 추천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언제든지 장학금을 중지할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체계는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전승과정에 대한 검증은 매년 공개되는 전승시연을 통해 이루어진다. 「문화재보호법」 제50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에 의하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해야 하며⁵⁰⁾, 그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¹⁾. 그러나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전수 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⁵²⁾(「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해제 조항).

④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무형문화재는 그 유형이 형체가 없는 문화재로 인간의 기술이나 예술로

50) 1년에 한 차례씩 이루어지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공개시연은 무형문화재의 전승 시간이자 공간이 되며 일반인에게 공개해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시연을 통해 전승의 활성화와 대중화의 정도를 가늠한다.

51) 기·예능의 공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1조를 참조바람.

5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수교육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 사유에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와 국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등이 있다.

전승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 전승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경비가 따른다. 현재 무형문화재의 전승은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경비는 국가와 지방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 경비 수준은 미흡하다. 1960~70년대는 생계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했고 현재는 전승지원금이라고 해 매달 기능보유자나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등에게 각각 차등 지급된다.

특히 중요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한 지원금의 명목은 「문화재보호법」 제41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조항에 제시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수교육, 장학금 및 특별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6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 교육을 보조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7조 전수장학생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와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문화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문화재보호법」 제50조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비용에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⁵³⁾.

2015년 3월 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시행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32조 기·예능의 공개 비용 지원항목을 보면 문화재청장은 법에 따라 기·예능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

53) 2014년 문화재청의 전승지원은 보유자 매월 131만원, 보유단체는 전승활동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지만 평균 370만원, 전수교육조교 66만원을 지급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전승지원금은 전승현황에 대한 고려 없이 대등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 간 격차로 인해 차등지급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홍건표·전진석(2012: 8)을 참조바람.

으며, 공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개행사를 하기 전 공개행사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행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행사에 대한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공개행사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해놓고 있다.

전승지원금의 빈약은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전수교육조교로 하여금 문화재 전승과 개발에 노력하기보다 생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어려운 여건에서 전승이 이루어지다보니 매년 시행되는 공개시연은 형식적인 행사가 될 수 있고 전승 상황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승자의 최소 생계유지와 사기 진작을 위해 전승지원금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⁵⁴⁾. 전승지원금은 단순히 전승의 가치에 대한 지급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인 기능보유자의 전승·보존 노력에 걸 맞는 대접과 비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제주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정책

(1) 제주 무형문화재 현황

제주도 지정 문화재는 국가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지정 관련 조항에 따라 지정되며 그 세부적인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해 지정된다.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시·도 지정 문화재의 지정 관련 조항을 보면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 인정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아닌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주도 지정 문화재는 이 규정에 의거해 제주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이처럼 시·도 지정 문화재는 국가지

54) 이와 관련해, 2015년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전승 취약 종목의 경우 일반 종목 대비 약 30% 가량 증액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의 보호·육성 없이는 판매 및 공연 기회가 줄어들어 점차 사라져가는 실정이다.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며 예산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아시아뉴스 통신> .2015년 11월 5일자).

정이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지정할 수 있고 무형문화재인 경우 중요무형문화재를 재지정할 수도 있다고 명시해 있고, 다만 보유자가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달리 지정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⁵⁵⁾.

제주도지정 문화재 분과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구분되어 있고 각 분과 관련 문화재 선정은 도지사 소속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제주도지정 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해제가 이루어진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문화재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각 분과별 위원회 밑에 전문위원을 두어 선정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주도지정 문화재 지정절차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해당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의 관계 전문가 2인 이상에게 해당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 받은 자는 각각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며, 도지사는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하며, 문화재위원회는 조사보고서와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절차에 따라 도지정 문화재가 선정된다. 현재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의 범위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의식놀이·무예·음식제조 등 총 7개 종목에 대해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5년 10월 현재 제1호부터 21호까지 지정되어 있다(<표 3> 참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형문화재의 전승은 사람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지정하고 전수교육조교와 전수장학생 순으로 전승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55)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4조를 참조바람.

〈표 IV-1〉 제주도 무형문화재 지정현황(2015년 10월 현재)

지정번호	문화재명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총인원
제1호	해녀노래	2	2	1	5
제2호	영감놀이		1	3	4
제3호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	1	1		2
제5호	송당리마을제	보유단체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마을제보존회		
제6호	납읍리마을제	보유단체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마을제보존회		
제7호	덕수리불미공예	1		3	4
제8호	정동별립장	1	2		3
제9호	방앗돌굴리는노래	1	1	2	4
제10호	멀치후리는 노래		1	1	
제11호	성읍민속마을 고소리술	1	1		2
제12호	고분양태	1	1	1	3
제13호	제주큰굿		1	2	3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4	4	6	14
제15호	제주불교의식	1		2	3
제16호	제주농요		1	1	2
제17호	진사대소리	1		1	2
제18호	귀리 곶보리 농사일소리	보유단체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민속보존회		
제19호	성읍리초가장	보유단체	서귀포시표선면 성읍민속마을보존회		
제20호	제주 창민요	1			1
제21호	삼달리 어업요	1			1
계	20	보유자 16 보유단체 4	16	23	53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보유자가 지정되어 있는 무형문화재는 제14호 제주도 옹기장이다. 제주옹기 제작과정의 특수성에 인해 옹기제작 분야별로 지정했기 때문에 4인의 보유자가 지정된 것이다. 그러나 도공장 2인, 질대장 1인, 굴대장 1인으로, 불대장은 보유자 없이 1대 기능인이 전수교육조교로 되어 있다. 제주도 옹기장의 경우 전수교육조교까지만 분야별 지정을 하고 전수장학생의 경우는 그 분야를 정하지 않고 전

수하고 있다. 이는 전승이 쉬운 분야로만 편중될 수 있기 때문이며, 향후 제주도 옹기장에 관해서는 옹기제작 전반을 전승하는 방법으로 전승체계를 바꿔 보유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승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관계자와의 심층면접결과).

(2) 제주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① 제주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승은 보유자나 보유단체-전수교육조교-전수장학생 체계를 지닌다. 이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해당 분야 기·예능의 보유자나 보유단체 지정이다.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무형문화재보유자 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문화재보호법」 제24조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2조에 준해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정해진 서식에 따른 보유자 인정서를 발급하고 있다. 제주도 옹기장의 경우, 부창래, 이윤옥, 신창현, 김정근 씨 등 4인이 지정되어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중 가장 많은 보유자가 지정되어 있는 제14호 제주도 옹기장은 제주전통옹기 제작방식의 특수성을 인정해 옹기제작 분야별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4인의 보유자가 지정된 것이다.

② 제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전수교육 항목을 보면, 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해당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26조 전수교육조교의 자격과 관련해 도지사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해 이수증을 교부 받은 자 중에서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추천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선정하고자하는 전수교육조교 수의 2배수 이상

을 추천해야 하고 도지사는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과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추천된 자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주도 옹기장 전수교육조교는 백씨, 강씨, 고씨, 허씨 등 4인이 지정되어 있다.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의 기능을 전승해 나가면서 전수장학생을 교육할 의무를 지닌다.

③ 제주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전수장학생 관련 조항에서 도지사는 분야별 해당하는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 자 중에서 해당 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선정 기준은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로서 해당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와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해당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고자하는 자로 규정되며 전수장학생의 교육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전수장학생 선발에서 분야별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데, 연극은 18~40세, 음악은 18~30세, 무용은 18~30세, 공예분야는 18~35세, 민속놀이분야 18~40세, 제례·궁중음식은 18~40세로 너무 어려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고령인 자는 제외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의 보서단체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선발연령에 제한받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2015년 현재 제주도 옹기장 전수장학생은 김씨 1, 문씨, 김씨 2, 고씨 1, 고씨 2, 강씨 등 6인이 지정되어 있다.

(3) 제주 무형문화재 전승실태조사

제주에서는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매년 1회 전승실태조사를 통해 전승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경우 제주도 행정인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에게 의뢰하여 전승실태조사를 실시해 전승현황을 점검한다. 제주도 행정으로부터 의뢰받은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2~3인으로 구성되며 일정한 기간을 정해 분야별 전승과정을 조사한다. 1년 동안의 성과물과 행사를 점검하고 기능보유자나 전수교육조교, 전

수장학생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기능보유자의 교육 횟수, 전수교육조교나 전수장학생의 기량 정도, 전승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을 등을 조사하여 제주도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옹기의 경우, 1년에 몇 개를 만들었는지, 제주지역 내외의 행사에 참여했다면 그와 관련된 팸플릿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전수교육조교와 전수장학생에게는 기량을 시연토록 해 발전 정도를 점검하기도 한다. 또한 흙 구입이나 가마에 이상은 없는지 등을 조사한다. 기능 전승에서 중요한 것이 전수공간이다. 따라서 전수교육관 건립 및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형문화재는 우리의 생활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유산이므로 관리와 후계 양성을 위해 전수교육관은 필요한데, 대체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관한 건립은 먼저 지정된 무형문화재 측에서 문화재청에 전수교육관 건립을 요청하고 문화재청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하고 검토하며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설립을 지원하는 절차를 거친다. 전수교육관 건립 재원은 다양한데 국비,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지방비 등으로 건립되며, 국가 예산 또는 시도 예산에 따라 그 경비는 달라질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41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년 8월 현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IV-2>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2015년 8월 현재)

구분	전수교육관 수	기·예능			재원			입주종목	
		예능	기능	복합	국비	국비+지방비	지방비	국가지정	사·도 지정
개수	136	95	32	9	1	102	33	95	152

자료: 문화재청 홈페이지 자료.

1974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전국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건립 운영되고 있다. 단체종목을 중심으로 건립되기 시작해 연차적으로 개인종목까지 확대되어갔다⁵⁶⁾.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에 관련하여

5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를 참조바람.

서는 「문화재보호법」 제41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1조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관한 사항에서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도지정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한 문화재관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문화재관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해있다.

제주 무형문화재는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5개, 도지정무형문화재 20개 등 총 25개인데, 2015년 현재 제주지역 내 무형문화재 관련 전수관은 2012년 건립된 구억마을 전통옹기 전수관(구억마을 소속, 마을부지에 국비 5억 원 소요)을 포함해 7개가 있으며, 칠머리당 영등굿 전수관(10억 원) 건립이 계획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전승 공간인 전수교육관의 설립과 전승환경은 지정종목마다 달라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전수자들은 불만이 있는 상태이다⁵⁷⁾.

(4) 제주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1조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관련 조항을 보면,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을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그 보유 기능과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해야 하고,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전수교육을 받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전수교육과 장학금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나 보유단체의 전승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제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2000년 지정 당시에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을 보유자에게 월 50만원 보유자 후보에게 25만원,

57) 무형문화재도 인기종목과 비인기 종목에 따른 전수환경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예산배정이 몇몇 무형문화재에만 쏠리면서 전수환경에 있어 규모의 차이가 있다(<제민일보> 2015년 6월 28일자). 예를 들어, 칠머리 영등굿의 경우 제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관에 입주해 전승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2015년 다시 예산을 배정해 전용 공간을 건립하는가하면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7호 진사대 소리는 연습실조차 없어 기능보유자의 자택에서 연습하는 실정이다.

조교 15만원, 전수장학생 10만원으로 차등지급하였으나 2001년에는 일부 수정되어 기능보유자에게는 월 60만원, 보유자 후보는 30만원, 조교는 20만원, 그리고 전수장학생 15만원의 전승지원금이 지원되었다.

전승지원금에 대해서는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행정당국에서는 무형문화재가 지닌 가치 차원에서 지급하지만 지원 받는 입장에서는 생계비로 해석해 전승지원금의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무형문화의 전승이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고 전승지원금을 무형문화 전승이라기보다는 생계비로 보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무형문화재는 물가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전승지원금과 공개행사비, 전시·전수관 등 개관시설 및 유지·보수비가 전부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재는 원형 보존과 전통 계승의 의미를 살리기보다는 단순한 ‘불거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기능보유자 상당수가 고령인데다 전승 후계자 양성이 어려운 데는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기능’에 대한 평가절하, 그리고 전승지원금에 대한 극명한 시각 차이 등 문제가 존재한다.

2015년 현재 제주는 기능보유자에게는 매월 80만원, 보유단체에게는 100만원, 전수교육조교에게는 30만원, 그리고 전수장학생에게는 2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외에 매년 열리는 탐라문화재 무형문화재 시연 보조금으로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예능과 기능, 의식으로 나눠 15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종목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다.

2. 국내 전통옹기 전승·보존 사례 연구

대체로 옹기 생산은 수요에 따라 많은 노동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옹기를 만드는 사람(도공), 불 때는 사람(불대장), 잡일을 하는 사람(건아꾼⁵⁸⁾), 판매 일을 하는 사람 등으로 분업화되어있었다. 이러한 일은 가족구성원, 특히 여성 또는 마을 단위의 노동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자연스럽게 가족이 대물림하는 계승이 이루어지며, 여성은 옹기판매

58) 제주옹기 제작에서 ‘건아꾼’을 경기지역 등에서는 ‘건아꾼’이라고 한다.

에 참여하였다. 경기지역 등에서 옹기는 이러한 과정이 일반적인데, ‘오부자옹기’도 이에 속한다. 옹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은 도공들이 나오게 되고, 옹기 제작과정과 수요 증가로 인한 인력 수급을 위해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되게 된다. 특히, 흙과 땀감 등이 중요하면서 산비탈 경사진 곳 주변에 옹기 흙이 있는 경우 자연스럽게 옹기마을이 형성되었고, 강이나 해안을 끼고 있어 물길이 근접해 있는 지역은 운송이 쉬워 옹기 생산지의 최적의 환경이 되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옹기 생산지가 된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 오부자옹기, 울산 외고산옹기마을, 전남 강진의 칠량옹기 등을 들 수 있다(이영자, 2006: 36-37). 여기서는 무형문화재 옹기장 지정이 가계계승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표 사례인 ‘오부자옹기’와 무형문화재 옹기장 지정이 단체 지정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표 사례인 ‘외고산옹기’를 중심으로 타 지역 옹기 전승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옹기제작의 공정별로 옹기장이 지정되는 제주옹기의 전승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 오부자옹기 사례

오부자옹기는 무형문화재 옹기장 지정이 가계계승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예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옹기장 김일만 씨는 2000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7호 옹기장이자 2012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김씨 가족은 5대조 조부 때부터 전통옹기일을 해왔으며, 경기도 여주에서 8대째 전통옹기를 빚어오고 있다. 흙을 고르는 일에서부터 반죽하고 두드리고 패고 깎고 비비고 물레질하고 구워내는 옹기제작 전 과정을 손작업으로 한다.

오부자옹기의 경우를 보면, 옹기장은 기본적으로 옹기제작 전 과정을 담당한다⁵⁹⁾. 김일만 씨는 15살 나이에 점토를 물에 풀어 이물질을 걸러내는

59) 이 점에서 오부자옹기 경우는 옹기제작 각 공정별로 분업방식이 전형인 제주옹기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주옹기 제작이 공정별로 분업하는 것이 전형이 된 것은 원래 자가 수요를 위해 옹기제작을 했다가 제주 전역에서 옹기 수요가 많아지면서 다량의 옹기를 공급해야 상황에서 옹기제작 공정별 분업화가 촉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고했거나 고령의 1대 제주옹기 기능인들 중에는 옹기제작 전 공정이 가능한 경우도 많았다(1대 기능인들과의 심층면접결과 종합). 제주옹기와 달리 경기지역 옹기는 자가 수요보다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수요에 부응해야 했다.

수비꾼, 16살에 밖에 있는 흙에 물을 뿌린 후 작업장에 들이는 생질꾼, 17살에는 옹기를 건조하거나 유약을 입히는 건아꾼(건애꾼)으로 일했고, 18살이 되어서야 경기도 여주에 와서 비로소 물레질을 본격적으로 배워서 옹기를 만들거나 굽는 대장으로 인정받았다. 대장의 일을 배우는 동안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옹기점 주인이 시키는 온갖 허드렛일을 해주어야 했는데, 품삯도 받지 못하면서 물레질을 배우는 것은 당시 옹기점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조선닷컴> 2014년 4월 25일자).

오부자옹기 작업장에는 가마 3기 있는데 이 중 대포가마⁶⁰⁾는 2002년 11월 경기민속자료 제11호로 지정되었다. 가마 길이는 25-30m에 달하며, 한 가마에는 300여 개의 옹기를 채울 수 있다. 오부자옹기 작업장에서는 봄과 가을에 2회 1년에 4차례정도 가마의 불을 지피는데 가마에서 구워 나온 옹기의 회수량은 50% 정도이다.



[사진 IV-1] 경기민속자료 제11호 전통옹기가마(사진 제공: 여주군)

60) 김씨에 의하면, 이 가마는 150-200년 정도 된 것이며, 가마 근처는 예전에 이포나루라는 수로가 개통되어 이곳에서 생산된 옹기를 서울로 직접 배달할 수 있어 호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나루가 발달했던 시절에 나루를 이용해 물건을 운송하고자 근처에 도공들이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데일리안> 2010년 3월 25일자).



[사진 IV-2] 오부자옹기 작업장 옹기(사진 제공: 여주군)

옹기제작 전 과정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오부자옹기 제작에 사용되는 흙은 전라도 무안과 경상도 의성에서 사오며, 전라도 흙과 경상도 흙을 섞어 분쇄, 이물질 제거, 숙성시킨 후 진공토련기에 넣어야만 옹기를 구울 수 있는 흙이 된다⁶¹⁾. 땔감은 적절한 크기의 소나무만 사용되는데 강원도에서 50%, 나머지 50%는 여주 인근 야산에서 직접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주에서 대정읍지역이 제주옹기 생산지로 발달하게 된 것도 자연환경의 특성 상 흙과 땔감을 쉽게 수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오부자옹기의 전승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현재 제96호 중요무형문화재 옹기장 보유자는 김일만 씨가 2012년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수자 중 5년 이상 전승경력 소유자가 전수교육조교로 지정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일만 씨의 전수교육조교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수자로는 김일만 씨의 아들 김씨 1, 김씨 2, 김씨 3 등 3인이고 전수장학생은 손자 김씨 4, 김씨 5, 정씨 등 3인이다. 전승지원금은 기능보유자는 매

61) 전라도 흙은 평야지역의 점토로서 점력이 좋으나 불에는 약하고, 경상도 흙은 산에서 나오는 흙으로 점력은 약간 떨어지나 가마의 뜨거운 온도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두 지역의 흙을 섞어 사용해야 한다 (〈데일리안〉 2010년 3월 25일자; 〈조선닷컴〉 2014년 4월 25일자).

달 167만원, 전수장학생은 26만원을 지원 받지만 이수자는 지원금이 없다. 1년 1회 3일간 공개시연을 하고 있다(김일만 씨의 전수장학생 김씨 4와의 심층면접결과, 심층면접일자 2015년 12월 16일자).

2) 외고산옹기 사례

울산광역시 외고산옹기는 무형문화재 옹기장 지정을 보유단체, 즉 외고산옹기협회로 지정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009년 2월 5일 울산광역시는 외고산옹기협회의 8인의 장인들에게 ‘옹기장’이라는 칭호로 무형문화재 4호로 지정했다. 30-50년 이상의 옹기제작 경력을 지닌 서종태, 최상일, 조희만, 장성우, 허진규, 신일성, 배영화, 진삼용 씨 등 8인은 외고산옹기협회 회원⁶²⁾이다.

이들은 모두 전통기법의 옹기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가마의 활용빈도, 옹기제작 기술의 완성도, 현실적인 기술 전승을 인정받아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들 장인은 각각 도예업에 종사하면서 전통옹기를 제작하며 외고산지역을 기반으로 기술 전승을 해나가고 있다. 이들이 단체로 지정될 수 있었던 요인 중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점은 이 지역이 전국 최대의 민속옹기마을이라는 점이었다.

1950년 이전 외고산 민속옹기마을은 30여 가구가 남짓한 한적한 마을이었다. 이 지역에서 언제부터 옹기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구전에 의하면 지금은 사라진 남창 태화동 부근에 1910년 이전까지 옹기굴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그 이전에도 옹기를 제작했던 지역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곳이 전통옹기제작이 집산지가 되었던 역사적 배경에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부산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면서 옹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영덕에서 옹기업을 하고 있던 옹기장 허덕만 씨가 부산에 가까운 지역을 찾다가 이 마을에 정착하여 가마를 짓고 옹기

62) 현재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4호인 외고산옹기협회 회원들은 외고산 민속옹기마을 옹기 장인과 도공들의 후예이며 8인 각자가 도예업에 종사하면서 전통옹기제작과 그 전승을 이어오고 있다. 경남요업 서종태, 영남요업 최상일, 성창요업 조희만, 가야신라토기 장성우, 옹기골도에 허진규, 일성토기 신일성, 영화요업 배영화, 금천토기 진삼용이 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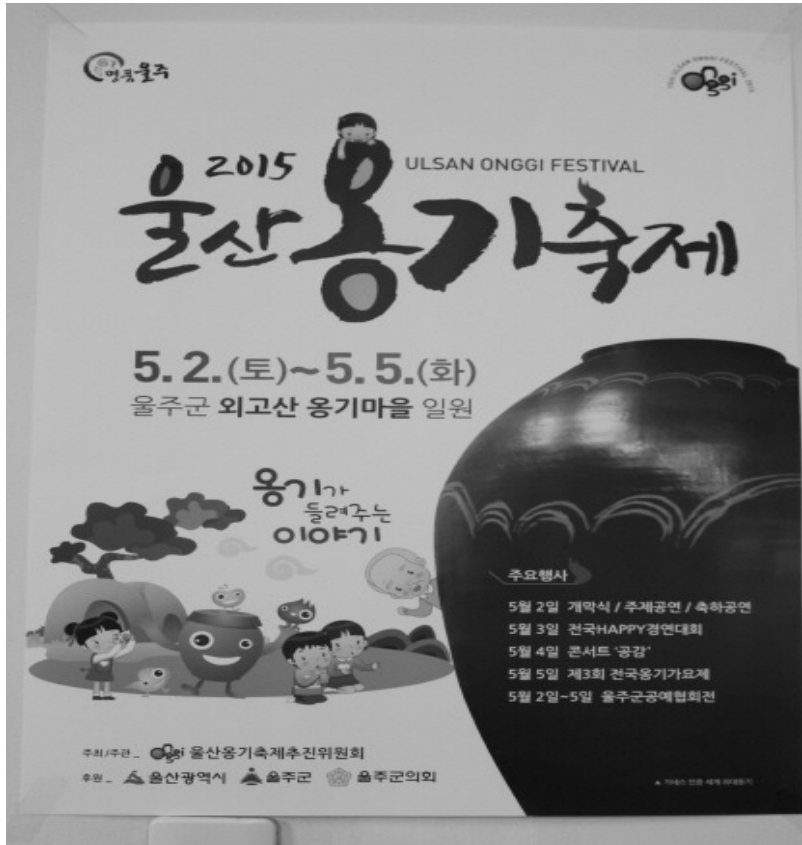
를 제작하였다. 1960-70년대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350여명의 옹기 장인과 도공들이 모여 작업하며 전성기를 이루었다. 옹기마을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허덕만 씨가 작고한 후 그 제자들이 이곳에서 옹기업을 시작하면서 옹기마을이 형성되어갔고 그 결과 한국 최초의 외고산 민속옹기마을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외고산옹기 제작과정은 물레 위에서 옹기박닥을 작업하는 바탕(바닥)작업, 옹기형상으로 흙을 쌓아올리는 타름질, 부채와 조막 도구를 이용해 옹기면을 다듬고 넓히는 부채(수레)질, 근개라는 도구를 이용해 그릇 벽의 두께를 일정하게 하고 표면을 고르게 만드는 근개질, 옹기의 주둥이 부분을 마름하는 전잡기, 들보를 이용해 기물을 조심스레 들어내는 들어내기, 말리기, 말린 옹기를 잣물을 입히고 문양을 그려 넣는 잣물치기, 가마 속 옹기 재이기, 불 때기, 그리고 흙가마에서 잘 구워진 옹기를 꺼내는 옹기내기 등으로 구성된다⁶³⁾.



[사진 IV-3] 외고산옹기마을(사진 제공: 류재복)

63) 외고산옹기 제작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고산옹기마을 홈페이지를 참조바람.



[사진 IV-4] 2015년 울산옹기축제(사진 제공: 류재복)

외고산옹기협회 전승체계와 현황을 살펴보면, 외고산옹기협회 회원들은 2011년 준공된 옹기회관에 입주해 전시 및 판매를 했으나 2015년 현재는 각자의 요업장에서 옹기제작 및 전승활동을 한다. 아직 전수교육조교는 없고 한 작업장에 1인 정도 전수장학생이 있으며 전수장학생은 전체 7-8인 정도이다.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관련 보조금은 1년에 5,300만원 지원받고 있다. 이 보조금은 연 1회의 공개 행사와 전시 및 타 지역 시연과 홍보 행사를 위해 사용한다. 보조금의 재원은 울산광역시이고 예산 집행은 울주군에서 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울산옹기축제’에는 무형문화재 자격으로가 아니라 외고산옹기협회 회원으로 시연과 전시를 하는 것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외고산옹기협회 관계자와의 심층면접결과).

3. ‘제주도 옹기장’ 전승체계

1) 제주도 허벅장의 지정과 해제

제주옹기에 대한 관심은 대정읍 제주도예원을 중심으로 가마와 전통옹기 복원과 재현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제주도예원은 제주전통가마를 재현하고 전통옹기 제작 관련 성과들을 전시회를 통해 발표하면서 전통옹기의 가치를 재인식시키고자 하였고 제주전통도예학회를 구성해 제주옹기에 대한 학술적 역사적 가치들을 재조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1년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허벅장 지정을 받게 된다. 처음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는 전통옹기 제작과정 중 도공장 분야만 인정되어 제주도 허벅장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질대장, 도공장, 불대장, 굴대장이라는 4개 분야 협업체제라는 제주 전통옹기 제작과정의 특성이 인정되어 2011년 제주도 허벅장에서 제주도 옹기장으로 전승체계가 바뀌게 된다.

2001년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허벅장 시기의 전통옹기 전승체계를 정리하면 <표 IV-3>과 같다. 즉, 2011년 제주도 옹기장 체제 이전 전통옹기 전승체계는 제주도 허벅장 보유자 1인에 전수교육조교 없이 전수장학생으로 3인이 지정된 체계에서 2005년부터 보유자 1인에 전수교육조교 2인, 전수장학생 1인 체계로 전승체계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허벅장 전승체계

연도/분야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비고
2001	신창현	—	강씨, 허씨, 이씨	
2002	신창현	—	강씨, 허씨	이씨 (건강상 이유로 해제)
2003	신창현	—	강씨, 허씨	
2004	신창현	—	강씨, 허씨	
2005	신창현	강씨, 허씨	김씨	
2006	신창현	강씨, 허씨	김씨	
2007	신창현	강씨, 허씨	김씨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2007년까지 제주도 허벅장 보유자로 신창현 씨가 계속 유지되어왔고 2001년 지정 당시 전수장학생이었던 강씨와 허씨가 2005년 전수교육조교로 승격되고 김씨가 전수장학생으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 전수장학생이었던 이씨는 건강상 이유로 2002년 해제되었다.

이와 같이 무형문화재는 한번 지정되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자가 사망해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제될 수 있고, 전승자의 건강상 이유나 기량이 발전하지 않을 경우, 전승의 실적이나 태도가 불량할 경우, 그리고 새로운 입문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새롭게 지정 해제되기도 한다.

2001년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허벅장이 지정되면서 전통옹기 전승체계가 마련되게 되고 그 규정에 의해 전승지원금이 지급되었다. 당시 제주도 허벅장 보유자는 60만원, 전수교육조교는 20만원, 전수장학생은 15만원이 매월 지급되었고 매년 열리는 제주 탐라문화제에서 행사 시연비도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옹기 전승체계는 2008년 제주도 무형문화재 지원금 비리문제로 인해 운영되지 못하고 중단되게 된다. 즉 담당공무원은 처벌받았고 제주도 허벅장에 대한 전승지원금 중단은 물론 그 지정이 해제되게 된다⁶⁴⁾.

이같은 제주도 문화재행정 비리 문제는 제주도 무형문화재 관련 정책의 문제를 보여준 사건이었고, 이후 제주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근거 마련의 계기가 되었다.

2) 제주도 옹기장의 지정과 전승체계 변화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허벅장 지정이 해제된 후 제주도 허벅장 전수교육조교와 전수장학생 일부가 대정읍 신평리 ‘껌은돌’ 작업장을 중심으로 전통옹기 복원활동을 재개하게 되고, 1대 기능인들이 모임면서

64) 이것은 2008년 8월 한 도예원 대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제주도 행정당국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주도 허벅장의 문화재 전승시연 지원금으로 시연행사 때마다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1회 당 200만 원 정도의 정상 규모 지원금에 수백만 원씩 더 보태어 지급했다가 나머지 차액을 관계 공무원이 되찾아갔다는 제주도 문화재행정 비리를 한 도예원 대표가 폭로한 사건이었다(<제주의 소리> 2008년 8월 29일자)

2008년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들 중심으로 노랑굴이 복원되고 여기에 제주도 행정당국의 제주옹기에 대한 무형문화재 재지정 의지가 결합되면서 2011년 제주옹기는 새로운 전승체계 하에서 소생의 길을 가게 된다. 이때 새로운 전승체계는 기존 무형문화재 제주도 허벅장 명칭 대신 제주도 옹기장으로 바꾸고 제주도 옹기장 내에 질대장, 도공장, 불대장, 굴대장 등 보유자를 세분화한 체제, 즉 제주옹기 제작 분야별 지정을 통한 전승체계를 말한다.

2011년 지정된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은 전통옹기 제작과정을 분야별로 보유자를 지정함으로써 제주옹기 제작의 분업방식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여 제주도 옹기장 질대장 이운옥, 도공장 신창현·고원수, 불대장 강신원, 굴대장 고신길 씨로 보유자가 지정되게 된다.

〈표 IV-4〉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분야별 지정현황

연도/분야	질대장	도공장	불대장	굴대장	비고
2011	이운옥	신창현 고원수(작고)	강신원(작고)	고신길(작고)	
2012	이운옥	신창현 고원수(작고)	강신원(작고)	—	
2013	이운옥	신창현 고원수(작고)	강신원(작고)	—	
2014	이운옥	부창래, 신창현	—	김정근	
2015	이운옥	부창래, 신창현	—	김정근	

그러나 2011년 지정된 제주도 옹기장들 기능 보유자들은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지정 후 얼마 되지 않아 2011년 굴대장 고신길 씨, 2013년 도공장 고원수와 불대장 강신원 씨가 작고했다. 2014년 5월 새로운 제주도 옹기장 도공장으로 1대 기능인 부창래, 굴대장으로 2대 김정근 씨를 지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5년 현재 제주도 옹기장 전승체계를 정리하면 〈표 IV-5〉와 같다.

〈표 IV-5〉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전승체계

지정번호 및 문화재명	인정 구분	성명	분야
제14호 제주도옹기장	보유자	신창현	도공장
	보유자	이윤옥	질대장
	보유자	김정근	굴대장
	보유자	부창래	도공장
	전수교육조교	백씨	도공장 (건강상 이유로 활동 없음)
	전수교육조교	강씨	도공장
	전수교육조교	고씨 1	불대장
	전수교육조교	허씨	도공장
	전수장학생	김씨 1	(건강상 이유로 활동 없음)
	전수장학생	문씨	도공장, 질대장, 불대장, 굴대장 등 전 분야에 대한 전수교육
	전수장학생	김씨 2	
	전수장학생	고씨 2	
	전수장학생	고씨 3	
	전수장학생	강씨	
계		14인	

〈표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유자 4인, 전수교육조교 4인, 전수장학생 6인으로 다른 제주도 무형문화재에 비해 많은 인원의 전승체계를 갖고 있으며, 제주도 옹기장 불대장은 강신원 씨 작고 후 새로운 보유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이다⁶⁵⁾. 전수교육조교는 도공장 3인과 불대장 1인, 그리고 전수장학생은 6인이 지정되어 있다. 2015년 지정된 6인의 전수장학생은 전통옹기 전승 분야별 전승을 위해 지정된 것이 아니라 전통옹기 제작 전반을 이해하고 그 기능들을 익히는 것으로 제주옹기 전승체계의 방향이 잡히면서 네 분야에 대한 구분 지정 없이 일괄 지정되었다. 전수장학생들에게

65) 이와 관련해 무형문화재 14호 제주도 옹기장 불대장으로 있다가 작고한 1대 강신원 씨와 마찬가지로 1대 불대장이었던 고달순 씨는 현재 무형문화재 제주도 옹기장 전수교육조교로 있는 상황이다.

는 굴의 축조, 흙을 다루는 기술, 기물성형, 가마 불 넣기, 굴의 축조방법 등 전 과정을 배우고 익히는 방향에서 전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관계자와의 심층면접결과). 이렇게 된다면, 향후 제주옹기 전승은 가족 전승체계로 갈 가능성이 있다⁶⁶⁾.

현재 제주도 옹기장 전승지원금이 보유자에게는 80만원, 전수교육조교에게는 30만원, 전수장학생에게는 20만원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 제주 탐라문화제 시연 행사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제주옹기 전승을 위한 비용으로는 부족한 편이다. 만약 원재료인 흙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흙 값뿐 아니라 포클레인, 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하는 일만해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지출되며, 흙을 구하기도 어렵다. 현재 대정읍 무릉리에서는 좋은 흙을 찾기 어렵고 대정읍 신평리와 구억리조차 옹기 흙이 다소 남아 있는 정도이다(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및 1대 기능인들과의 심층면접결과). 이와 관련해, 제주도 행정당국 관계자는 옹기 흙과 땀값 지원방안을 강구중이다(제주도 행정당국 관계자와법 심층면접결과). 또한 무형문화제 전승지원금 지원방법의 문제가 있다. 현재와 같이 전승지원금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방법 이외에 전승활동에 대한 지원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즉, 옹기 제작을 위한 원재료의 공급은 물론 전승자의 시연과 전시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 그리고 전수교육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으로 지원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관계자와 1대 기능인들과의 심층면접결과).

3) 제주도 옹기장 전승교육과 전수교육관

무형문화제 제주도 옹기장 전승교육은 4단계의 교육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질대장의 전수는 흙에 관련된 모든 총괄자로 흙을 찾는 일, 흙을 채취하는 일. 흙을 잘 이겨 옹기를 만들기 좋게 토립판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도공장의 기물에 맞게 예를 들어 검은굴 작업인지 노랑굴 작업인지를 파악하고 그 종류가 허벅인지, 합단지인지, 대항인지 등을 파악하여 흙의 성질과 두께를 정하여 제공하는 일, 그리고 도공의 만든 완성된 기물의 보

66) 현재 전수장학생에는 기능보유자와 2대 전수자의 직계 또는 친인척이 활동하고 있고, 전수장학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전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관과 건조 과정까지를 전승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도공장은 질대장이 마련해준 흙을 통하여 기물을 만들어간다. 제주 전통옹기는 그 형태도 다양하며 종류도 많다. 능생이, 허벅, 대항, 고소리 등 각각의 기물들의 특징과 형태를 잘 구현해야 한다. 기능 보유자의 전수는 주로 기능자의 물레작업을 지켜 본 후 전수자가 따라 해보고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제주전통옹기 보유자들은 특징이 있었는데 하루의 마지막 작업은 물레에서 절대 내려놓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물레 자리에 대한 기능장의 프라이드이자 일종의 권위의 상징이었다. 다음날 일 시작 전 완성된 기물을 옮겼다. 그리고 지금은 공개 시연 때인 경우 기능인과 나란히 앉아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전승의 공간에서 나란히 앉아 전수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전수자는 자신이 여러 번 기물을 만들어 본 이후에야 비로소 보유자에게 잘 안 되는 부분을 물어 볼 수 있다. 그러면 보유자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바로잡아주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된다고 한다. 옹기의 성형과정은 단순하고 쉬운 기물에서부터 점차 복잡하고 어려운 기물의 성형으로 단계를 밟아간다. 그래서 제주 전통옹기의 다양한 종류의 습득, 특성을 익히는 기술을 전수한다.

셋째, 불대장의 전수는 땀감을 고르는 일에서부터 나르기 쌓기까지, 불을 관리하고 살피는 법, 그리고 불때기의 도구들을 사용하는 법, 그리고 굴재임을 하는 일을 총괄하여 전수한다. 보통 가마위에 구멍이 있는데 이것을 일러 ‘독새기구멍’이라 한다. 그 구멍에 준하여 굴 안에 항아리를 재임한다. 옹기 재임 수량은 독새기구멍 수, 즉 가마 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보통 12개의 독새기구멍이 있는 굴인 경우 1줄에 10-12개 정도 쌓게 되며 30-33줄을 재임할 수 있고, 이 경우 크고 작은 옹기 약 400개 정도가 재워지는 셈이다. 불대장은 옹기 재임을 잘해야 불도 잘 잡을 수 있고 옹기가 잘 구워져 나오기 때문에 이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불의 조절이나 옹기의 건조 상태, 재임의 위치, 바람 방향에 따라 그 방법이 일정치 않으니 다양한 경험만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굴대장은 옹기제작의 전반 과정을 관장하는 자이며 제주옹기 제작이 주로 계를 구성하여 제작하였기에 계원들의 관리, 굴 축조, 구워진 옹기들을 관리하는 자였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능은 축소되어 굴축조에 대한

지식이 우선되고 있다. 따라서 누구보다 우선 제주전통가마라 할 수 있는 노랑굴과 검은굴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여 적당한 장소에 잘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 돌의 성질과 흙에 대한 남다른 안목이 요구되고 지형에 대한 지식, 불의 성질까지 파악하는 등, 옹기제작 전 과정을 이해하여 총괄할 수 있는 기능장으로서의 자질 양성에 중점을 두어 전수한다.

한편, 제주전통옹기 전수교육관에 대한 논의는 2008년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와 대정읍 구억리 옹기배움터가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2010년 제주옹기박물관이 건립되면서 본격화되었고, 이것은 제주시지정 기념물 제58호인 제주도 도요지와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4호인 제주도 옹기장의 전승을 위해 필요하다는 대정읍 구억리 마을회의 제안으로 2012년 12월 구억리에 건립되었다(제주도 행정당국 관계자와의 심층면접결과). 5045㎡ 규모의 부지에 5억 원을 들여 전통옹기 기술 전수관과 체험관, 돌가마 2기, 건조장을 신축하였으나 돌가마 2기는 전문가 고증 없이 축조되어 사용할 수 없는 전시용으로 전락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구억마을 전통옹기전수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한 채 방치되다가 2015년부터 대정읍 구억리 출신 제주도 옹기장 굴대장 보유자 김정근 씨가 관여하면서, 정부의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구억리 제주옹기마을만들기 사업이 선정되면서 옹기전수관은 활용될 수 있게 된다. 2015년 하반기부터 구억마을 주민 대상으로 매주 일요일 저녁에 제주옹기 체험과 전수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그 대상을 전체 제주지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대정읍 구억리 마을 관계자와의 심층면접결과).

2015년 현재 제주옹기의 전승활동은 마을 단위에서는 제주옹기마을 만들기로 정부의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선정된 대정읍 구억리와 1:2대 제주도 옹기장 보유자와 기능인들이 관여하고 있는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와 그 작업장이 있는 대정읍 무릉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는 1대와 2대 제주도 옹기장 보유자와 전승교육조교 및 전수장학생 등을 주축으로 전통옹기 전승과 보존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작업장이 있는 무릉리는 노랑굴과 검은굴이 복원되어 있고 2012년부터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를 중심으로 제주옹기축제인 제주옹기굴제 개최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지역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한국사회에서는 과거 시대의 건물들과 생산관련 시설들을 사회의 역사·문화적 자산으로 인식되어 근대 문화유산의 복원과 활용이 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사업으로 부각되었다. 지역재생과 지역문화관광산업에서 근대 산업문화유산을 지역의 상징물이나 새로운 산업 창조의 거점 또는 지역 활성화와 지역산업 재창조의 자원으로 인식하게 되고, 소멸하거나 버려진 과거 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더 나아가 보존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 재생과 연계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었다(염미경, 2010). 제주에서의 전통 옹기의 복원과 보존 및 전승 노력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제주옹기에 대한 기록자료의 생산과 정리를 중심으로 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제주학의 기초자료 축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는 제주의 환경과 생활에 밀착되어 지역민과 함께 해왔던 제주 전통옹기가 제주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보유자와 1대 기능인들에 대한 생애사를 구술과 영상으로 기록함으로써 제주옹기에 대한 인문학적·사회과학적 연구의 활성화와 이론화, 그리고 제주옹기의 복원과 전승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 시도로 수행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전통옹기를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일정한 전승체계를 갖추고 있는 타 지역 사례, 즉 가계전승체계를 가진 경기도의 오부자옹기와 보유단체 지정방식의 전승체계를 가진 울산의 외고산옹기마을 사례 연구와 함께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로서 제주옹기의 보존·전승정책과 전승체계를 정리해냄으로써 제주 전통옹기 전승체계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5년 현재 제주전통옹기 전승활동은 마을 단위에서는 제주옹기마을 만들기로 정부의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선정된 대정읍 구억리와 1대와 2대 제주도 옹기장 보유자와 기능인들이 관여하고 있는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

회와 그 작업장이 있는 대정읍 무릉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작업장이 있는 무릉리는 노랑굴과 검은굴이 복원되어 있고 2012년부터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를 중심으로 제주옹기축제인 제주옹기굴제 개최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시점에서 볼 때 향후 제주도 옹기장 전승체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의 공동분업 전승체계에서 옹기제작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기능인 육성으로 제주옹기의 전승 방향이 설정되어 있음을 이 연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체 중심의 전승체계가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제주도 옹기장 전승체계의 특징이라고 할 때 경기도 오부자옹기 경우처럼 가계전승방법으로 가는 것보다 울산 외고산옹기 경우처럼 보유단체 지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제주 전통옹기의 전승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 연구의 결론을 대신한다.

첫째, 무형문화재 지정도 중요하지만 전승과정이 더욱 중요하고 전승체계를 바로 세워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지지 않게 유지·보전해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 실행하고 있고, 전통옹기와 같은 제주의 무형문화유산은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제도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고 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의 지정도 중요하지만 전승과정이 더욱 중요하고 전승체계를 바로 세워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지지 않게 유지·보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주전통옹기 제작기술이 경제, 문화, 사회와 한 덩어리로 융합된 산물인 것처럼 제주옹기의 복원과 전승도 민관협력 하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주옹기를 비롯한 지역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하며 그 지원 방안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전승체계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2015년 현재 제주도 옹기장 전수장학생은 6인이 지정되어 있는데, 기능 보유자-전수교육조교-전수장학생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를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옹기장 보유자들의 고령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 상황에서 2대 기능인이 무형문화재 제주도 옹기장 굴대장으로 지정된 것 자체는 고무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1대 기능인 중에 전승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수교육조교로 있는 경우를 이 연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대 기능인은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기능인 못지않게 그 자체로 상징성을 갖고 있고, 1대 기능인의 오랜 경험과 지식 및 기술은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2011년 변화된 제주도 옹기장 전승체계 하에서 지정된 제주도 옹기장 보유자 심사 절차와 기준의 일관성 있는 적용이 1대 기능인이 생존해 있는 동안만이라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수교육조교가 적극적으로 전승활동을 하는 경우 기능보유자로 승급시키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전수자가 기능보유자의 기능 전수를 넘어서 무형문화재가 갖고 있는 예술정신과 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터득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승자로서 올바른 인식 정립을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임재해, 1999: 199).

둘째,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형문화 전수교육을 위해 설립한 전수교육관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전수교육관은 국비나 지방비로 충당되어 건립되었기에 공공장소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무형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민들과의 교류의 장을 만드는 방법, 전수관에서 전승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기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즉 전수교육관을 복합문화센터로 활용하는 사업, 그리고 전수교육원이 평생학습관, 향토문화관, 지역박물관, 홍보전시관, 문화상품관, 체험연계사업, 체험학습장 등을 아우르는 공간(최종호, 2009: 5)으로 거듭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존 제주옹기 가마터 등 제주옹기 관련 유적지 보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옹기장 보유자와 1대 기능인이 동행해 남아있는 대정읍지역 가마터와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된 가마들을 영상으로 기록하였는데, 이들 유적지에 대한 보존·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대 기능인들이 아직 생존해 있는 동안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보존·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제주에서 전통옹기 복원노력을 해온 민간단체들 간 일정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제주전통옹기의 전승과 보존도 중요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또 다른 길로서 전통의 발명, 즉 제주옹기의 현대적 계승과 예술적 승화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 가능하고 상호 간 시너지 효과

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연구의 조사과정에서 제주옹기는 전통옹기의 복원과 보존노력을 해온 한 축으로 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를, 전통옹기의 현대화와 예술적 승화노력을 해온 또 다른 축으로 제주옹기문화연구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전통옹기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간의 일정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재로서 제주도 옹기장 보유자와 기능인들의 생애와 전승활동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생존해있는 구술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구술자료는 구술자의 생물학적 노화 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구술자가 처한 위치 변화와 사회·정치·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대 제주전통옹기 기능인들이 작고하거나 고령인 현 시점에서 이들의 생애사를 기록하는 작업은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본 연구팀의 연구책임자가 2008년 제주옹기 1대 기능인들의 생애사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와 2011년 제주옹기가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제주도 옹기장으로 지정된 이후 기능보유자와 1대 기능인들의 자신의 생애를 구술하는 방식이나 태도에서 변화가 있었음을 이 연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주옹기를 비롯해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기능인들의 생애와 전승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기록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물 이외에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보유자와 1대 기능인들에 대한 영상·구술자료 ‘제주전통옹기 기능보유자와 1대 기능인들의 삶’이라는 생애사자료를 별도 자료로 생산하였고, 2015년 제5회 제주옹기굴제 과정과 제주도 옹기장 보유자와 기능인들의 활동과정을 영상에 담았다. 제주옹기 제작에 몸담아왔던 1대 기능인들의 삶을 그들의 경험과 기억을 중심으로 담아낸다는 것은 제주옹기에 대한 지역의 생활문화사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1대 제주옹기 기능인들이 작고하거나 고령이 된 현 시점에서 이들의 삶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업은 매우 시급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일정한 의미를 갖고 있다. 더욱이 이 연구를 통해 부가적으로 수집된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 제주도 옹기장 보유자와 1대 기능인들의 삶을 담은 영상·구술자

료는 제주학 기초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이해교육을 위한 자료 또는 지역학습자료로서, 그리고 제주옹기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생생한 자료로서 박물관 전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결과가 제주옹기를 제주의 문화유산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 제주옹기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특징과 지역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알려 이를 토대로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 제주지역의 문화적 이미지를 높이고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참고문헌

정기간행 학술지와 학위논문

- 권병탁(1969), “이조 말기의 농촌직물 수공업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김경자(1998), “옹기공방의 현황 및 유통에 관한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미영(1983), “제주도 허벅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영문(1979), “옹기 문양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은석(1991), “제주도 옹기가마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고찰: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일대를 중심으로”, 『제주도교육대학논문집』, pp. 21-41.
- 김정선(2010), “제주도 옹기가마의 구조와 연원”, 『탐라문화』, 37호, pp. 353-393.
- 류재만(2010), “옹기 이해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6(2), pp. 45-62.
- 박양춘·이철우·박순호(1995), “우리나라 재래공업 산지의 사회적 분업”, 『대한지리학회지』, 30(3), pp. 269-295.
- 박찬석(1976), “전통공업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집』, 6.7, pp. 43-70.
- 배영동(2014), “수제(手製) 전통의 산업적 성격 전환 과정: 울산 외고산마을 옹기의 사례”, 『한국민속학』, 59, pp. 31-64.
- 송준(2009), “한국 무형문화재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고려대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신명호(2009),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 pp. 11-46.
- 신혜란(1998), “태백, 부산, 광주의 장소마케팅 전략 형성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양재심(1987), “제주도 옹기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양중식(1983), “한국근대 옹기공방의 실태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염미경(2003), “지방산업도시 성장정책의 현재와 미래”, 『경제와 사회』, 60, pp. 67-100.

- 염미경(2010), “근대 산업유산의 활용과 지역활성화”, 『지역사회학』, 12(1), pp. 159-182.
- 염미경(2011), “제주옹기의 문화유산 만들기 과정과 이해갈등”, 『지역사회학』, 12(1), pp. 265-293.
- 오영심(2002), “제주도 전통사회의 옹기생산과 유통에 관한 연구: 대정읍 구억리를 중심으로”, 제주대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오창윤(2010), “제주옹기에 관한 연구: 제주 돌가마 축조와 옹기관광제품생산을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오창윤(2013), “제주옹기의 숙성실험과 옹기개발에 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4(1), pp. 299-307.
- 이경효(1998), “제주도 전래가마에 관한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동희(1984), “한국옹기의 지역별 특성”,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종창(1996), “옹기의 제작 기법에 관한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철우(1997), “안동 삼베 수공업산지의 생산유통체계와 지역문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pp. 135-154.
- 이청일(1985), “한국 전통수공업의 지리학적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임재해(1999), “새 전통을 겨냥한 문화재 정책 방향을 찾는다.”, 『실천민속학』, 1, pp. 197-210.
- 장미경(1982), “창녕산지공업의 입지”, 경북대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전석담(1946), “이조농민경제사,” 『이조사회경제사』, 조선과학자동맹 편찬, 勞農社, pp. 1-76.
- 조승현(1984), “광산군 본양면 완초공업의 존립형태와 지역구조”, 『전남대학교논문집』, 29, pp. 55-76.
- 조승현(1985), “신흥가내공업의 지역구성과 존립형태: 전남 해남군 황산면 옥연의 옥돌공예업을 중심으로”, 『용봉논총』, 15, pp. 1-20.
- 조승현(1992), “전남 삼베수공업의 존립형태와 지역구조의 변천: 전남 보성군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21, pp. 157-185.
- 조승현(2004), “광주·전남지역 재래공업의 지리학적 연구”, 성신여대 박사

학위논문(미간행).

진관훈(2007), “제주도 전통옹기의 생산과 유통.” 제주도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40주년 기념 ‘동아시아속의 제주도민속’ 국제학술대회, 2007년 5월 4일.

한홍렬(1989), “한국전통수공업의 지역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미간행).

형기주(1975), “한국공업입지의 전개과정(1)”, 『지리학』, 제13호.

형기주(1976), “한국 공업입지의 전개과정(2)”, 『지리학』, 제14호.

홍건표·전진석(2012),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에 관한연구“, 『정부와
정책』, 5(1), pp. 5-39.

이철우(1991), “農村地方農業に關する經濟地理學的研究”, 名古屋大學校
博士學位論文(미간행).

Griffith, R(1995), “Cultural strategies and new modes of urban intervention.”
Cities, 12(4).

Pfaffenberger(1992), “Social anthropology of techn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1.

단행본

강창언·이경효(2000), 『제주전통도예』, 제주: 가시아히출판사.

강창언(2006b), 『제주의 옹기』, 제주: 제주도돌문화공원.

김순자(2006), 『와치와 바치』, 제주: 각.

김원룡(1990), 『한국고미술의 이해』, 서울: 서울대출판부.

국립무형문화유산원(2015), 「처음만나는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임문편」,
서울: 국립문화유산유형원.

노도양(1969), 『15세기 조선의 산업에 대한 지리적 고찰』, 서울: 동아출판사.

엄형식(2008),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서울: 실업극복국민재
단(함께 일하는 사회).

염미경(2012), 『제주옹기와 사람들: 소멸과 재현의 지역사』, 서울: 선인.

오창윤(2010), 『제주문화 제주옹기』, 서울: 솔과학출판사

- 우락기(1965), 『제주도』, 서울: 한국지리연구소.
- 제주옹기문화연구회(2011), 『제주옹기 어제 오늘 그리고...』, 제주: 제주옹기문화연구회.
- 주희춘(2008), 『제주 고대항로를 추적한다』, 서울: 주류성출판사.

- 辻本芳郎(1978), 『日本の在來工業』, 東京: 大明社.
- 泉靖一(1966), 『濟州道』, 제주: 제주도
- Ashworth G.J. & Voogd H(1990), *Selling the City: Marketing approach in public sector urban planning*. London: Belhaven Press.
- Kearns G. & Philo, C. (1993). *Selling Places: The City as cultural capital, past and present*. Oxford: Pergamon Press.

보고서 및 간행물

- 강창언(1997), “제주도의 도요지”, 『제주도의 민속유적』, 제주: 제주도.
- 강창언(2002), “제주옹기와 제주도자기”, 『삶과 문화』, 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
- 강창언(2004), “석요: 남제주군을 중심으로.” 『남제주문화원』, 제1호, 제주: 남제주문화원.
- 강창언(2006a), “제주의 전통옹기”, 『제주발전포럼』, 통권18호(여름), 제주: 제주발전연구원.
- 서연호(2014), “〈무형문화유산법〉 제정을 위한 제언”,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설문대여성문화센터(2013), 『제주옹기, 여성의 삶을 담다 제16회 제주옹기 디자인협회전』, 제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이영자(2006), “옹기의 기능과 문화적 가치”, 『2009 울산옹기엑스포 개최를 위한 옹기가치의 현대적 재창조와 활성화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정상우(2014),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

회 자료집』,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주옹기디자인협회(2014), 『제주점토를 이용한 특별한 상품전 제16회 제주
옹기디자인협회전』, 제주: 제주옹기디자인협회.
최종호(2009),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과 실태조사 연구용역』, 한국문화재
정책학회.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국립무형문화유산원 홈페이지.
제주옹기 문화재 관련 글(가마실측조사) 사진-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제공.

Abstract

A Study on Revival, Transmission, and Cultural Heritage Making of Jeju Onggi

Mi-Gyeong Yeum · Hye-Lyeon Jang

The pro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cess of the traditional Jeju onggi industry which went off in Jeju area was revived as a cultural heritage in Jeju-do. In summary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evolution of Jeju onggi festival to review the cultural revival of Jeju traditional onggi. Second, Jeju onggi is to show the daily life of local people in that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life of Jeju residents. Therefore,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work of Jeju onggi was explored around a specific town, Gueok-ri village of Daejeong-eup, Jeju-do. Third,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Jeju traditional onggi festival as a onggi festival held annually since 2011. Fourth, we looked at the transmiss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conservation policies in the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level. Onggi Five Rich of Gyeonggi-do and Ulsan Oegosan village were treated in the stud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two cases, we looked to find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Jeju traditional onggi transmission systems.

To collect basic data on the process of becoming a cultural heritage that aims to capture the current state of the transmission system in Jeju onggi. And, this study examined a series of activities for making a cultural heritage of Jeju traditional onggi. The material used for an analysis in detail in addition to the document material used the interview material of depths with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persons concerned and the local self-governing body persons concerned who have made an effort for Jeju onggi' revival and interview material of emotional depths with the potters who stayed at the past onggi production.

The early revival process of the Jeju traditional onggi had been led by several private organizations of Jeju and had started almost no support of a local self-governing body. By the middle stage of 2000's restoration work of Jeju onggi was saying that it concentrated on arranging and telling the reproduction of Jeju

traditional onggi and its value through a traditional portable shrine's restoring mainly. This revival and succession efforts of Jeju onggi have constructed on making a cultural heritage of Jeju onggi and the cultural sightseeing commercializing dimension.

Next, we want a few suggestions based on our findings to improve the Jeju traditional onggi transmission system. First, it is important to specify the intangible cultural asset, but the process is more important traditions and upright system that tradition does not disappear precious heritage conservation should get to keep. Second, it should be provided a variety of ways to take advantage of the training center for transmission education activities of the holders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Third, the conservation plan for onggi remaining sites such as former kiln sites in the Jeju-do are needed. Fourth, the constant collaboration between private organizations who have built revival and transmission efforts of Jeju traditional onggi are needed. Lastly, the task of recording the life and transmission activities of Jeju-do onggijang as holder of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master craftsman first generation needs to be done.

Keyword : Jeju onggi, Making a cultural heritage, Jeju traditional onggi transmission and reservation group, Jeju onggi museum, Gueok-ri, Jeju-do

〈부록〉 제주옹기 기능보유자와 1대 기능인들의 생애사 기록양식

녹취록

제주전통옹기 기능보유자와 1대 기능인들의 삶

책임연구자: 염미경(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장)

개 요

주 제 : 제주전통옹기 기능보유자와 1대 기능인들의 삶
구 술 자 :
면 접 자 : 염미경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장)
촬영기록 : 윤나련 (제주대학교 사회교육전공 석사)
면접일자와 장소 :

* 연구사적 의의 : 제주전통옹기는 완전히 소멸되었다가 지역문화유산으로서 소생하는 과정을 거쳐 왔는데, 제주전통옹기의 성장과 쇠퇴 그리고 소생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형성 및 전통옹기의 지역적 전개와 소생 과정,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생활문화사를 담은 인문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기록은 그러한 시도의 하나이다. 과거 제주전통옹기 제작에 몸담았던 1대 기능인들이 고령으로 한분 두 분 돌아가시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도 옹기장 기능보유자와 1대 기능인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이 구술자료는 제주에서 전통옹기업의 형성과 전개과정 및 제작과정은 물론 전통옹기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되는 과정까지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생활문화사 연구와 관련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차 구술

1. 구술은 녹음·녹화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녹취록을 만든다.
(녹음·녹화한 테이프와 그 파일, 녹취록과 그 파일을 ‘구술자료’라고 통칭한다.)
2. 나는 구술자료에 대한 제반권리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 이양하며, 구술자료에 대한 복사·이용·출판에 대한 권리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와 공유한다.
3. 구술자료는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보존·관리하며,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는 사료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자체 규정에 따라 학술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

이름 : 성명 : 나이 : 성별 :

이 문 : (인)

생년월일 :

주소 :

구술자 신상카드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구 술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출 생 지	
	현 주 소	
	전화번호	
	참고사항	
주요활동	연 도	활 동 내 용

면접자 신상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면 접 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참고사항	

면접 일지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구 술 자			
면 접 자 (보조면접자)			
면담 일시 / 장소		일 시 (시간포함)	장 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산 출 물		mp3파일 영상파일	개 개
면접주제 (주 요 어)			
특기사항			

질문지

1. 출생과 가정

- 출생(언제, 출생지, 거주기간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부모님(출생지, 생활지, 직업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가족구성(형제자매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집안분위기와 가정형편은 어떠했습니까?

2. 성장기의 문화적 배경과 교육

- 성장지(위치, 규모, 주요 산업 등)는 어떤 곳입니까?
- 성장지에서 웅기업의 규모와 분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유년시절은 어떻게 보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학교(초등학교 등)는 어디를 다니셨고,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습니까?
- 학창시절 중 기억에 남는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제주4.3과 한국전쟁 중 학교와 마을 분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직업과 일: 웅기업 종사 경위와 전수, 웅기 제작, 그리고 웅기업의 쇠퇴

- 웅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동기는 무엇입니까?
- 웅기제작을 배울 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 웅기제작은 분업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웅기제작과정과 참여한 공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웅기제작과 관련된 모임이나 규칙이나 관습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웅기업이 가장 발전할 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 웅기업이 가장 발전할 때 웅기업(제작과 판매) 종사자들과 당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웅기업이 가장 발전했을 때 수입과 살림살이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제주4.3사건 당시 웅기제작이 중단되었는데, 그때의 마을 상황 및 일과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웅기업이 쇠퇴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고, 그때 웅기업에 종사했던 도공들은 어떤 직업으로 전업했는지 웅기업 쇠퇴 이후의 직업과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 전통옹기의 복원과 소생

- 최근 전통가마의 복원 등 제주옹기의 복원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복원작업을 해오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제주옹기의 복원작업에 참여하고 계시는지요?
- 제주옹기업을 복원하고 지역문화유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현재의 지역 내 복원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5. 결혼과 가족

- 결혼은 언제, 어떻게 하셨고 배우자의 출신지와 가정, 일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자녀들(학력, 직업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 제주전통옹기의 축제화와 문화유산화 과정

- 제주전통옹기의 전승 관련 단체들(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껌은돌, 제주도예촌 껌은돌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제주옹기박물관의 설립(대정읍 구억분교 터)과 이전(무릉리), 대정읍 구억리 소재 제주전통옹기 전수관과 체험관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201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제주옹기축제(제1회만 대정읍 신평리 제2회부터는 대정읍 무릉리 개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관여해오고 있습니까?
- 제주전통옹기 전승체계(기능보유자-전수교육조교-전수장학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제주전통옹기 전승체계와 전승활동에 대한 행정의 지원에 대한 평가와 제언

7. 회고와 전망

- 옹기업에 종사했던 것에 만족하십니까? 다시 태어나도 옹기업에 종사하시겠습니까?
- 옹기업에 종사하지 않으셨다면 어떠하셨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옹기업에 종사했던 시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고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였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전 생애를 돌아볼 때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 무엇이었습니까?
- 전 생애를 돌아볼 때 가장 좋지 않았던 때(혹은 가장 슬펐을 때)는 언제, 무엇이었습니까?
-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진

연구책임	염미경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장
공동연구	장혜련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연구보조 (영상/구술채록)	윤나련	제주대학교 교육학석사
연구보조	송형일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조교

제주학연구 24

제주 전통옹기의 복원과 전승 및 문화유산화 과정 연구

발행인 || 강기춘

발행일 || 2015년 12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219 제주도 청사로1길 18-4, 1층(도남동)

전화: (064) 747-6138 팩스: (064) 747-6140

홈페이지: www.jst.re.kr

인쇄처 || 하나CNC출판

ISBN : 978-89-6010-445-7 93090

-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